

# III

## 현지조사 자료

---

3.1 철원군 지역

3.2 포천시 지역

3.3 연천군 지역



행정자치부

접경지역 한탄강 인문자원 발굴



### 3.3 연천군 지역

표 1 <연천지역 답사 일정표>

일자	시간	지역	장소 및 주요 답사 지역	제보자
7월 17일	09:00-11:00	황지리	황지리 마을회관, 삼형제 바위 등 인근 한탄강 지역.	서영수(76) 신현화(55) 류희수(88)
	11:00-13:00	남계리	남계리 마을회관, 도감포 등 인근 한탄강 지역	심양섭(81) 현석근(57) 문창근(76) 현석주(71)
	14:00-17:00	전곡리1	전곡6리 마을회관, 한탄강 유원지, 배개용암등 인근 한탄강 지역.	김기식(78) 석연필(75) 천진상(75)
	17:00-18:00	전곡리2	전곡6리 마을회관.	임철중(74)
	18:00-20:00	지역 학자·문인	연천 지역 문화 예술에 대한 조사.	이돈희(80) 최병수(65)
7월 18일	09:00-11:30	궁평2리	궁평2리 마을회관, 빨래터 등 인근 한탄강 지역.	김선기(63) 석종걸(77) 이규찬(86)
	09:30-11:30	궁평1리	궁평1리 마을회관, 낙선군 묘 등 유적.	어관문(71) 김정호(58) 이일섭(72) 최호근(86)
	11:30-13:00	장탄2리	장탄2리 마을회관, 선봉바위 등 인근 한탄강 지역.	이승우(76) 김홍식(61)
	14:00-15:00	백의2리	백의2리 마을회관.	이웅(89) 박상흠(73) 정태욱(66)
	15:00-17:00	백의1리	백의1리 쉼터, 선바위 등 인근 영평천 지역.	윤구혁(84) 윤경보(71)
	16:00-18:00	대전리	대전1리 마을회관, 대전리산성 등 인근 한탄강 지역 및 유적.	이정근(86) 서승천(78) 황명철(60) 오종호(60)
7월 19일	09:00-12:00	고문2리	고문2리 이장 자택, 재인폭포 외 인근 한탄강 지역.	김준문(62) 김정수(80)
	09:30-12:00	통현2리	통현2리 마을회관, 고인돌 공원 등 유적.	원심운(80) 김용식(75) 박경현(80) 이명준(79)

				김준기(73)
	13:00-15:00	고문1리	고문1리 마을회관, 불탄소 등 인근 한탄강 지역.	임재민(62) 경순일(59) 서영우(77) 신광순(62)
	15:00-17:00	신답리	신답리 마을회관, 마네배터 외 인근 한탄강 지역. 산제사터 등 유적.	구자순(55) 김수남(87) 윤여관(71)
	16:00-17:30	은대리	은대리 마을회관, 배터 등 인근 한탄강 지역.	서병서(65) 윤권순(85) 홍희순(80)

### 3.3.1 연천읍 부곡리(釜谷里)



#### (1) 유래 및 생활

##### 1) 유래

본래 강원도 철원도호부 관인면의 하리 지역인데, 조선 고종 43년(1906) 9월 24일 “칙령 제49호”에 의하여 관인면이 연천군에 편입되면서 연천군 지역이 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재인폭포 북쪽에 있는 가마골에서 이름을 따 부곡리라 하였으나, 1945년

8·15 광복과 동시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었고,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 11027호”에 의하여 포천군에 편입되었다가, 1989년 1월 1일 “대통령령 12577호”에 의하여 관인면에서 부곡리 지역만 다시 연천군 연천읍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6·25 이후 전지역이 군사보호구역이 되어 현재 민간인이 살고 있지 않는 하나의 법정리이다.

## 2) 생활

① 일제 강점기 시대의 부곡리: 부곡리 지역은 현재 군사보호구역이 되어 민간인이 살고 있지 않은 법정리, 즉 행정구역상으로는 존재한다. 따라서 현지 조사를 통해 과거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행히 철원, 포천, 연천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부곡리에 살았거나 그 인근에 살았던 제보자들을 만나, 과거 부곡리의 역사를 들을 수 있었다.

제보에 따르면 과거 부곡리 지역은 초창기 관인면 소재지였을 정도로 번창했던 마을이라고 한다.(부곡리 지명 가마골편 참조) 부곡리 지역은 원래 조선시대 때 분청사기를 굽던 민요(民窯)가 있던 곳으로, 분청사기, 백자, 옹기 등의 도요지 터가 다수 남아 있다. 여기에 더해 일제 강점기 때는 광산업이 활발해서, 한 때 200 여 호가 넘는 집들이 들어서 있었고, 심지어 광산 내에 대장간과 식당, 숙소가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먹고 살 수 있다는 것과 살기가 편하다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광산 일은 작업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도 다반사였다. 실제로 제보자는 광산 사고로 죽은 사람들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재인폭포 서쪽 골짜기의 이름이 해골이었을까.

한편, 일제 강점기 때에는 부곡리 아래에 위치한 고문리 별판, 일명 번드리 별에 용수를 대기 위해 재인폭포에서 150m 가량 위에 저수지를 막았는데, 그 때 부역으로 부곡리·고문리 사람들이 부역을 했다고 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종일 주변의 흙을 날라 독을 만드는 일은 여간 고된 것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더군다나 차량으로 이동할 수 없어서 것이 아니어서 사람들은 일일이 진흙을 소쿠리에 이거나 구루마(수레)를 끌고 저수지 독까지 올라가야 했다. 마을은 번창했어도 고된 삶은 인근 마을과 다를 바 없었던 것이다.

② 부곡리의 한탄강: 부곡리를 지나는 한탄강은 북쪽(부곡리)과 남쪽(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모두 군사보호지역이라 사람이 살 수 없다. 그 덕에 이 지역은 야생 동식물의 훌륭한 서식지일 뿐만 아니라 한탄강의 줄기 중에서도 가장 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 꼽힌다.

## (2) 설화

\* 문헌이나 현지조사에서 채록된 설화가 없다.(주민이 거주하지 않음)

## (3) 마을의 지명 유래

1) 재인고개: 침묵이에서 재인폭포로 넘어 가는 고개.<sup>1)</sup>

---

1) 이하의 내용은 『연천 향토사료집』(연천문화원 편, 2003)에서 발췌하였다.

2) 가마소: 재인폭포 위에 있는 소(沼). 모양이 가마솥처럼 동그랗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3) 해골: 재인폭포 서쪽에 있는 골짜기.

4) 산제당터: 해골 북쪽에 있는 산제를 올리던 터. 6·25 전까지 가마골 주민들에 의해 매년 정월 초에 소를 잡아 산제를 올렸던 곳이다. 특히 이 곳에는 큰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으나, 6·25가 일어나기 이틀 전에 원인 모르게 부러져 전쟁을 예고했던 영험한 나무였다고 한다.

5) 통막골: 작은골 안에 있는 골짜기.

6) 흘짜골: 통막골 위에 있는 골짜기.

7) 명미지기: 무당소 서쪽에 있는 골짜기.

8) 성재: 작은골에서 동막리의 병골로 넘어가는 고개. 동막리 산성의 뒤에 있는 고개가 된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9) 불당골: 명미지기 북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암자가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10) 일방아골: 무당소 북쪽에 있는 골짜기.

11) 무당소: 작은골 중앙에 있는 소(沼).

12) 작은골: 가마골 안에서 서쪽으로 있는 큰 골짜기.

13) 가마골: 재인폭포 북쪽에 있는 큰 골짜기. 전언에 의하면 예전에 이 골짜기 안에 숲가마가 많았다 하여 가마골이라 불려진다. 하지만 실제 ‘크다’는 뜻의 고어인 ‘곰(감)’과 ‘골’의 합하여 ‘감골’이 되었다가 그 중간에 매개모음 ‘의’가 개입되고 전음되어 ‘감의골’이 ‘가마골’로 불려오다, 한자로 지명을 옮기는 과정에서 음차되어 실제 뜻과는 거리가 먼 ‘감곡’으로 의역되어 엉뚱한 이름 풀이가 되었다.

가마골은 재인폭포에서 다라미고개까지 있는 ‘큰골’과 그 왼쪽인 ‘작은골’을 합친 전체의 큰 골짜기 이름이기도 하며, 6·25 전 이 골짜기 안에는 전주 이씨들이 살았고 관인면이 철원군에서 연천군으로 편입되면서 최초의 관인면사무소가 잠시 동안 이곳에 있기도 하였다.

14) 큰골: 재인폭포에서 다라미고개 정상까지 있는 가마골 내의 큰 골짜기.

15) 성지골: 큰골 입구에 있는 골짜기.

16) 작은농바위골(=작은은바위골): 성지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 안에 농작 같은 큰

바위가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17) 큰농바위골(=큰은바위골): 작은농바위골 위에 있는 골짜기.

18) 과바위 (過岩): 큰골 가운데 있는 큰 바위. 예전에 다라미고개로 올라가자면 이 바위 밑을 모퉁이로 지나가듯 굽어서 돌아가야 한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지금은 이 바위 옆으로 곧은 도로가 나 있다.

19) 짝짝골: 과바위 서쪽에 있는 골짜기.

20) 외나무다리골: 과바위 북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이 골짜기 입구에 외나무다리가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21) 원적사지: 연천읍 부곡리 가마골에 있다. 재인폭포에서 북쪽으로 3km 지점인 가마골 내 다라미고개의 도로변에 위치하는 절터로, 예부터 '절터개'로 불려왔던 곳이다. 십 몇 년 전, 신서면 내산리의 절골과 통하는 다라미고개를 군부대에서 확장하는 과정에서 사지 동쪽의 석축 일부가 붕괴된 상태이다. 건물지가 있던 경내의 전체 면적은 100평 남짓 되는 넓이이고 높지 않은 석축단이 무너져 내린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조선 영조(1765년)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원적사가 보개산의 산기슭에 있었다(圓寂寺在寶蓋山麓)”고 기록되어 있고, 광무 3년(1899)에 편찬된 《연천읍지》에는 “원적사는 보개산 남쪽 자락에 있었으며 일명 상원사라고도 불렀으나 지금은 폐사되었다(圓寂寺在寶蓋山南支 一名 上院寺 今廢)”라는 기록이 있다. 전설에 의하면 약 120년 전에 이 절이 빈대의 극성으로 폐허가 되었다 하며, 수습되는 유물 또한 조선 중기 이후의 와편, 자기, 토기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단편적인 사실들로 미루어 원적사는 조선 후기에 창건되어 19세기 말에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22) 지튼골: 원적사지 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23) 다라목골: 지튼골 북쪽, 다라미고개에 딸린 골짜기.

24) 다라미고개: 가마골에서 신서면 내산리의 절골로 통하는 높고 큰 고개. 다라미의 어원은 고구려 계통에 많이 나오는 산(山)의 옛 음인 ‘달(達, 月)’이 ‘달아 > 다라’로 연철되어 변하는 과정에서 뒤에 산의 원음인 ‘뫼’가 발음 습관에 따라 변한 ‘미’와 ‘고개’가 합친 ‘다라미고개’가 된 것으로, 원래 ‘높이 솟아 있는 산 사이의 고개’라는 뜻을 알 수 있으나, 지금은 아무 의미 없이 음차한 한자 표기의 ‘다라미현(多羅美峴)’으로 되어 있다.

25) 수내미: 큰골 가장 북쪽에 있는 골짜기.

26) 가치목: 큰골과 지장골 사이에 있는 목.

27) 가치봉: 가치목 남쪽에 있는 바위봉우리. 치아처럼 생긴 길고 큰 바위들이 열지어 서

서 이 봉우리를 이루고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28) 새대기: 가치봉 남쪽, 높은 곳에 있는 넓은 평지. 역새풀이 많이 자라는 곳이 되어 지어진 이름이다.

29) 가치목골: 원적사지 동쪽, 가치봉 밑에 있는 골짜기.

30) 퍼령소: 원적사지 남쪽에 있는 소(沼). 약 5m 높이의 퍼령소폭포 밑에 있는 이 소는 6·25 전에 가마골 내에서도 가장 빼어난 경치를 자랑했던 곳으로, 이 소에 명주실을 담그면 고문리 한탄강에 있는 귀옹소로 나왔다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소를 메워버려 지금은 깊고 푸른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31) 나막골: 외나무다리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32) 돌고개: 과바위 북쪽에 있는 고개. 원적사지까지 오르는 일부 구간에 돌이 많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3) 숯돌바위: 과바위 위에 숯돌처럼 생긴 바위.

34) 과바위골짜기: 과바위 동쪽에 있는 골짜기.

35) 가는골: 큰농바위 동쪽에 있는 가는 골짜기.

36) 초막골: 가는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초막이 있었다 한다.

37) 침목이: 가마골 동쪽, 벌판에 있었던 마을. 6·25 전에는 인동 장씨가 많이 살았던 곳으로, 이 곳의 침목은 이 마을과 뒷골 사이의 고개를 뜻하며 예전에 침녕굴이 많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8) 두태봉: 침목이 동쪽에 있는 봉우리. 정상부분 전체가 큰 바위로 이루어져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39) 점말: 두태봉 북쪽에 있던 마을. 조선 초기에 번성했던 분청사기 가마터가 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40) 부곡리 일명사지(逸名寺址) I: 연천읍 부곡리 점말에 있다. 부곡리 분청사기요지의 동쪽에 바로 인접해 있는 절터로, 현재까지 문헌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아 절 이름 및 연혁은 미상이기 때문에 일명사지(逸名寺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절터)로 부른다. 6.25 전부터 발으로 경작되었고, 이후 중장비로 개간하는 과정에서 주초석 및 석축에 이용되었던 많은 석재들을 뽑아 버려 실제 가람의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능선자락과 발이 만나는 북쪽 지점에 본당으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남아 있다.

1991년 문화재관리국에서 실시한 학술조사기간 중 이곳에서 산스크리트어(梵語) 글자가 새겨진 암각새편, 당초문이 선상감된 청자접시편 외에 많은 양의 유물들이 발굴되었다. 분석 결과 인접한 분청사기 가마가 폐기된 뒤 조선 중기 이후에 경영된 사찰로 추정된다.

41) 부곡리 분청사기요지: 연천읍 고문리에서 포천군 관인면 중리로 넘어가는 비포장의 소로변에 있는 가마터로, 능선과 밭이 만나는 완만한 경사면에 퇴적층과 함께 도자기편이 산재해 있다. 가마는 최소한 2기 이상이며, 등요(登窯)이다.<sup>2)</sup> 그릇의 종류는 완, 대접이 중심을 이루며 귀얄문·국화문·나선문·월문·파상문·우점문 등등 다양한 문양의 인화문(印花紋) 분청사기편이 수습되며 도지미, 굽받침돌도 다수 수습된다. 태토는 고운편이며 주로 모래받침을 사용한 흔적이 많다. 수습유물로 보아 조선초 15세기 경 인근의 사찰과 민간에 공급하던 민요(民窯)로 추정된다.

42) 뒷골: 점말 서쪽에 있는 골짜기. 점말의 뒤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43) 부곡리 일명사지 II: 연천읍 부곡리 점말 뒷골에 있다. 점말 분청사기요지에서 서쪽으로 500m 거리에 위치한 절터로 가치봉(加齒峰)에서 좌우로 뻗어 내려온 산자락들이 협소하지만 아늑한 골짜기를 이루었고 그 골짜기 중간의 완만한 경사면에 동향으로 절터가 있다. 건물은 중앙의 본당과 옆으로 요사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지표에서는 굽은 어골문(魚骨文)이 시문된 평기와편들이 쉽게 눈에 띈다.

또한 이 절터에서 뒤편으로 50m 정도 산을 오르면 천연의 깎아지른 절벽이 있고, 그 절벽 하단에는 아래의 사지와 연관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연암굴이 있다. 내부면적은 약 10평 정도이고 입구 좌우에는 돌로 쌓고, 틈을 진흙으로 메운 인공적인 벽이 일부 남아 있으며, 주변에는 사지에서 수습되는 것과 동일한 시대의 평기와편들이 널려 있다. 과거 수도승들이 정진장소로 이곳을 이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고려 후기에 경영되었던 사찰로 추정된다.

44) 가치목골: 뒷골 북쪽, 가치봉 쪽으로 있는 골짜기.

45) 덜거렁바위: 지장동 입구에 있는 약 8m 높이의 바위. 윗부분에 천연적으로 올려져 있는 바위 모양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이 들려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46) 지장골: 점말 북쪽에 있었던 마을. 신라말 조선초에 있던 유명한 사찰인 지장사가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47) 웅장골: 지장동 서쪽에 있는 입구가 좁고 안이 넓은 골짜기.

48) 병풍바위: 웅장골 안의 병풍처럼 생긴 큰 바위절벽. 바위 색깔이 붉어 '붉은 벽낭'으로도 불리며, 6·25 전까지도 호랑이가 많이 나타나기로 유명했던 곳이다.

---

2) 등요(登窯) : 토기 및 도자기를 굽기 위하여 언덕의 경사면에 터널 형으로 길게 설치한 오름 가마.

49) 찬물내기: 병풍바위 옆에 있는 좁은 골짜기. 얼음처럼 차가운 약수가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50) 불선바위골: 웅장골 안에 있는 골짜기. 큰 바위가 부처가 서 있는 모습과 닮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51) 절터밭골: 지장사지 옆, 화전밭 터가 있는 골짜기.

52) 지장사지: 연천읍 부곡리 지장동, 부곡리 분청사기요지에서 북쪽으로 나 있는 소로를 따라 약 2.3km 정도를 거슬러 올라가면 완만한 경사면에 위치해 있다. 문헌에 의하면 840년(헌양왕 4) 범일국사가 창건하였고, 1376년(우왕 3) 자혜(慈惠)가 중수하였으나 조선 조 중기에 신서면 내산리 절골로 이건(移建)되었다고 한다.

4채 정도의 건물 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산의 완만한 경사면을 깎아 건물의 기단부를 석축한 전형적인 산지가람(山地伽藍)의 형태를 보인다. 터는 심하게 폐허가 되어 건물의 초석 등은 확인되지 않고, 고려~조선시대에 걸친 와편, 백자편, 토기편 등만 수습되었다. 목은 이색이 지은 오연율시와 <보개산 지장사중수기>의 내용으로 보아 여말 조선 초에 상당히 번창했던 사찰이었음을 추정케 한다.(오연율시와 지장사중수기는 4장 한탄강 관련 예술 작품 자료 참조)

53) 검은박골: 지장사지 북쪽에 있는 골짜기.

54) 북대: 삼형제바위 서쪽, 포천군 관인면 중리와 경계에 있는 봉우리. 유래는 자세하지 않지만 불교의 영향을 받은 땅이름으로 보인다.

55) 삼형제바위: 지장동 북쪽에 우뚝 솟은 세 개의 큰 바위. 그 모습이 삼형제가 나란히 서 있는 형상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56) 큰고개: 지장골에서 관인면 중리의 큰골로 넘어 가는 고개.

57) 문바위골: 큰고개 동쪽에 있는 골짜기.

58) 사태나무골: 문바위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59) 향로봉골짜기: 문바위골 남쪽, 향로봉에 딸린 골짜기.

60) 향로봉(616m): 지장동 동쪽에 있는 봉우리. 모양이 향로 같이 생겼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61) 사기막고개: 부곡리와 포천군 관인면 중리의 경계에 있는 고개. 부곡리에 있는 사기점으로 넘어 다니던 고개라 하여 불리게 된 이름이다.

62) 부곡리 백자요지: 연천읍 부곡리 사기터골에 위치한 백자 도요지터. 부곡리와 포천군 관인면 중리를 연결해 주는 사기막고개의 정상에서 남쪽으로 약 400m 지점인 계곡 중간의 넓은 대지가 부곡리 백자요지가 있는 곳이다.

이곳은 일제 강점기 이 전부터 밭으로 경작되었다는 촌노들의 제보로 보아 이미 오래전에 가마터가 멸실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지표에 널려 있는 도자기, 가마벽, 도지미편의 양으로 보아 2기 이상의 가마가 등요(登窯)로 있던 것 같다. 그릇의 종류는 내저원각선이 뚜렷한 접시류와 사발이 주종을 이루며 태토는 곱고, 유약은 암청색에 가깝다. 굽받침은 내화토빛은받침과 모래받침이 쓰였고, 모두 상변으로 포개어 구운 민수용 도자기로 17~18세기

에 경영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63) 사기터골: 백자요지 옆에 있는 골짜기. 조선 후기에 경영되었던 사기점이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64) 부곡리 용기요지: 연천읍 부곡리 접말에 위치해 있다. 부곡리 분청사기요지에서 지장 골 방향으로 계곡을 따라 약 500m 올라가면 개울 우측으로 양호한 상태의 용기가마터가 2기 이상 위치하는데, 회갈색과 흑갈색을 내는 조선시대 후기 전통적인 용기의 거의 모든 종류의 그릇들이 무수히 산재하고 있다.

능선의 끝과 개울이 만나는 경사면에 이 일대를 옮겨 다니며 등요(登窯)를 설치 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약은 광명단 사용 이전의 것으로 대개 17~18세기의 가마터로 추정되며 유물들로 보아 민가에서 실제 사용하던 보시기, 대접, 병, 향아리, 대웅, 소옹, 단지 등 등의 그릇들을 구웠던 곳으로 추정된다.

65) 작은두목골: 접말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 큰두목골에 상대되는 지명이다.

66) 구들떼기: 두태봉 동쪽에 있는 둔덕. 6·25 전까지도 이곳에서 나는 구들돌을 주변 마을에서 많이 캐갔다 한다.

67) 큰두목골: 두태봉 동쪽에 있는 골짜기. ‘산(山)’ 또는 ‘등성이’를 뜻하는 고어 ‘뚝’에 뿌리를 둔 땅이름으로, ‘뚝’과 ‘골’이 합하여 ‘뚝골’로 불리우던 것이 ‘뚝’이 ‘뚝(으)골 > 두목골 > 두무골 > 두목골’로 연체되어 굳어진 ‘산골짜기’를 뜻하는 이름이다.

68) 종자산(642.8m): 두태봉 동쪽, 포천군 관인면 중2리와 경계에 있는 산. 전설에 의하면 아주 예전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었을 때 이 산 정상에 종지(種子는 ‘종지’의 대역자로도 쓰인다)만큼 남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69) 부곡리 고려고분군: 연천읍 부곡리 다락터에 있다. 6.25 이후 군부대 포병훈련의 탄착 지점이 되어 민간인 출입금지 구역이 되어버린 다락터 ‘붉은등’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고분군이다. 외형상으로 보아 고분의 형태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표는 탄흔지에 파헤쳐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청자편, 분청사기편, 토기편, 인골편 등이 쉽게 눈에 띄는 것으로 보아 고려~조선시대에 걸쳐 형성된 고분 밀집지역으로 추정된다.

70) 다락터: 한탄강 북쪽, 고려고분군 주위에 있었던 마을. 예전에 누각이 있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전해 오나, 원래의 의미는 산(山)의 옛 이름인 ‘달’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

이 마을은 보개산 남쪽의 높은 산인 종자산, 가마봉, 보장산 등이 주위에 위치 하고 있는 전형적인 산촌(山村)인데, 아래와 같이 ‘달(山)’과 ‘터’가 합하며 어휘가 변하여 ‘다락터’로 불리게 되었고, 다시 한자로 음차하여 전혀 다른 뜻의 ‘다락터’가 된 산과 관련된 땅이름이다. 달<sup>으</sup>터 > 달아터 > 다라터 > 다락터

71) 셋말: 다락터와 문지터 사이에 있던 작은 마을. 6·25 전에는 안동 권씨가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곳이다.

72) 문지터: 다락터 서쪽에 있던 작은 마을.

73) 개울약수: 문지터 남쪽, 한탄강 절벽에 있는 약수. 많은 양의 맑은 물이 폭포와 같이 장관을 이루며 떨어지는 이 약수폭포는 6·25 전까지도 피부병에 효험이 있다 하여 많은 사람이 찾던 명소이다.

74) 총대여울: 부곡리 안터와 포천군 창수면 신흥리 사이에 있는 한탄강 여울.

75) 안터: 가마봉 남쪽에 있던 마을.

76) 시강원보덕 이민곤 묘: 문화유적·유물편 “명묘” 참고.

77) 날가리바위: 가마봉 남쪽, 한탄강변에 있는 큰 바위. 그 모양이 곡식을 쌓아둔 노적거리와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78) 가마봉(282m): 재인폭포 동쪽에 있는 가마처럼 생긴 바위 봉우리.

#### (4) 6.25 경험담

\* 현지조사에서 6.25 경험담을 채록할 수 없었다.(주민이 거주하지 않음)

#### 3.3.2. 연천읍 고문리(古文里)

<제보자>

임재민(62): 마을 토박이 현 고문1리 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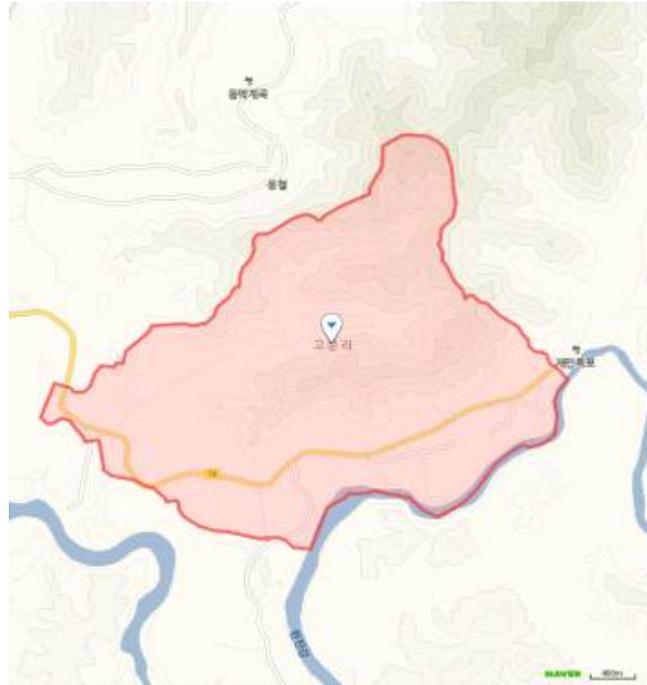
경순일(59): 마을 주민. 5-6세부터 고문리에 거주.

서영우(77): 고문1리 노인회장. 30대 후반부터 고문리에 거주.

김준문(62): 고문2리 이장. 62년부터 거주. 가든 경영

김정수(80): 고문2리 노인회장. 58년부터 47년 간 거주.

신광순(62): 마을 토박이. 현재는 경기도 안성 거주.



## (1) 유래 및 생활

### 1) 유래

고문리는 한탄강과 산을 끼고 위치한 마을이다. 본래 연천현 현내면의 무수동리(無愁洞里) 지역인데, 조선 고종 32년(1895) 지방 관제 개정에 의하여 무수동리를 고문리로 개정하여 군내면에 편입되었다. 이후 1945년 8·15 광복과 동시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2개의 행정리, 13개 반, 3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sup>3)</sup>

무수동리가 왜 고문리로 개정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와 관련된 전설이 있어 흥미롭다. 고문리의 바로 위쪽 현 행정구역상 부곡리에 위치한 재인폭포에는 두 개의 전설이 존재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코문리 전설이다. 전설에 따르면 재인 아내가 자신의 미모를 탐내 겁탈하려던 고을 수령의 코를 물어뜯고 자결했다고 한다. 그 뒤부터 이 마을을 재인의 아내가 원님의 코를 물었다 하여 ‘코문리’라 불려지게 되었으나, 차츰 어휘가 변하여 ‘고문리(古文里)’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고문리 마을의 설화편 참조)

### 2) 마을의 생활

① 한탄강과 고문리: 포천을 지난 한탄강은 재인폭포를 타고 내려와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와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를 가로지르며 서남쪽으로 내려간다. 고문리는 한탄강의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재인폭포(부곡리) 바로 아래에서부터 시작되어 서남쪽으로 흐르던 한탄강이 크게 굴곡지며 북쪽으로 방향을 트는 지점 앞에까지 걸쳐 있다. 고문1리는 번드리 평야에

3) 연천문화원 편, 『연천 향토사료집』, 연천군청, 2003, 참조.

위치해 있고, 고문2리는 그보다 위로 올라가서 재인폭포에서부터 현재 한탄강 수력발전소 어름에 걸쳐 있다. 고문1리는 오래 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고, 고문2리는 일제 강점기 때 부곡리 금광의 발견과 함께 마을로 형성되어 50년대 사격장이 들어서면서 피탄을 쬐는 사람들이 모여 점차 변화해졌다. 때문에 고문1리와 고문2리의 생활환경은 다소 달랐다. 고문1리는 현재에도 마을을 유지하고 있으나 고문2리는 피탄을 쬐지 않게 된 이후로 인구수가 급감하였다.

② 고문1리와 2리의 생활: 재인폭포의 전설과 관련하여 코문리라는 재미있는 이름의 유래가 있으나, 기록상 고문리는 원래 무수동리(無愁洞里)로 불렸다. 무수동의 한자어는 잘못된 명칭이나 어떻게 한자어대로라면 근심이 없는 동네여야 하지만, 고문리 사람들의 실제 생활은 험하고 힘겨워서 오히려 근심을 달고 살았다. 어쩌면 그래서 근심 없는 동네라는 역설적 이름이 붙었는지도 모르겠다. 고문리는 재인폭포의 아래에 위치한 고문2리와 그 아래 번드리 평야에 위치한 고문1리로 나뉜다. 두 마을은 각기 살아온 내력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각각 설명한다.

ㄱ) 고문1리의 생활: 고문1리 앞에는 번드리라는 꽤 큰 평야지대가 있다. 그러나 현무암 지대인 까닭에 땅이 물을 가둘 수 없어서 황무지에 가까웠다. 비가 오면 장화 없이는 다닐 수 없고, 비가 안 오면 콘크리트보다 더 딱딱한 땅이 바로 이곳 고문리의 땅이었다. 마을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이곳은 7,80년 대 이후 농업용수가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이전까지는 너무 척박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간혹 물이 고일만한 곳에 밭농사를 심는 것이 고작이었다고 한다. 또한, 이곳은 6.25 전쟁 때 격전지이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6.25 전쟁이 끝난 후에도 수습되지 않아 번드리의 황무지에 방치되었다고 한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중학교 때 연천읍으로 자전거를 타고 통학하다가 인골을 간혹 목격했다고 한다. 어두워질 무렵 번드리의 쑥대밭 사이에서 발견된 인골은 슬픔 이전에 공포의 한 장면이었을 것이다.

한편, 이곳은 군의 포사격장이 가까이에 있어 매일 같이 포소리가 나고 피탄이 발견되어 마을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으나 최근에 철수하여 그나마 살기가 좋아졌다고 한다.

ㄴ) 고문2리의 생활: 고문2리는 원래 산골에 지나지 않았는데, 일제 강점기, 고문2리의 위에 위치한 부곡리 지역에서 광물이 채취되면서 번창할 무렵 본격적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현재 냉정리에 살고 있는 고문리 토박이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부곡리는 광산을 중심으로 대장간과 식당가 숙소 등이 크게 들어섰는데, 고문2리 역시 그 효과로 마을이 되었다고 한다. 6.25 전쟁 중에 광산과 시설물들은 모두 파괴되어 마을이 침체되었다가 전쟁 후에 포사격장이 들어서면서 피탄을 주워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시 마을에 모여들었다. 피탄을 쬐는 일은 매우 험하고 위험하다. 그래서 마을이 번성했어도 항상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생겨나 주민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다. 때문에 고문2리에서는 산신제를 지내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했다고 한다. 현재는 피탄 쬐는 사업이 쇠퇴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수가 급감하였다. 현재는 한탄강댐과 수력발전소 공사가 고문1리의 한탄강 자락에서 진행 중이다.

## (2) 설화

1) 재인폭포 전설: 고문2리 바로 위쪽 행정구역상 부곡리에 소재한 재인폭포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 두 개가 전해진다.<sup>4)</sup>

첫째 이야기는 재인의 아내가 주인공으로 재인폭포의 아래에 위치한 고문리의 지명 유래담이기도 하다. 옛날 어느 원님이 이 마을에 사는 재인(才人) 아내의 미색을 탐하여 이 폭포 절벽에서 재인으로 하여금 광대줄을 타게한 뒤 줄을 끊어 죽게 하고 재인의 아내를 빼앗으려 하였으나, 절개 굳은 재인의 아내는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 거짓으로 수청을 들며 원님의 코를 물어뜯고 자결하였다고 한다. 그 뒤부터 이 마을을 재인의 아내가 원님의 코를 물었다 하여 '코문리'라 불리워지게 되었으나, 차츰 어휘가 변하여 '고문리(古文里)'라 부르게 되었다.

둘째 이야기는 조선 영조(1765년)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 연천현 산천조에 기록된 전설로 재인을 주인공으로 하여 이를 수 없는 비극적 사랑을 그리고 있다. 기록은 다음과 같다. '재인폭포는 연천 관아에서 동쪽으로 20리 거리인 원적사 동구에 있는데, 벽립해 있는 양 절벽 사이로 수십 길 높이를 수직으로 흐르며 떨어진다. 옛날에 한 재인(才人)이 있었는데 하루는 마을 사람과 이 폭포 아래서 즐겁게 놀게 되었으나, 그 마을 사람의 아내가 매우 미모가 뛰어난 고로 자기 재주를 믿고 흑심을 품은 재인은 그 자리에서 장담하며 약속하기를, 이 절벽 양쪽에 외줄을 걸고 내가 능히 지나갈 수 있다! 라고 호언장담하자, 마을 사람은 재인의 재주를 믿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 아내를 내기에 걸게 되었다. 잠시 후 재인은 벼랑 사이에 놓여 있는 외줄을 타기 시작하는데, 춤과 기교를 부리며 지나가는 모습이 평지를 걸어가듯 하자 이에 다급해진 마을 사람은 재인이 줄을 반쯤 지났을 때 줄을 끊어버려 재인은 수십 길 아래 구렁으로 떨어져 죽게 되었고 이러한 일로 인하여 이 폭포를 재인폭포로 불리게 되었다.'

### (3) 지명 유래

1) 재인폭포: 가마골 입구에 있는 18.5m 높이의 폭포. 행정구역상 부곡리에 위치해 있으나 부곡리는 사람이 살지 않는 행정구역상의 법정리이고, 고문리는 재인폭포로 향하는 유일한 통로이자 마을 사람들의 삶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고문리로 포함시킨다. 보개산과 한탄강이 어우러지는 주위의 빼어난 경관과 맑은 물로 인하여 사시사철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연천군의 대표적인 명승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재인폭포 옆에 군초소가 있어 민간인이 재인폭포 위쪽, 즉 부곡리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

이 폭포에는 두 전설이 전해지는데, 하나는 고을 원의 탐욕으로 인한 재인의 죽음과 그 아내의 강한 정절이 얽힌 전설이고 또 하나는 조선 영조(1765년)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실려 있는 이야기로 재인의 비극적 사랑에 대한 전설이다.(고문리 마을의 설화편 참조)

4) 연천군지편찬위원회 편, 『연천군지』 상, 연천군청, 2001. 재인폭포는 행정 구역 상 부곡리에 속하나 실제 채록은 고문리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곳에 기술한다. 한편, 이 이야기는 고문1리와 2리 양쪽에서 제보 받았으나 내용이 소략하고, 습득 경로가 모두 기존 문헌에 의한 것이므로 해당 문헌을 참고하였다.



그림 4 전망대에서 본 재인폭포



그림 5 재인폭포 전망대 앞에 설치된 설명문. 고문리 지명 유래와 재인폭포 관련 전설이 기록되어 있다.

2) 고문리(古文洞): 토토봉 동쪽에 있는 마을로, 고문2리의 중심지가 된다. 동북쪽에 재인 폭포가 위치해 있다.

3) 무수동(無愁洞): 아랫삼거리 동쪽에 있는 마을로 달리 무시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고문1리와 2리로 갈라지는 삼거리에서 78번 국도를 따라 통현리 쪽으로 조금 가다보면 토토봉의 아래 산자락에 위치해 있다. 원래는 무시울로 불렸는데, 이는 ‘마을 밖으로 한탄강이 크게 휘돌아 흐르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문헌 자료에 의하면 한자로 지명을 옮기는 과정에서 단순히 발음 그대로인 ‘무수’를 아무런 연관이 없는 ‘무수(無愁)’로 음차하여 표기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 땅이름이라고 한다.<sup>5)</sup>

5) 전국적으로 ‘무수’ 또는 ‘무시’의 땅이름을 가진 곳의 공통점과 어원의 분석을 통해 보면 모두 다 ‘물’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시울 역시 고문리 아래로 흐르는 한탄강과 연관이 있는 이름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제보에 따르면 무수동의 지명 유래에 대해 물이 귀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며, 달리 건정동(乾井洞)으로 불렸다고도 한다. 즉 무수동의 수를 수(愁)가 아닌(水)로 본 것이다. 무수동의 어원이 무시울이라면 무수(無愁)→무수(無水)로 계속 와전된 셈이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이곳을 무수동(無水洞) 또는 건정동(乾井洞)으로 부른 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곳의 골짜기를 샘골이라고 하는데, 다른 곳은 물이 없는데 이곳만 유일하게 샘이 계속 올라왔다고 한다. 확실히 물이 마른 지역에 홀로 흘러나오는 샘물은 건정(乾井)을 떠올리게 한다. 고문리 지역은 현무암 지대라 물이 땅 밑으로 새 나갔기 때문에 물이 매우 귀했다. 때문에 물이 조금이라도 나오는 곳에 마을을 이루어 살았다. 무수동 역시 그런 곳 중 하나였던 셈이다. 현재는 마을은 없어지고 군부대가 있다.

한편, 고문리와 이웃한 통현리에 건정동(乾貞洞)이라는 마을이 있다.(통현리 건정동 참조) 팔판서를 배출해서 위세가 드높았다는 의미로 불린 이름인데,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고문리에서 무수동을 건정동이라고 부른 것은 무시울의 계속된 와전이거나, 통현리의 건정동과 혼동되었거나, 아니면 정말로 마른 우물(샘골) 때문이거나 셋 중 하나이다.

4) 샘골: 고문1리 서쪽의 무수동 위쪽에 있는 골짜기. 그곳에 아무리 가물어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샘물이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5) 번드리(반도동 返道洞): 고문초등학교 주위에 있는 고문1리의 중심이 되는 마을. 앞에 펼쳐져 있는 들이 번듯하고 넓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번드리를 달리 반도동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무수동의 경우와 같이 한자어로 음차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와전이라 할 수 있다. 주민의 제보에 따르면 원래 번드리는 물을 가둬주지 못해서 황무지였고 썩대밭이었고, 그래서 주로 밀이나 보리 고구마와 같이 가뭄에 강한 작물을 중심으로 심었다. 한편, 다른 제보에 따르면 번드리 별판도 과거에는 가사평에 들어갔다고 한다. 번드리 별판에서 세종이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사냥하면서 며칠을 묵은 곳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한다.

원래 가사평은 행정 구역 상으로는 전곡읍 은대리와 전곡리, 연천읍 통현리에 걸쳐 있는 연천군 제일의 평야이며 곡창지대를 일컫는 지명이다.(통현리 지명유래 가사평 참조.) 그런데 가사평의 지역은 번드리와 지척에 놓여 있는 만큼, 실제로 가사평의 일부였거나 아니면 위치상의 이유 때문에 가사평에 포함된다고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6) 진사래밭: 번드리 동쪽에 있는 긴 밭. 지금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7) 공동묘지: 고문1리 군부대 근처에 위치한 묘지. 과거에 피탄 사고로 죽은 사람들을 묻었던 곳이라고 한다.

8) 삼거리: 연천초등학교 고문분교 바로 아래에 있는 삼거리. 무수동(무시울)·재인폭포·신답

---

이다. 즉 물은 고어로 ‘물’, ‘뭍’, ‘못’, ‘물’로 발음과 표기가 되어 왔으며, 무시울의 어근은 ‘뭇’에서 찾을 수 있으나, 매개모음 ‘의’가 개입되고 음의 변화를 거치면서 오늘의 무시울로 정착되어 쓰이게 된 것이다.(뭇 + 울 =뭇(의) 울 > 무식울 > 무시울). 그런데 한자로 지명을 옮기는 과정에서 단순히 발음 그대로인 ‘무수’를 아무런 연관이 없는 ‘無愁’로 음차하여 표기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 땅이름이다. 연천문화원 편, 『연천 향토사료집』, 연천군청, 2003, 참조.

리로 가는 세 갈래 길이 된다.

9) 삼거리 천수답: 삼거리 부근의 농지. 물을 가둘 수 있는 땅이어서 과거에는 고문리 전체에서 몇 안 되는 농토가 있던 곳이다.

10) 불탄소: 번드리 동쪽, 한탄강에 있는 소(沼). 왼쪽으로 병풍같은 주상절리를 끼고 완만하게 곡선을 긋는 구간으로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곳이다. 무엇보다 불탄소의 물은 매우 깊다. 전설에 따르면 과거에 하늘로 승천하려다가 실패한 이무기가 살고 있었으며, 그래서 강가에 소를 매어 두고 농사일을 하다보면 이무기가 소를 잡아먹고 매어 놓은 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고 한다. 고문리 주민의 제보에 따르면 과거에 젊은 혈기로 불탄소에 잠수한 적이 있었는데 4m 정도를 들어갔는데도 아래가 검고 끝이 안보였으며, 찬물이 올라와 무서워서 도로 올라왔다고 한다. 폭약을 터트렸는데도 물기둥이 별로 안 솟을 정도로 깊은 곳이 바로 불탄소이다.



그림 6 불탄소. 사진을 찍은 곳이 불탄소로 내려가는 유일한 길인데, 길 아래 부분부터 밧줄을 잡고 암벽을 타야한다.

11) 배터거리: 불탄소 아래에 위치한 고문리·신답리와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를 오가던 나루터.(신답리 지명 유래 마내배터 참조)

12) 박쥐굴냥: 번드리 논밭과 한탄강이 만나는 절벽에 위치한 굴로 불탄소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고문1리와 신답리의 경계지역이나 행정구역상으로는 신답리 소재이다. 예전부터 박쥐가 많이 서식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굴 안쪽 끝까지 들어가 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입구가 크고 깊으며 찬바람이 솟아오르는 곳이다. 그래서일까. 제보자(임재민)에 따르면 어린 시절 친구들과 종종 이곳에 들어갔다 나오는 담력 대결을 펼쳤다는데, 물론 제보자 역시 무서워서 끝까지 가보지는 못했다고 한다. 한편, 6.25 때 마을 주민들 중 일부가 이곳에서 피난살이를 했다.



그림 7 박쥐굴낭, 수풀이 우거져 있어서인지 더욱 음산해 보인다.

13) 토토봉(411.2m) : 고문동 서쪽에 있는 두 개의 높은 봉우리. 산의 모양이 낙타의 등처럼 특이하게 툭 볼가져 나와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14) 아랫삼거리: 느준모루 동쪽에 있는 삼거리. 통현리· 고문리· 신답리로 갈라지는 곳이다.

15) 느준모루: 아랫삼거리 서쪽, 현 통현리의 경계 부근에 있는 마을. 이곳은 낮은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고 한다. 그 형세가 마치 대장간의 모루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느준모루의 맞은 편에 위치한 선봉바위(풀무산), 서남쪽에 삼각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신답리의 마을 쇠촌이(금촌, 金村)과 함께 도가니혈의 명국, 즉 대장간의 풀무와 모루와 쇠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세라 한다.(자세한 내용은 장탄리 마을의 생활 참조) 예로부터 언덕이나 고개를 마루로 불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래는 '낮은 마루'였던 것이 느준모루로 변했고, 여기에 풍수지리학이 개입하여 대장간의 모루라는 의미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주민 중에는 풍수지리학적인 유래를 알면서도 동시에 낮은 언덕이라 그렇게 불렀다고 제보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이 마을은 모퉁이라는 의미에서 '만우동(晩隅洞)'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통현리 주민의 제보에 따르면 만송(晩松)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만우동이 와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느준모루는 지명의 유래도 불리는 명칭도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16) 붉은덕고개: 느준모루에 있는 고개. 흙빛이 붉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지금은 민가가 없으나 과거에는 몇 가구 살았다고 한다.

17) 붉은데기(赤峴): 느준모루 동쪽에 있는 산등성이. 흙빛이 붉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붉은등이라고도 한다.

18) 낮은 절골: 오봉사지 동쪽에 있는 큰 골짜기. 고문리의 일명사지(이름을 알 수 없는 절터)가 들끓는 빈대로 인해 폐사, 즉 낮은 절이 되었다 하여 불린 이름이다. 단순히 절골이라고도 불린다고 한다.

19) 산고사 터: 토토봉의 동쪽 기슭, 재인폭포의 서쪽 골짜기에 위치해 있다. 고문2리 지역은 6.25 이후 포사격장의 피탄을 주워 파는 사람들이 주로 살았는데, 피탄 줍기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으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문리 마을의 생활참조) 그래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그림 8 산고사 터. 보이는 위치에서 오른쪽 방향에 재인폭포가 있다.

20) 귀옹소: 가래동 동쪽, 한탄강에 있는 소(沼). 소의 먹이통인 구유와 같은 형상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1) 덕고개: 아랫삼거리에 있는 고개.<sup>6)</sup>

22) 꽃창모루: 무시울과 번드리 사이에 있는 산모퉁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 곳에 선대묘를 쓰고 그 주위에 진달래, 철쭉, 개나리 등의 꽃나무를 많이 심어 매년 봄이 되면 활짝 핀 꽃들이 장관을 이루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23) 장승모루: 진사래발 북쪽에 있는 모퉁이. 예전에 장승이 서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24) 아기바위골짜기: 장승모루 북쪽에 있는 골짜기.

25) 가래동: 장승모루 동쪽에 있는 마을.

26) 선바위: 수리봉 남쪽에 우뚝 서 있는 큰 바위.

27) 수리봉: 남봉고개 동쪽, 통현리와 경계에 있는 봉우리.

28) 오봉고개: 오봉동에서 통현리의 건쟁이로 넘어 다니던 고개.

29)) 오봉동: 오봉사지 입구에 있는 마을.

6) 이하의 내용은 『연천 향토사료집』(연천문화원 편, 2003)에서 발췌하였다.

30) 가마봉: 오봉고개 동쪽에 있는 봉우리. 통현리와 경계가 되며 가마와 같은 형상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31) 허궁다리 (虛空橋): 오봉사지 북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큰 돌다리가 있었다 한다.

32) 오봉사지(五峰寺址): 소재지는 연천읍 고문1리 76이다. 통현리에서 궁평리 사이를 연결하는 79번 도로에서 북동쪽으로 2km 지점의 계곡 안에 위치하는 절터로, 주위에 보개산 남단의 5개 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 쳐져 있다 하여 오봉사로 명명된 과거 연천을 대표했던 대가람이다. 5개의 봉우리 중 4개는 안장봉·토토봉·가마봉·수리봉이며 한 개는 정확하지 않다. 오봉사(五鳳寺)로 나온 기록도 있다.

신라 말에 창건되었다 하나 현재까지 확실한 근거문헌이 없다. 다만 태종실록을 비롯한 여러 기록들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오봉사는 한말 정미의병사건(丁未義兵事件, 1907)으로 신서면 내산리 심원사가 전소되는 여파와 오봉사 사유림의 많은 부분이 국유지로 편입되는 토지문제 등으로 퇴락하다가, 6.25 전쟁 중에 조선 숙종 때 중수된 대웅전을 비롯한 여러 채의 건물이 전소되었다.

33) 안장봉: 오봉사지 뒤편에 있는 봉우리. 안장과 같은 형상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34) 고문리 일명사지: 연천읍 고문1리 낡은 절골에 소재해 있다. 오봉사지에서 동쪽으로 1km 지점인 낡은 절골 계곡의 중간에 위치한 절터이다. 현재 문헌상에 나타나 있지 않아 이 사찰의 이름과 연혁은 알 수 없다. 과거 대찰의 규모를 자랑했던 오봉사와 인접해 있는 것으로 보아 오봉사에 딸린 암자터로 추정되며, 여러 정황상 조선초에 창건된 것으로 보인다. 마을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빈대에 의해 폐사(廢寺)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35) 무엄발골: 오봉고개 동쪽에 있는 골짜기.

36) 당재너머: 오봉동에서 무수동(무시울)로 넘어 다니던 고개. 예전 이 고갯마루에 서낭당이 있었다 한다.

37) 도정 임기창(任基昶) 영세불망비: 연천읍 고문1리 아랫삼거리에 소재하고 있다. 연천읍 통현리와 전곡읍 신답리를 연결하는 79번 도로에 있는 비로, 고문리 아랫삼거리의 중앙에 위치한다. 도정 임기창(任基昶)의 선정비(善政碑)이다. 비의 건립 연대는 1888년(고종25)이며, 도정 임기창의 생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38) 연당: 고문리 중앙에 있는 집.

39) 작은토토봉: 토토봉 동쪽에 있는 작은 봉우리.

40) 썰래터: 작은토토봉 북쪽에 있는 골짜기.

41) 복호낭: 작은토토봉 북쪽에 있는 긴 낭떠러지.

42) 남봉고개: 고문리와 통현리 사이에 있는 고개.

43) 함경도관찰사 김계하 묘: 연천읍 고문리 산88-2에 소재하고 있다. 김계하는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생몰연대는 1759(영조35)~1834(순조34)이며, 본관은 강릉(江陵), 자는 경천(景天)이다. 부사(府使) 김정진(金鼎鎭)의 아들이다. 1808년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건너가 양국 간에 현안문제를 수습하고 돌아왔으며, 그후 강계부사, 의주부윤, 개성유수를 거쳐 1827년에 함경감사가 되었다.

(4) 6.25 경험담

\* 현지조사에서 6.25 경험담을 채록할 수 없었다.

4.3.3 전곡읍 신답리(新沓里)

<제보자>

구자순(55): 마을 토박이. 신답리 마을이장.

김수남(87): 마을 토박이 신답리의 가장 연장자.

윤여관(71): 신답리 전 마을이장. 61년 간 거주.



(1) 마을의 유래 및 생활

## 1) 유래

본래 양주군 청송면 금촌리 지역으로, 한탄강 줄기에 위치하고 있는 강변마을이다. 북쪽으로는 고문1리가 위치하고 있다. 본래 양주군 청송면 금촌리 지역으로, 한탄강 옆에 큰 논이 있어 쉼논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개안, 쇠촌(金村), 새말(新村), 붉은데기, 아우라지를 병합하여 신답리라 부르게 되었다. 1945년 해방 후 북한 지역이었다가, 한국전쟁 이후 954년 1월 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개 행정리, 6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연마을로는 개틀, 새말(新村), 쇠촌(金村) 등이 있다. 개틀은 새말 동쪽에 있던 마을이고, 새말(新村)은 아우라지 북쪽에 있던 마을이다. 쇠촌(金村)은 마내고개 남쪽에 있는, 신답리의 가장 큰 마을로, 이 마을이 청산면 장탄2리에 있다는 명국(名局) 도가니 혈(穴)의 한 형제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sup>7)</sup>

## 2) 마을의 생활

① 한탄강과 신답리: 고문리의 아래에 위치한 신답리는 남쪽으로 내려오던 한탄강이 북쪽으로 크게 굴곡지는 안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즉 재인폭포에서부터 내려와 고문리(오른쪽)와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왼쪽)를 가로지른 한탄강의 물은 오른쪽에 신답리를 끼고 남쪽으로 흐르다가 영평천과 합수되는 지점에서 시계방향으로 꺾여 북쪽으로 크게 올라가면서 신답리(오른쪽)와 장탄리(왼쪽)를 갈라놓은 후 다시 남쪽으로 길을 틀어 전곡을 향한다. 그래서 한반도와 비슷한 모양이 나오는데, 신답리는 그 한반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동서남 세 방향 모두 한탄강과 접경을 이루고 있다. 이곳에는 포천 신흥리와 오가던 배터거리를 비롯해서 계란갈, 삼형제 바위(삼상돌), 영평천과 합수되는 아우라지 베개용암 등을 품고 있다. 한탄강이 북쪽으로 막 올라가는 지점 모서리 맞은편에 행정구역상 장탄리에 해당하는 선봉바위(좌살바위)가 있다.

② 신답리의 마을 제사: 신답리의 마을 제사는 연천군지, 향토사료집 등 기존 자료에서는 보이지 않으나, 실제로 오래 전부터 마을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고 한다. 신답리 마을 제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특징적이다.

첫째, 신답리는 지역적으로 두 군데로 나뉘는데 위쪽, 즉 고문리에 가까운 쪽은 안말이라 불렀고 아래쪽, 즉 아우라지 베개용암 쪽 방향에 위치한 마을을 바깥말이라 불렀다. 어느 만신에 따르면, 바깥말 쪽은 여신, 안말은 남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안말에서 제사를 지낼 때면 만신의 주재 하에 바깥 말에서 남신을 모셔왔다고 한다. 상징물은 종으로 남신 모양을 만들었다고 한다. 제보자가 직접 목격했다고 하는데, 이후에는 유교식으로 바뀌었고 최근에는 그나마도 간소하게 진행한다. 이러한 형식은 강릉 단오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추정된다.

둘째, 신답리의 마을 제사는 일제 강점기 이전부터 행해졌으며, 일종의 산신제로 마을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려 마을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했다고 한다. 이영으로 움막 모양을 만든 후 매년 제사를 지낸다. 꼭 검은 돼지만 잡아서 했으며, 간혹 소의 간을 쓰기도 하였다. 한 때 무당이 주관한 적도 있었으나 대체로 유교식으로 축문을 읽는 형식이다.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 중 연배가 있는 사람들로 돌아가며 했는데, 며칠 전부터 목욕재계하고 금기를 지켰으며 특히 부정타는 물건이나 일은 보지도 만지지도 듣지도 않았다

7) 연천문화원 편, 『연천 향토사료집』, 연천군청, 2003.

고 한다. 심지어 손님도 맞이하지 않았다. 제사를 하는 시기는 대략 음력 정월 열나흘 즈음이다. 한편, 인근 마을 주민의 제보에 따르면 이삼십년 전에 몇 년 동안 제사를 안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마을 젊은이들 중에 아프거나 죽은 사람이 여럿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다시 제사를 지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현재는 과거와 달리 간소하게 지낸다고 한다.

## (2) 설화

신답리에서 전해오는 설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8)</sup>

### 1) 모시자 사고가 준 이야기

한 몇 년 전에, 한 십 년 전에 우리집에 군인 가족을 뒀었는데, 저 오봉산에 요 다리 건너 삼거리. 거 건너가면 안 길에 포부대 있거든. 거기는 뭐 그런 소리가 있더라구요. 군인가족한테 들은 소린데. 그 부처가 난류에 떠내려 가가지고 그 도랑에 있었는데요. (조사자 : 부처상이?) 응. 부처가 돌부처가. 그런데 이제 그 군인들이 그걸 달아서 얼로 꺼내 났데나 어떻게 했는데나 그랬는데. 하도 사고가 잘나서 알아보니까는 이제 부처를 그렇게 함부로 해놔서 이제 부대에 사고가 잘난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그걸 잘 갖다 모셔놨데요. 그 위에 엮다 갖다 모셔놨데. 그리고 고사지내고 그리고 나서부터 사고가 좀 안난다고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 (조사자 : 영험하네.) 응. 게 지금 거 안에 절 있을 거예요. 절 생겼어요. 옛날에 옛날에도 그 안에 절터가 있었어요. (조사자 : 절터가 있었는데?) 예. (조사자 : 아, 오래된 절이었나 보죠?) 그러니까 난리나기, 육이오 사변 나기 전. 그 전서부터 거기 절이 있었는데 봐요. 게 그렇게 잘 그렇게 부처를 잘 모셔놓구 이제 고사도 지내고 그랬더니 사고가 군인들 사고가 덜난다 그래더라고요.

### 2) 선녀바위, 오봉산 전설

요기 요 바위가 있고, 요 밑에 내려가면 바위가 쪽 올라가가지고 요렇게. (조사자 : 그 바위 이름은 없어요?) 그게 선녀바우라 그러더라고. (조사자 : 왜 선녀바위래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네. 선녀바운데 옛날에 뭐 선녀가 거기 앉았었다고 말은 그러는데, 그 얘기를 잘 모르겠어요. (조사자 : 저쪽에 산봉우리 이름은 아세요?) 여거 오봉산. (조사자 : 오봉산? 왜 오봉이래요.) 그러니까 산이 봉우리가 다섯 개라 해가지고 오봉산이라고 그러지. 여기서 요기 올라가선 이렇게 보면 봉우리가 이렇게 쪽 있는데, 봉우리가 이제 다섯 개잖아. 그러니까 오봉산이라 그러지.<sup>9)</sup>

## (3) 마을의 지명 유래

8) 신답리의 제보자들은 마을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기존의 문헌 자료로 대체한다. 이하의 내용은 『경기북부구전자료집2-연천군 편』(조흥욱 외 편, 박이정, 2001)에서 발췌하였다.

9) 오봉산: 오봉산(五鳳山) 또는 오봉산(五峰山)으로 불린다. 부곡리에서부터 통현리까지 연천 북부에 걸쳐 있는 산이다.

1) 쇠촌이(金村, 쇠촌이): 마내고개 남쪽에 있는 신답리에서 가장 큰 마을. 신답리(新沓里)의 유래가 되는 마을이다. 예전에는 청송면 금촌리로 불렸다. 청산면 장탄리의 풀무산, 고문리의 느즌모루와 함께 도가니혈(穴) 명국(名局)의 한 형제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청산면 장탄리 마을의 생활 참고) 신답리는 전쟁 중에 대부분의 원주민들이 타지로 떠나고 수복 당시 외지인들이 들어와 새로 일군 마을들이 많다. 그래서 쇠촌이는 새로 일군 밭(新沓)이 되었다. 많은 마을 주민들도 새로 생긴 마을로 알고 있었다.

2) 바깥마을: 쇠촌이의 아래 지역을 부르던 이름.

3) 안마을: 쇠촌이의 위쪽 지역을 부르던 이름.

4) 새말(新村): 아우라지 북쪽에 위치한 마을. 지금은 군부대 사격장이 되어 있다.

5) 개틀: 새말 동쪽에 있던 마을.

6) 마내배터: 불탄소 아래에 위치한 고문리·신답리와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를 오가던 나루터. 마내배덕, 배터거리라고도 부른다.

2) 빨래터: 쇠촌이 동쪽, 마내배터 아래 한탄강변에 위치한 곳으로 달리 계란같이이라고도 한다. 과거에는 수리 시절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활용수를 얻기가 힘들었다. 그때 이곳에서 식수는 물론이고 빨래, 심지어 김장을 담기도 했다.

3) 약물터: 빨래터 남쪽, 약수가 있었다는 곳. 지금도 약수가 나오기는 하지만, 식수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4) 삼형제 바위: 바위 세 개가 형제처럼 놓여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 빨래터의 아래 아우라지 베개용암 위에 위치해 있다. 삼형제처럼 바위 세 개가 나란히 서 있다고 하여 삼형제 바위로 불리며 달리 전설은 없다. 삼성돌 또는 상상돌이라고도 부른다.

5) 사모바위(사모암:紗帽岩): 빨래터 옆에 있는 바위. 모양이 조선시대 문무관원이 착용하던 모자인 사모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6) 처녀바위: 장탄리의 선봉바위(장탄리 지명유래 선봉바위 참조)를 신답리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 바위의 문양에 자연스럽게 처녀가 그려져 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궁신교를 지난 한탄강은 장탄리와 신답리의 경계를 흐르며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두어 차례 작은 굴곡을 만들었는데, 선봉 바위는 그 굴곡의 장탄리 강변 가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행정구역 상으로는 장탄리에 해당되나 경관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강변의 반대, 즉 신답리 쪽에서 보아야 한다.

7) 아우라지 베개용암: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와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 일대에 걸쳐 있는 바위로 한탄강과 영평천이 만나는 합수머리이며 포천에서 지정한 한탄 8경 중 하

나.10) 그러나 실제로는 신답리 쪽에서 바라볼 때 그 절경이 온전히 드러난다. 물이 합수되는 곳을 아우라지라고 하는데, 바로 이곳에서 한탄강과 영평천이 만난다. 한편, 베개용암(Pillow Lava)은 물속에서 뿔어져 나오는 용암이 물과 만나 냉각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며 둥글둥글한 베개 모양으로 굳은 형태를 말한다. 즉 흐르던 용암이 물을 만나 냉각되면서 뒤의 용암이 냉각된 부분을 타고 넘는 과정이 지속되면서 베개모양이 되는 것이다. 아우라지 베개용암은 뛰어난 자연 경관과 역사적·문화적·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를 인정받아 2013년 2월 12일 천연기념물 제542호로 지정되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 전부터 아우라지 베개용암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사랑받던 경치 좋고 물 맑은 휴양처였다. 이 근방에서 떡을 감거나 물고기를 잡다가 바위에 올라가 휴식을 취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의 한 풍경이었다. 그러나 영평천에 들어선 공장들로 인해 물이 오염되면서 생활의 공간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고, 더군다나 지금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바라만 보는 곳이 되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었지만, 정작 자신의 품에서는 떠난 것 같은 허전함이 아우라지 베개용암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생각이라면 지나친 확대해석일까. 그러나 전국리에서도, 신답리에서도 동일한 대답을 들은 것을 보면 그 아쉬움이 마냥 쓸데없이 배부른 소리만은 아닌 듯 하다.



그림 10 아우라지 베개용암의 전경

10) 포천 아우라지 베개 용암은 신생대 제4기에 북한의 평강 오리산 북쪽 640m 지점에서 분출한 현무암질 용암이 추가령 구조선을 따라 흘러내리다가 한탄강과 영평천이 만나는 지점에서 급랭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육지에서는 발견된 예가 드물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하부의 선캄브리아기 변성암류와 상부의 제4기 현무암질 용암류 사이의 부정합 구조, 주상 절리(柱狀節理)(뜨거운 용암이 굳을 때 부피가 수축되면서 돌기둥 모양으로 발달한 나란한 결), 하식애(河蝕崖)(하천의 침식작용으로 생긴 높은 절벽), 고토양층(古土壤層)의 발달 과정 등을 관찰할 수 있어 지질·지형학적인 가치가 우수하며, 경관적 가치 또한 뛰어나다.(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www.grandculture.net)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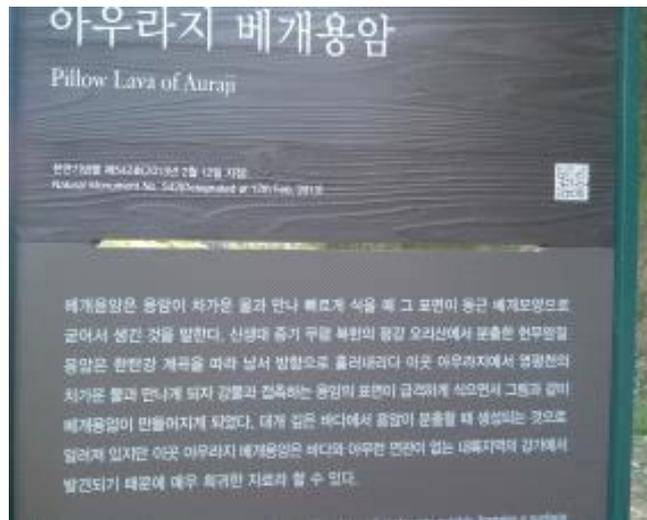


그림 11 아우라지 베개용암의 설명문.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후 전망대가 들어섰다.

- 8) 우무소: 장탄리의 선봉바위(장탄리 선봉바위 참조) 밑에 있는 큰 소(沼). 물이 매우 깊다고 한다.
- 9) 장독바위: 우무소 밑에 위치한 바위. 장독처럼 생겨서 붙은 이름이다. 예전에는 유격 훈련 장소였다고 한다.
- 10) 신답리 마을제사 터: 신답리 사람들이 마을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현 마을회관 위쪽의 작은 언덕에 위치해 있다.(신답리 마을의 생활 참조)



그림 12 신답리 마을제사 터.

- 11) 신답리 고분군(신답리 고구려석실분 I·II·III): 연천의 영평천이 한탄강으로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 2001년 발굴조사에서 고구려 고분으로 확인되었다. 고구려 고분은 초기 기단 없는 돌무지무덤에서 점차 기단이 있는 무덤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계단식으로 발전하였다. 돌무지무덤 위에 다시 흙을 덮는 석실분은 이보다 후기에 나온 형태로 고구려의

평양 천도 후 평양 이남에서 주로 나타났다. 연천 신답리고분도 전형적인 황혈식 석실분으로 장수왕 이후 고분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신답리 고분은 2개가 있는데 각각 1, 2호 고분으로 불리고 있다. 현무암으로 석실을 축조하고 바닥에는 반듯한 대형 판상석을 깔고 그 위에 벽을 만들었으며 천장은 삼각 고임식으로 중심을 잡는 축조기법이 활용됐다. 한편, 제보에 따르면 2001년 발굴조사 이전까지 인근 주민들은 말무덤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 유래에 대해서는 어느 장군의 말을 묻었다고 해서 말무덤이라고 불렀다는 설과, 무덤의 형태가 말의 모양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설을 모두 채록했으나 여러 정황상 전자의 가능성이 보다 크다.



그림 13 신답리 고분군의 지도 위치.

12) 박쥐굴: 긴등 남쪽, 한탄강 현무암 절벽에 있는 자연굴. 깊이는 약 10m 정도이고 박쥐들이 많이 서식하는 곳이다. 고문리의 박쥐굴낭과 동일한 지명으로 보인다.(자세한 내용은 고문리 지명 유래 참조)

13) 연천댐: 아우라지 아래에 있는 댐으로, 1984년 10월 31일 준공되어 전기발전 및 상수원 확보 등 다목적으로 건설된 소수력발전소. 이 댐이 건설되기 전에는 아우라지에 신답리와 청산면 궁평리를 이어주는 뱃나루가, 6·25 이후에는 잠수교가 있었다. 뱃나루와 잠수교는 댐으로 인해 수몰되었고, 그 댐 역시 1997년과 99년도의 수해를 견디지 못하고 현재는 철거된 상태이다.

14) 공동묘지: 풀무산 북쪽에 있는 공동묘지.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졌다.<sup>11)</sup>

15) 선봉나드리: 신답리에서 청산면 장탄2리 선봉(=풀무산)으로 건너다니던 나루. (나드리는 나루의 방언) 예전에는 여울이 얇아 무릎만 걸어 올려도 건널 수 있던 곳이었으나, 댐을 막은 뒤부터 수량이 줄었고 부근에 유원지가 형성되어 있다.

16) 낭너머: 개안 서쪽에 있는 한탄강 절벽으로, 일제 강점기 때 이 곳에서 많은 양의 금

11) 이하의 내용은 『연천 향토사료집』(연천문화원 편, 2003)에서 발췌하였다.

을 캐갔다 한다.

17) 강신타: 낭너머 동쪽, 큰 잣나무가 있던 곳으로, 6·25 전까지도 무인(巫人)들이 이 나무를 부군당으로 받들며 매년 정월대보름날에 큰 굿을 벌였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18) 개안: 강신타 남쪽에 있는 움푹 들어간 골짜기. 여름에 한탄강이 범람하면 큰 물이 이곳까지 들어온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19) 물방아골: 개안 동쪽, 예전에 물레방아가 있었던 골짜기.

- 20) 긴등: 박쥐굴 북쪽에 있는 붉은 등성이. 연천읍 고문리 토토봉의 서쪽 끝이 된다.
- 21) 섯논: 긴등 동쪽에 있는 논. 한탄강의 옆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신답리의 유래가 되는 곳이다.
- 22) 세청뒤: 쇠촌 북쪽에 있는 들판.
- 23) 마내: 쇠촌 북쪽에 있는 골짜기. 강릉 김씨의 묘가 있다.
- 24) 마내고개: 쇠촌에서 마내로 넘어가는 고개.
- 25) 성황당: 쇠촌이 남쪽에 있는 부군당으로, 6·25 전까지도 매년 정월 14일 돼지를 제물로 고사를 올렸으나, 수복 후 이 곳에 있던 큰 참나무와 소나무 고목을 베어 버려 지금은 농경지가 되어 버렸다.

**(4) 6·25 경험담**

\* 현지조사에서 마을의 6.25 경험담을 채록할 수 없었다.

**3.3.4 연천읍 통현리(通峴里)**

- 김준기(73): 통현1리 노인회장
- 오흥만(86): 마을 토박이
- 원심운(80): 수복 이후부터 거주
- 김용식(75): 마을 토박이
- 박경현(80): 마을 주민
- 이명준(79): 54년부터 거주.



## (1) 유래 및 생활

### 1) 유래

본래 연천현의 현내면 지역인데, 조선 고종 32년(1895)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현내면을 군내면(郡內面)으로 개칭하면서 통재에서 이름을 따 하나의 법정리인 통현리라 하여 군내면에 속하게 되었으나, 1945년 8·15 광복과 동시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6·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2개의 행정리, 12개 반, 3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sup>12)</sup>

통현리는 이른바 팔판서 마을로 불린다. 이곳의 강릉 김씨들이 조선 중기~후기 사이에 8명이나 판서에 올랐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마을 지명에서도 당시 강릉김씨의 위세를 짐작할 수 있는 곳들이 많다.

### 2) 마을의 생활

① 팔판서 마을: 통현리는 신답리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 한탄강과는 직접적으로 접경해 있지 않고 대신 서쪽으로 차탄천과 맞닿아 있다. 이곳은 강릉김씨 집성촌이 있던 곳으로 이른 바 팔판서 마을로 유명하다. 연천은 강릉 김씨와 인연이 깊어서 불사이군의 충정과 절개로 유명했던 고려말의 학자 일노정 김양정은 전국읍 고능리에서 생애를 마감하였고(고능리 참조), 그 후손이자 조선초의 대문호 김시습 역시 이곳에서 활동하였다. 그 후예로 통현리 출신인 김침경이 판서에 오른 것을 필두로 모두 16명이나 되는 강릉 김씨들이 판서에 오르는 영광을 누렸다. 이들은 선팔판과 후팔판으로 나뉘는데, 선팔판(先八判)은 명종에서 숙종 대에 판서에 오른 인물들로 김침경(金添慶), 김홍주(金弘柱), 김득원(金得元), 김홍권(金弘權), 김시환(金始煥) 김시현(金始鉉), 김시혁, 김시경(金時炯)을 가리키며, 후팔판(後八判)은 영·정조 대에 판서에 오른 인물들로 김상익(金尙翼), 김상성(金尙星), 김상중(金尙重), 김상집(金尙集), 김상철(金尙喆), 김노진(金魯鎭), 김화진(金華鎭), 김계락(金啓洛)을 가리킨다.<sup>13)</sup> 이 시기에 강릉 김씨는 절정을 이루었다. 종로구에 위치한 팔판동도 당시 강릉 김씨들이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이들은 대부분 통현리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벼슬살이를 하다가 죽은 후 고향에 안장되었다. 대부분의 묘들이 통현리에 있는 까닭이다.<sup>14)</sup> 현재는 다양한 성씨가 어울려 있으나 조상의 묘를 지키며 고향에서 살고 있는 강릉 김씨의 후손들이 다수 남아 있다.

12) 연천문화원 편, 『연천 향토사료집』, 연천군청, 2003.

13) 낙산(洛山) 강릉김씨 대동보- <강릉김씨 서울총친회 [www.kangkim.or.kr](http://www.kangkim.or.kr)> 참고.

14) 김상철을 비롯하여 몇몇 인물의 묘는 현재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에 자리하고 있다.



그림 15 팔판서 마을 입구.

## (2) 설화

\* 현지조사나 문헌조사에서 설화자료를 얻지 못했다.

## (3) 마을의 지명 유래

1) 건쟁이(乾貞洞, 팔판서마을): 통재 동쪽에 있던 마을. 6·25 전까지 강릉 김씨 25호가 집성을 이루고 살았던 곳으로, 조선 중기에서 후기까지 팔판서가 배출되었던 유서 깊은 곳이며, 연천 관내에서 강릉 김씨의 명성과 권세가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높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2) 통재(通峴): 통현리와 동막리, 차탄리 경계에 있는 마을이자 고개로 통현리의 유래가 되는 지역이다. 현 통현 1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 고개로 3번 국도가 지나간다. 과거에는 나 있고 6·25 전에는 주변에 전주 이씨가 많이 살았었다. 이후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부락이 아래쪽으로 내려왔다.

3) 새말(新村): 통재 북쪽에 있던 마을로 일제강점기 초에 새로 형성되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4) 고포리: 통현리 가장 남쪽에 있는 마을로, 통현2리에 해당한다. 1950년 6·25 당시 이 마을 앞 별판에 고사포부대가 주둔하며 피난민을 입주시켜 마을이 새로 형성되자 주둔 부

대장이 이 마을을 고사포부대와 인연이 있다 하여 고포리라고 명명하였다 한다. 일설에 따르면 당시 곡사포 부대장의 성이 고씨여서 고포리로 불린다고도 한다. 다른 제보에 따르면 하도 흙이 질어서 진포리라고도 불린다 한다. 군사지도에 따르면 ‘느즌모루라이’라고도 하며, 달리 만송(晩松)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그림 16 능선에서 바라본 고포리.

5) 곤장터: 강릉 김씨 묘소, 정확히는 김홍주(金弘柱)의 묘소 옆에 위치하고 있다. 예전에는 강릉 김씨 묘소를 지나칠 때 말에서 내리지 않으면 곤장을 쳤다고 한다. 당시 강릉 김씨의 위세를 알 수 있는 지명이다.

6) 김홍주 묘 및 신도비: 연천읍 통현 1리 산 5-5에 소재하고 있다. 김홍주는 강릉 김씨의 시조라는 전설이 있으며 1734년(영조10)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묘는 통현 1리 도로변의 신도비와 인접하여 나지막한 구릉 말단에 남서향하여 있다. 1742년(영조 18년)에 건립된 신도비는 귀부·비신·옥개석을 갖추고 있고 비신의 앞·뒤·왼편에 비문이 있다. 대광보국승록대부 판중추부사 서명균(徐命均)이 썼으며 조현명(趙顯命)이 비에 새겼다.



그림 17 김홍주 묘 및 신도비. 이곳 옆이 곤장터라고 한다.

7) 통현리 지석묘: 연천읍 통현리 87에 소재하고 있다. 전곡-연천 간 3번 국도 옆, 고포리 마을 입구에 있는 1기의 지석묘로 현무암 재질로 구성된 전형적인 청동기 시대의 탁자식 지석묘이다. 1983년 경기도 문화재자료 52호로 지정되었다.



그림 18 통현리 지석묘의 지도 위치.

8) 통현리 지석묘군: 연천읍 통현1리 4반 254-7에 소재하고 있다. 연천-전곡을 연결하는 3번 국도가 지나가는 통현리 마을에서 고문리 방향의 대로 옆, 이석환씨가 경영하는 수복식당의 뒤뜰에 있는 청동기 시대의 지석묘군이다. 마을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6.25가 끝나고 새로 입주할 당시만 하여도 약 6~7기 정도의 양호한 지석묘가 주변에 산재하고 있었으나 새마을 운동과 개간, 가옥의 신축 등으로 대부분 멸실 또는 매몰되었고 일부 지석묘의 개석은 전곡 한탄강 유원지의 상징표석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한다. 현재 확인되는 지석묘는 수복식당 뒤편 창고 옆에 넘어진 채 일부 노출되어 있는, 지석으로 추정되는 석재이다.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52호로 지정되어 있는 통현리 지석묘와의 거리는 남북 직선으로 약 1.3km이다.

9) 연천 고인돌 공원: 연천읍 통현리 197-2번지, 통현1리 마을회관 위쪽에 소재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통현리에는 통현리 지석묘와 지석묘군을 비롯해서 많은 선사유적이 있는데, 2000년대 초반 군청과 학자들이 집중적으로 발굴 조사한 후 이곳에 공원을 조성했다.<sup>15)</sup> 그 이전에는 고인돌이나 선사유적에 대해 대부분 별 관심이 없었으나, 공원이 조성되고 난 후 외부인들은 물론 통현리 주민들 스스로도 선사 유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한다.

15) 연천지역의 고인돌은 일제 강점기부터 조사되어 학계에 알려져 왔으며 2000년대에 들어 다른 선사 시대 유적들의 분포조사와 더불어 고인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연천군의 고인돌은 총 18군데서 발견된 29기이며 이미 파괴되어 멸실된 유적들이 있음을 감안할 때 그 수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반도의 지석묘는 축조방법과 형태에 따라 크게 북방식(탁자식), 남방식(바둑판식) 및 개석식(무지석식)으로 구분되는데, 연천군의 고인돌은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물줄기(임진강, 한탄강, 차탄천 등)를 따라 2~3기씩 군집하여 분포하고 있으며 대부분 개석식이며 전형적인 탁자식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연천군은 원상태의 보존이 어려운 고인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3년 11월에서 2004년 6월에 걸쳐 발굴 조사후 이전, 복원하여 이곳에 고인돌 공원을 조성하였으며, 이 중 2기는 발견 당시의 위치에 원형 그대로 복원하였다.



그림 19 연천 통현리 고인돌 공원의 설명문.



그림 20 공원 내에 있는 고인돌 중 하나.

10) 예조판서 김첨경 묘: 연천읍 통현1리에 소재하고 있다. 김계하는 1525(중종 20)~1583(선조 16).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대사간·병조참의·전주부윤·부제학·대사헌·호조참판·형조참판을 거쳐 예조판서에 이르렀다. 기품이 청아하고 효우(孝友)가 매우 뛰어났다고 한다. 시호는 숙간(肅簡)이다. 김첨경의 비문에 의하면 “세상에서 일컫는 낙산(洛山) 아래 동촌(東村)은 옛날부터 유명한 재상이 많이 나왔는데, 그중하나는 예조판서(禮曹判書) 김공(金公)으로 휘(諱)는 첨경(添慶)이고 자(字)는 문길(文吉)이다.”라고 하여 통현리 강릉김씨 집성촌에 위치한 산을 낙산(洛山)이라 불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계미년(癸未年, 1583년 선조 16년)에 병환이 나 향년 59세로 집에서 세상을 떠나 오봉산(五鳳山) 선영 북북서로 향하는 자리에 묻혔다”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오봉산은 달리 오봉산(五峰山)으로도 불린다.(고문리 지명유래 오봉사지 참조)

11) 가사평(袞裳坪) : 통재 남쪽, 전곡 지역까지 펼쳐져 있는 넓은 들.(전곡읍 은대리 편 참고)

12) 느즌모루: 통현2리를 부르던 이름. 행정구역상 고문리에 속한다.(고문리 느즌모루 참

조)

13) 가래나무골 : 가사평에 있는 우묵한 골짜기. 예전에 가래나무가 많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14) 수달피굴: 통재마을 서쪽, 장진천 절벽에 있는 천연굴. 6·25 전까지도 수달이 서식했던 곳이라 한다.

15) 배산(舟山, 92.7m): 통재 서쪽, 차탄리와 경계에 있는 둥근 산. 배가 물 위에 떠가는 형상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輿地圖書》에 의하면 이 산 중앙에 수 길 깊이의 우물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지금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확인이 어렵다.

16) 신촌(新村): 현 통재마을 북쪽에 있던 마을. 일제 강점 초기에 새로 형성되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17) 위리지: 새말 옆에 있는 작은 골짜기로, ‘오로지’라고도 불린다.

18) 비석거리: 새말 남쪽에 있는 골짜기. 도로 옆에 조선 중기 전옥서봉사를 역임한 김득원의 신도비가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19) 예조판서 김상성 묘: 연천읍 통현1리 건정동 산5-3번지에 소재한다. 1703년(숙종 29) ~ 1755년(영조 31).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강릉(江陵). 자는 사정(士精), 호는 도계(陶溪)·손곡(損谷). 득원(得元)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홍주(弘柱)이고, 아버지는 판서 시환(始煥)이다. 승지·대사성을 거쳐 1744년에 경상도관찰사에 임명되었다. 그 뒤 형조참판·대사헌과 병조·이조·공조의 참판을 차례로 역임하고, 1752년 병조판서가 되었으며 예조판서·좌빈객(左賓客)·판의금부사를 거쳐, 1755년 이조판서를 역임하였다. 문장에 능하였으며, 특히 소장(疏章)을 잘 지어 당대에 이름이 높았다. 시호는 문헌(文憲)이다.<sup>16)</sup>

20) 애기봉: 김상성 묘 북쪽에 있는 봉우리. 동막리와 경계가 되는 지점이다.

21) 가마봉: 건쟁이 동쪽에 있는 봉우리. 가마와 같은 형상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며, 고문리와 경계가 된다.

22) 오봉고개 (五峰峴): 건쟁이에서 고문리의 오봉으로 넘어 다니던 고개.

23) 수리봉: 건쟁이 남쪽에 있는 봉우리. 하늘에 날아다니는 수리와 연관이 없는 단순히 ‘높은 봉우리’의 뜻을 가진 곳이다.

24) 예조판서 김시환 묘: 연천읍 통현1리 건정동 산6-1에 소재하고 있다. 1661(현종 2)~1739(영조 15).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강릉(江陵)이며, 자는 회숙(晦叔), 호는 낙

16) 이하의 내용은 『연천 향토사료집』(연천문화원 편, 2003)에서 발췌하였다.

파(駱坡), 시호는 효헌(孝憲)으로 1700년(숙종 26) 춘당대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이후 정언·지평 등 여러 관직을 거쳐 판돈녕부사·좌참찬·예조판서·공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세 아들 김상규(金尙奎)·김상익(金尙翼)·김상성(金尙星)이 모두 판서를 지냈다.

25) 능안: 김시환 묘 서쪽에 있는 골짜기. 주민들은 영의정을 지낸 인물이 있어서 능안이라고 했다고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회인현감 김종윤, 예조판서 김시환 등의 강릉 김씨의 큰 묘가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26) 남봉고개: 통현리와 고문리 사이에 있는 고개.

27) 작은금장골: 통현리 지석묘 북쪽에 있는 골짜기.

28) 금장골: 통현리 지석묘 동쪽에 있는 골짜기.

29) 금장골고개: 금장골에서 고포리로 넘어가는 고개.

32) 흙방골: 고포리 북쪽에 있는 골짜기.

33) 능골: 흙방골 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강릉 김씨의 큰 묘가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4) 고돌이: 김청경 묘 남쪽에 있는 골짜기.

35) 방매: 김상익 묘 남쪽에 있는 골짜기.

#### (4) 6.25 경험담

##### 1) 할아버지가 겪은 6.25 이야기

제보자는 현재 86세로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모두 겪었다. 제보자는 15세에 결혼했는데, 이는 2살 위의 동네 처녀가 위안부로 끌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당시에는 십대 후반의 남녀가 징집·위안부 등 여러 문제들로 일찍 결혼하던 시절이었다. 결혼한 지 1년 후 해방을 맞이한 제보자는 공부를 하기 위해 한탄강을 넘어 적성으로 간다. 그런데 그 시절 통현리는 38선 이북 지역이었기 때문에 공산당의 첩자로 오인 받는 일이 벌어진다. 당시 남한에서는 여수·순천 사건<sup>17)</sup>이 벌어진 직후여서 반공정책이 강력하게 시행될 때였다.

---

17) 여수·순천 사건(麗水·順天事件):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에 소속의 일부 군인들이 일으킨 사건. 여순사건, 여순반란사건, 여수 14연대 반란사건, 여순봉기, 여순항쟁, 여순군란이라고도 부른다. 제주4·3사건과 함께 해방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좌익과 우익의 대립으로 빚어진 민족사의 비극적 사건이다. 이승만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강력한 반공국가를 구축하였다. 흔히 여순반란사건이라고 하였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란의 주체라고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하여 1995년부터는 '여수·순천사건' 또는 '여수·순천 10·19사건'이라고 사용한다.

결국 모진 고문 끝에 개성 형무소(당시에는 개성이 이남에 위치하여 남한 소재였다.)에 구금되었다가 풀려난다. 다시 서울로 왔으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살기도 힘들어서 취직을 하게 된 제보자는 서울-일산 부근에서 살던 중 전쟁을 맞이하게 된다. 북한군이 남쪽으로 진격하던 무렵(50년 여름-가을 무렵) 친척집에서 숨어 지내는데 누군가가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이 있다고 고발하는 바람에 보안대에 붙잡혀 문초를 받은 뒤, 살기 위해 의용군을 자원한다. 인민군이 된 제보자는 철원 쪽으로 이동하였으나 폭격을 당해 한탄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가 928수복 때 치안대가 된다.(이 부분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치안대 일을 보다가 1.4후퇴 때 남쪽으로 내려와 청년 방위단, 즉 국군이 된다. 경상도 경주에서 군 생활을 했으며 지리산 공비토벌에도 참여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몸이 약해져서 귀향증을 받고 고모집으로 돌아갔는데, 몸이 나으니 다시 국군으로 징집되어 전쟁에 참여한다. 그 과정에서 손가락을 크게 다쳤다고 한다. 지금도 엄지손가락이 부풀러 올라있고 손가락이 휘어져 있다.

그렇다면 아내는 어찌되었을까. 제보자는 결국 아내를 다시 만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인민군으로 국군으로 이 전투 저 전투에 참전하며 죽음이 더 가까이 있는 삶을 살다가 휴전 후 고향에 돌아와 보니 이미 아내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후였다. 혹시나 하여 이산가족 신청을 했으나 결국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 3.3.5 청산면 백의리(白蟻里)

<제보자>

이웅(89): 백의2리 노인회장. 60년 이상 거주

박상흠(73): 66년부터 거주.

정태옥(66): 백의2리 마을이장. 44-5년 거주.

윤구혁(84): 마을 토박이.

윤경보(71): 백의1리 노인회장. 마을 토박이.



## (1) 유래 및 생활

### 1) 유래

본래 양주군 청송면의 지역으로, 개미와 닮은 모양의 산이 있으므로 ‘개미산’ 또는 ‘의요리’라 하였는데, 조선 광무 10년(1906) “칙령 제49호”인 지방 구역정리에 의하여 포천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의요리와 능안의 옛 이름인 ‘백호리’에서 각각 한 자씩 따서 백의리라 하여 청산면에 편입되었으며, 1945년 8·15 광복 이후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었고, 1983년 대통령령에 의하여 포천군에서 연천군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2개의 행정리, 14개 반, 4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간혹 우리 민족을 가리키는 백의(白衣:하얀 옷)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나 와전이다.<sup>18)</sup>

### 2) 마을의 생활

① 백의리의 의병 활동: 백의리는 과거 의병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곳이다. 기록에 따르면 포천·연천 일대에서 유명했던 연기우 의병진이 1908년 10월 30일 일본군 헌병 밀정이었던 백의리 이장 김치범을 영평군으로 끌고가 처단하였고, 다음날에는 궁촌을 습격하여 촌장을 처단하였다고 한다. 한편 양주, 포천, 영평, 연천, 마전, 장단과 강원도 춘천, 철원 등지에서 활동하던 의병장 권중설과 고재식이 이곳에서 적성헌병분견대에 의해 체포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제보자(윤경보)의 숙부는 당시 백의리에서 부호였는데 몰래 의병들의 자금줄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로 보아 백의리·궁평리 일대는 과거 의병들이 활동하던 주무대

18) 연천문화원 편, 『연천 향토사료집』, 연천군청, 2003.

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백의리의 생활: 6.25 전까지 백의리에서 가장 큰 마을은 능안(백호리)이었다. 뚝박골(두암동)에 전주이씨 집성촌이 35여 가구, 개미산 부근인 의요리 지역에 십 몇 가구가 살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안을 중심으로 부근에 흩어져 살았다. 농업이 발달한 가운데 일제 강점기 하에는 사금업 채취도 호황을 누렸다. 주민의 제보에 따르면 당시 개울다리(현 백의교) 아래에는 하루에도 200-300명씩 영평천 물가에 모여 사금을 채취했다고 한다. 능안이라는 이름은 통례공 윤인함의 묘가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이 지역은 오래 동안 파평 윤씨가 집성촌을 이뤘는데, 당시에는 양반이자 지주로 생활했다고 한다.

해방 후 백의리는 38선 이북에 위치한 까닭에 공산 치하에 놓인다. 이때 파평 윤씨 가문은 공산당에 의해 전답 대부분을 몰수당했고, 지주라 하여 핍박을 받았다. 심지어 소작농들이 인민당원이 되어 윤인함 묘의 신도비에 총을 난사하기도 했다. 한편, 공산 정권은 이할오 부제를 시행했다. 말로는 25%를 거둬가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빼앗아갔다. 전답에서 소출한 농작물은 전곡읍 노동당 지부까지 가서 직접 제출했는데, 조금이라도 기한을 어기면 반동분자로 몰렸다. 기한을 맞추려고 무리하는 과정에서 큰 사고가 나기도 하였다. 당시 백의리에서 전곡읍을 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고탄교 아래에 있었던 배터거리에서 배를 타고 한탄강을 건너야 했다. 배터거리의 운송은 배를 도르래의 힘으로 움직이는 방식이었는데, 어느 해인가 큰 장마가 잦을 때 현물을 제출하기 위해 무리해서 배를 움직였다가 물살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도르래가 끊어지는 바람에 배에 타고 있던 여러 명이 그대로 죽음을 당했다고 한다.

농사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지자 많은 백의리 주민들은 장사를 했다. 경원선을 타고 내려온 오징어나 건어물, 심지어 아편 등등을 38선 이남으로 몰래 가져다가 고무신, 필기구 등 공산품으로 바꿔왔다. 그러다가 공산당이나 국군에게 적발되어 죽거나 구금, 또는 강제 이주된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6.25 전쟁 후에는 미군부대가 기지촌이 형성되어 유흥가가 번창하였다. 지금도 타지 사람들은 백의리 하면 유흥가를 먼저 떠올릴 정도라 한다. 기지촌의 형성으로 생활은 나아졌으나 전통적 생활 패턴은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 미군부대는 현재 철수하고 그 자리에 한국군 사단 사령부가 들어서 있다. 백의리의 유흥가 또한 상업지구로 변했다. 현재 능안 지역은 군부대가 있어서 사람이 거의 살지 않고, 대부분 의요리, 즉 현 백의1리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백의2리(두암동)에 거주하고 있다.

## (2) 설화

1) 여우박골 전설: 백의리 여우박골과 관련된 전설이다. 제보자(윤경보)에 따르면 여우박골에는 여우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때때로 민가에서 아이들을 잡아가서 살해하기도 했다고 한다. 어느 해 가을에 엄마가 애를 업고 마당질을 하는데 누가 아이를 등에서 쑥 뽑아갔다. 마당질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던 엄마는 뒤도 안돌아보고 할머니가 데려 갔겠거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할머니가 데려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밤새도록 횃불을 들고 찾았으나 아이는 어디에도 간 곳이 없었다. 그러다가 다음 날 아침, 여우박골 근처에서 여우가 반쯤 먹다 남긴 아이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6.25 전에 일어난 실화라고 한다.

2) 선돌바위 전설: 선돌바위는 윤인함 묘의 좌측 영평천 가에 있는 바위로 서 있는 것 같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며 달리 선바위라고도 한다. 선돌바위에는 풍수담과 효자담 두 가지 전설이 내려온다.

① 풍수 관련 전설: 제보자(윤경보)의 할머니가 직접 겪은 일이라고 한다. 통례공 윤인함의 묘를 안장한 이래, 대대로 윤씨가는 선산에 묘를 안장하였다. 어느 날(일제 강점기 때) 풍수보는 사람이 영평천을 따라 내려오며 풍수를 관찰하다가 윤인함의 묘 앞에서 계속 고개를 가웃거렸다. 할머니가 왜 그러냐고 하니 ‘이곳이 묘를 쓸 자리가 아닌데.....’ 하며 계속 의아해 하는 것이었다. 윤인함의 묘의 왼쪽 산자락이 영평천으로 내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할머니가 걱정하고 있을 때, 윤인함 묘의 산자락 좌측으로 내려가서 영평천에 있는 선돌바위를 본 풍수쟁이는 그제야 이해했다는 듯이 ‘그럼 그렇지’ 하며 감탄했다고 한다. 즉 좌청룡의 끝자락을 선돌바위가 이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만큼 선돌바위가 풍수학적으로 중요했다는 이야기이다.

② 효자 전설: 윤씨 일가는 대대로 대효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 제보자(윤구혁)의 고조부인 윤화후에 얽힌 이야기이다. 윤화후는 효자로 유명했는데, 어느 추운 겨울에 부친이 생선이 먹고 싶다고 했다. 두말 않고 영평천으로 달려온 윤화후는 추운 겨울에 얼어붙은 영평천을 살살이 뚫으며 생선을 잡기 위해 노력했으나 얼음을 깰 수가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선돌바위 근처까지 이르렀는데, 갑자기 선돌바위의 얼음이 갈라지면서 잉어가 튀어나왔다. 그 잉어를 고아서 부친께 드릴 수 있었다고 한다.

### (3) 지명 유래

1) 능안(陵內, 陵內): 푼박골 북쪽에 있던 마을. 3번 국도에서 372번 지방도로 내려가는 길목 왼쪽에 위치해 있다. 조선 현종 초에(1666년경) 죽재 윤인함의 손자이며 승정원의 승지를 지낸 윤유진이 아들 7형제 중 효성이 가장 지극했던 통덕랑 만경과 순경 두 아들에게 통례공 이하 이 곳에 있는 여러 선영의 시묘를 명하여 이주하게 하였는데, 이때를 시작으로 파평 윤씨가 정착하여 집성을 이루게 되었다 한다. 두 형제는 현재 두둑말에 정착하게 되었으나 지나가는 도둑떼의 등쌀에 서쪽 산밑인 지금의 능안으로 옮겨 왔는데, 이때의 고사에 따라 두둑말에서 언덕을 넘어 안으로 들어왔다 하여 달릴 ‘능(凌)’자 와 안 ‘내(內)’자로 땅이름이 지어졌다 하나, 세월이 흐르면서 윤씨 선대의 큰 묘가 많다하여 능내동으로 불리게 되었다 한다. 한편 이곳은 조선시대에 백호리로 기록되어 있는데, 백호리라는 지명이 어떠한 유래를 담고 있는지 전해 오지 않고 있지만 6·25 전까지도 ‘백호능안’이라는 이름이 보편적으로 쓰여왔다 한다.<sup>19)</sup>

제보에 따르면 능안은 원래 백의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었으나, 6.25 전쟁을 겪으면서 폐허가 되었고, 휴전 이후에는 군부대가 들어서서 그나마 남아있던 주민들은 현 백의1리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고 한다.

19) 연천문화원 편, 『연천 향토사료집』, 연천군청, 2003.

2) 의요리: 개미산 옆에 있는 큰 마을. 행정 구역상 궁평리에 속한다.(궁평리 지명 유래 의요동 참조.)

3) 독박골(杜岩洞): 축동 서쪽에 있는 마을로 현 백의교 부근에 위치해 있다. 골안에 있는 '독바위'에 연유하여 지어진 이름이며, 지금부터 약 350년 전에 전주 이씨가 처음 개척하여 6·25 전에는 35호가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현재 헌병대가 주둔하고 있다. 능안에서 독박골 사이는 과거 백의리에 미군부대가 주둔하면서 형성된 기지촌으로 미군부대가 철수하고 그 자리에 한국군 사단사령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상업지구가 되었다.

4) 신촌: 윤인함 묘소 너머 영평천 강변에 위치한 마을로, 6.25 이후에 새로 생겼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제보에 따르면 한탄강댐이 건설된 후에 이 일대가 관광지로 변했으나 지금은 활기가 다소 가라앉았다고 한다.

5) 윤인함 묘 및 신도비: 청산면 백의 2리 능안에 소재한다. 향토유적 제9호이다. 윤인함(尹仁涵, 1531~1597)은 조선 초기 문신으로 공조 호조 참의를 지내고 1584년(선조17)에 동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597년 형조참판으로 영위사(迎慰使)를 겸하여, 명나라 장수를 평양으로 영접하러 나갔다가 객사하였다. 사후에 이조참판, 대제학에 증직되었다. 묘는 능안의 윤씨 묘역 내에서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22 윤인함 묘와 신도비. 안내 차 동행한 제보자(윤경보)가 종친회장이다.

6) 박석고개: 백의1리와 2리 경계에 있는 고개. 지금부터 약 120년 전, 능안에 살았던 윤대일 이 사람의 통행이 많은 이 고개에 넓적한 박석을 깔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그 뒤부터 능안 마을에 나쁜 일이 자주 일어나 깔았던 돌을 모두 뜯어 버렸다 한다.



그림 23 박석고개의 지도 위치.

7) 개미산: 박석고개 서쪽에 있는 크고 작은 두 개의 둥근 산. 산의 형상이 개미와 닮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며, 주위에 있던 마을도 이 산이 개미의 허리처럼 생겼다 하여 의요동으로 불리고 있다. 또한 예전부터 이 산에 인위적인 해를 가하면 마을에 재앙이 일어난다 하여 지금도 마을에서 신성시하고 있다. 현재는 능안에 거주하던 주민들 중 상당수가 백의리 쪽에 위치한 의요동에 살고 있다.



그림 24 개미산의 머리와 허리 부분.

8) 여우박골: 박석고개 서남쪽에 있는 조그만 골짜기. 6·25 전까지도 여우가 많이 살며 새끼를 치는 굴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9) 선돌바위: 누에머리소 남쪽, 영평천에 서 있는 바위. 선바위라고도 한다. 우뚝 서 있다고 하여 붙은 이름. 풍수학적으로 윤인함 묘의 좌청룡 끝에 위치한 바위이다.(백의리 마을 전설 선돌바위 참조) 장마가 저도 영평천이 그 바위를 넘지 않는다고 하며, 반대로 물이 이 바위를 넘으면 그 해에는 홍수가 난다는 전설이 있다.



그림 25 선돌바위의 전경.

10) 나븐돌골: 개미산 남쪽에 있는 골짜기. 계곡 중간에 넓은 돌이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며 '나븐자골'로도 불리운다.

11) 버들구리: 현 백의교를 지나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에 위치한 마을. 6.25 전쟁 때 백의리 사람들이 이곳으로 피신했다고 한다.

12) 약수터: 백의리의 영평천 가에는 부스럼도 씻으면 낫는다는 약수터가 있다고 하나 현재 정확한 위치가 전해지지 않는다. 일제 강점기 때 돈을 던지면 소원을 성취한다고 하여 일본돈이 꽤 나왔다고 한다.

13) 개울다리: 현 백의교 부근에 있었던 옛날 다리. 증언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 때, 다리 밑에서 사금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200여명이 넘었다고 한다.

14) 사금굴: 사금굴: 개울다리의 아래에 위치한 절벽에 난 여러 개의 굴. 이 지역은 일제 강점기 때 사금 채취가 유행했는데, 사금굴은 그때 판 것이라 한다.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초등학교 때 영평천에서 먹을 감다가 호기심이 들어 굴에 들어가 봤는데, 매우 깊고 찬 바람이 쉴 새 없이 불어나와 무서워서 도로 나왔다고 한다.

15) 망건돌이: 돌이 망건 같다고 해서 망건돌이라 불린다.

16) 새재고개: 개미산에서 궁평리 의요동의 아랫말로 넘어 다니던 고개.<sup>20)</sup>

20) 이하의 내용은 『연천 향토사료집』(연천문화원 편, 2003)에서 발췌하였다.

- 17) 문쟁이들: 개미산과 묘옥동 사이에 있는 들.
- 18) 용수개울: 문쟁이들에서 궁평리로 흐르는 개울.
- 19) 요골모탕이: 개미산 북쪽에 있는 모탕이. 요골의 앞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으나, 지금은 37번 국도가 곧게 포장되면서 모탕이는 없어져 버렸다.
- 19) 요골: 요골모탕이 북쪽에 있는 골짜기.
- 20) 삼밭골: 요골 안에 있는 골짜기. 옛날에 삼을 키우던 밭이 있었다 한다.
- 21) 묘옥동: 개미산 북쪽에 있는 마을. '해주골'이라고도 불리는 곳이다.
- 22) 방석소나무자리: 박석고개 북쪽, 산등성이에 있던 큰 소나무 고목. 6·25 전에는 능안 마을에서 서낭당나무로 받들었으나 6·25 직후 베어 버렸다 한다.
- 23) 능안고래: 능안 마을 우묵한 곳에 있는 고래살 논.
- 24) 윗골: 능안 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
- 25) 깃대봉(160m): 능안 마을 서쪽에 있는 봉우리. 일제 강점기 초에 토지 세부측량을 위한 표준기를 꽂았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26) 괴목정: 윤인함 묘 입구에 있던 느티나무 수종의 정자나무, 이 나무는 6·25 직후 베어 없어졌다.
- 27) 큰능안: 윤인함 묘 부근에 있던 마을 이름.
- 28) 아랫고개: 큰능안에서 뒷재별로 넘어 다니던 고개.
- 29) 구석터: 윗골 북쪽에 있는 구석진 골짜기. 예전에 있던 건물지에서 지금도 기와편이 출토되는 곳이다.
- 30) 뒷재너머: 능안에서 뒷재별로 넘어 다니던 고개.
- 31) 칼봉재: 뒷재너머 서쪽에 있는 바위산으로, 칼과 같은 형상이라 한다.
- 32) 뒷재벌: 신촌 마을 부근에 있는 벌판.
- 33) 누에머리소: 뒷재벌 동쪽, 영평천에 있는 소. 누에머리산(포천군 창수면 신흥리 소재)의 앞에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34) 형제바위: 선돌바위 남쪽, 영평천에 있는 250cm 높이의 바위. 예전에 이 마을에 살던 어린 형제가 물놀이를 하던 중 이 바위 밑에 있는 깊은 소에 동생이 빠지자 형이 구하려 하였으나 둘 다 지쳐 이 곳에 빠져 죽었다 하여 이러한 이름이 지어졌다는 애달픈 사연을 간직한 바위이다.

35) 곧장뫼: 능안 마을 동쪽, 영평천으로 곧게 뻗어 나간 산.

36) 열수: 두둑말 동쪽, 영평천에 있던 여울. 한탄강댐 건설 후 수위가 높아져 여울의 옛 모습을 볼 수가 없다.

37) 두둑말: 열수 서쪽, 둔덕에 있던 마을. 지금은 육군 제 0사단 사령부가 위치하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출장하던 관원과 나그네들이 이용하던 국영여관인 원이 있던 곳이라 전해 온다.

38) 축동: 현재 0사단사령부 정문에서 남쪽의 은판이 언덕 사이에 남북으로 줄지어 있던 고목. 예전에 푹박골 마을에서 풍수지리설에 따라 재물이 흘러나가는 것을 막는 목적으로 영평천이 내려다보이는 이곳에 나무를 심어 수구막이를 했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6·25 이후 축동나무들은 모두 베어 없어지고 지금은 백의리 시가지가 들어서 있다.

39) 배회냥: 백의리 시가지 동쪽, 영평천에 펼쳐진 현무암 절벽. 영평천이 포천군 창수면 고소성리에서부터 이곳에 이르는 동안 크게 돌면서 곡류한다 하여 붙여진 낭떠러지 이름이다.

40) 은판이: 백의리 시가지 남쪽에 있는 넓은 둔덕으로, 윗은판이와 아래은판이로 나뉜다.

41) 정골: 은판이 남쪽, 영평천으로 뻗어 있는 좁은 골짜기. 예전에 솔을 주조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42) 원비냥: 배회냥 남쪽에서 포천군 창수면 주원리의 군자동까지 영평천을 따라 펼쳐져 있는 긴 벼랑.

43) 골안: 푹박골 남쪽, 종현산까지 있는 큰 골짜기 이름.

44) 성주골: 골안 입구에 있는 골짜기로 '승지골'이라고도 한다.

45) 고시래골: 승지골 옆에 있는 좁은 골짜기. 고사리가 많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전하나, 원래 '구석진 골짜기'의 뜻인 '구시래골'이 변한 이름이다. '주시'는 '구석'의 옛말인 '긷'이 변한 것이다.

46) 샘골: 도둑터 북쪽에 있는 골짜기. 샘이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인데, 이 골짜기 안에

두꺼비와 닮은 형상을 한 ‘두껍바위’가 있다.

47) 사라귀봉: 승지골 남쪽, 6부능선 지점에 있는 두 개의 큰 바위봉우리.

48) 뚝바위: 사라귀봉 동쪽 산록에 있는 큰 바위.

49) 도독터: 뚝바위 남쪽에 있는 넓은 공지. 예전에 도독이 들끓었던 곳이라 한다.

50) 수산양자락: 도독터 옆에 있는 집터. 골안에서 가장 양지가 바른 곳이 되어 눈이 내려도 빨리 녹는다 한다.

51) 어두니골: 수산양자락 남쪽에 있는 골짜기. 6·25 전까지만 하여도 원시림이 우거져 있었고 음지가 되어 골짜기 안이 항상 어둡고 음침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작은어두니, 큰어두니로 나뉜다.

52) 마당바위: 어두니골 동쪽, 골안개울에 있는 넓은 바위.

53) 신야골: 큰어두니 동쪽에 있는 골짜기.

54) 넓은마당: 신야골 남쪽에 있는 넓은 평지. 6·25 전까지도 화전민이 살았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산림으로 우거져 있다.

55) 절터: 넓은 마당에 있는 절터. 6·25 전까지 밭으로 경작되었던 유지에서 소량의 와편이 보였다 하나, 지금은 숲이 우거져 있어 확인이 어려운 곳이 되었다.

56) 새알번지: 넓은마당 남쪽에 있는 넓은 골짜기. 골안의 막바지가 된다.

#### (4) 6.25 경험담

백익리에서 집성촌을 이뤘던 윤씨 일가는 6.25 이전까지 부호이자 지주였으나 해방 후 공산 치하에 놓이면서 갖은 핍박을 받았고, 전쟁 중에 가족을 잃었으며 고된 피난길로 피폐한 삶을 살았다. 제보자는 윤구혁(84)와 윤경보(71)이다. 먼저 윤구혁 할아버지의 경험담을 소개한다.

##### 1) 할아버지의 6.25 전쟁 이야기

제보자는 15살 때 해방하여 인공치하를 생생하게 겪은 인물이다. 인공 정부가 들어서면서 윤씨 일가는 지주라 하여 가장 먼저 몰수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제보자는 어른들을 따라 장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전쟁이 나던 무렵, 제보자는 인근 마을의 청년들과 함께 인민군에게 붙잡혀 전곡의 어느 곳에 구금되었으나 밤에 몰래 도망친다. 당시 도망치지 않았던 젊은이들은 대부분 인민군이 되거나 이북으로 끌려가서 광산 일을 했다고 한다. 실제로

제보자와 비슷한 연배였던 궁평리의 이규찬 할아버지는 인민군이 되어 전장에 참전하게 되었다.(궁평리 마을의 6.25 경험담 참조.) 충청도까지 피신한 제보자는 그곳에서 계속 피난 생활을 하다가 6.25가 끝나고 5-6년 후에 백의리로 돌아오게 된다.

## 2) 할아버지의 6.25 전쟁 이야기

또 다른 제보자인 윤경보(71) 할아버지의 6.25 경험담은 더욱 기구하다. 해방동이인 제보자는 6세 되던 무렵 전쟁을 맞이한다. 부친은 인공 치하에서 밀무역을 하며 가족을 꾸렸으나 전쟁이 벌어질 무렵 붙잡혀 죽임을 당했다. 당시 부친의 나이 40, 모친은 39세였다. 또한 9살 많은 큰 형은 함께 피난살이를 하다가 인민군에게 발각된 후 현재까지 생사불명이며, 제보자의 동생은 서너 살 무렵 피난길에서 목숨을 잃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제보자는 양주 남면 쪽으로 피난을 갔다가 얼마 되지 않아 동두천을 거쳐 백의리로 돌아온다. 오는 도중에 아이를 업은 채로 불타 죽은 여인이며, 수많은 시체를 보았다고 한다. 그 때 그의 나이가 7세였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족은 걸음을 재촉했는데, 제보자는 7세의 어린 나이에 며칠을 큰형의 보폭에 맞춰 걸음을 옮겨야 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왔을 때는 다리가 텅텅 불어서 십여 일을 움직이지 못했다고 한다. 그렇게 고향에 돌아온 후에도 가족은 인민군과 국군을 피해 산속으로 피난살이를 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큰형의 실종과 동생의 죽음이라는 큰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 3.3.6 궁평리(宮坪里)

<제보자>

김선기(63): 궁평2리 전 마을이장. 토박이

석종걸(77): 궁평2리 노인회장.

이규찬(86): 마을 토박이

어관문(71): 연천향교 사무장.

김정호(58): 궁평1리 마을이장

이일섭(72): 궁평1리 노인회장

최호근(86): 마을 토박이



## (1) 유래 및 생활

### 1) 유래

본래 양주군 청송면의 지역으로, 인조와 귀인 조씨 사이의 둘째 아들인 낙선군 이 속의 묘와 재궁이 있으므로 궁촌리라 하였다. 광무 10년(1906) “칙령 제 49호”인 지방 구역정리에 의해 포천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평촌리를 병합하여 궁평리의 ‘宮’자와 평촌리의 ‘坪’자를 따서 궁평리라 개칭하여 청산면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 8·15 광복 직후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었고 1983년 대통령령에 의하여 포천군에서 연천군으로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2개의 행정리, 15개 반, 2개의 자연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sup>21)</sup>

궁평리는 과거 청산면의 면소재지가 있던 곳이다. 그런데 장탄리, 백의리와 함께 38선 이북에 위치한 궁평리가 1945년 해방과 더불어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되면서 청산면소재지는 38선 이남 지역인 삼정리로 바뀌었다. 이런 이유로 마을 사람들 중에는 지금도 궁평리를 청산리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때부터 궁평리로 불렸다는 것으로 보아 청산리는 청산면소재지가 있다는 사실로부터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제보에 따르면 청산리의 유래는 궁평리 지역에 소나무가 많아 사시사철 푸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 궁평리를 청송 마을이라고도 부르는데 청산과 청송을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 2) 마을의 생활

① 한탄강과 마을의 삶: 한탄강은 아우라지 벚개용암에서 서쪽으로 흐르다가 다시 북쪽으

21) 연천문화원 편, 『연천 향토사료집』, 연천군청, 2003.

로 방향을 튼다. 궁평리는 서쪽으로 흐는 한탄강의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오른쪽은 백의리, 왼쪽은 장탄리, 아래는 대전리와 맞닿아 있다. 이곳은 낙선군 이숙의 묘가 있다고 하여 궁평리라 불렀는데, 평야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예부터 농업을 주로 해왔다.

북쪽 전체가 한탄강인 까닭에 한탄강은 궁평리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다. 임진강에서 출발한 새우젓 배는 전곡을 지나 아우라지 베개용암까지 들어와서 장탄리·궁평리·신답리·고문리 마을과 교역을 했다. 교역을 위해 때때로 임진강으로 넘어가기도 하였다. 집을 지을 용도의 큰 나무들(12자 길이)을 베어서 불탄소 아래에 모아놓은 후 뗏목 형태로 만들어 물을 타고 도감포까지 내려가서 팔았으며, 심지어 임진강을 지나 한강까지 들어가기도 했다고 한다. 일이 고되기 때문에 힘이 좋아야 할 수 있는 일이었고 한 달이 걸릴 정도의 대장정이었으나 대신 수입이 좋았다고 한다. 증언에 따르면 제보자의 부친은 힘이 장사여서 뗏목 장사를 하는 몇 안 되는 궁평리 주민이었다고 한다.

한편, 대부분의 연천 지역이 그렇듯, 궁평리 역시 7.80년 대 수도 시설이 놓이기 전까지 물이 귀한 곳이었다. 그런 궁평리 사람들에게 한탄강은 식수는 물론 빨래, 김장, 목욕 등 물과 관련된 모든 삶이 배어 있는 곳이다. 제보자들은 대부분 한탄강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배를 타고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나 연천읍 신답리를 오갔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궁신교가 놓여 신답리와의 통행이 매우 편리해졌는데, 바로 그 궁신교 부근이 돌을 쌓아 물고기를 잡고 빨래를 하며 식수를 깃던 곳이라고 한다.

물고기는 한탄강 어디에도 잡혔다. 궁평리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따로 낚시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곳이 바로 낚시터였다. 낚시는 그나마 운치있는 것이었고, 떡을 감다 배가 고프거나 별미가 생각날 때면 돌을 가뉘놓기만 해도 물고기들이 썰었다고 한다. 장어, 잉어, 쏘가리 불모지, 참게, 자라 등 없는 고기가 없었다.

## ② 청산면 궁평리 장승제

다음은 청산면 궁평리에서 행해지는 장승제의 내용이다.

ㄱ) 제의 유래 및 일시: 이 마을에서는 마을 공동 제의를 장승제·장승고사라고 하며, 매년 음력 정월 13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제를 올리고 있다. 이곳 장승제는 1994년부터 행해졌는데, 당시 노인회장이었던 이택중 씨가 이 장승을 구입해 마을 어귀에 해당하는 현재의 장승고개에 세우고 축문을 지어 제를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장승을 세우고 제를 올리게 된 것은 마을에 굶은일과 화재가 자주 일어나자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 장승제를 올리고 난 후부터는 화재나 굶은 일이 거짓말처럼 그쳐 그 후로도 해마다 제를 지내고 있다.

또 장승고개 너머에 위치한 풀무산 기슭 ‘자살바위’라 불리는 바위 아래에서 농사의 풍년을 빌거나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기우제를 지냈다. 이러한 기우제는 1980년경 수리조합의 등장으로 그 맥이 끊어졌으며, 옛 모습을 지키기 위해 간혹 제사를 지내나 실질적으로는 전승되지는 않는다.

ㄴ) 제당 위치 및 형태: 옛날부터 신답리와 장탄리로 가던 길목에 나지막한 언덕이 있었고 그 곳에 장승이 있어서 마을에서는 이 곳을 ‘장승고개’라고 하였다. 지금은 이 언덕 건너편에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고개를 밀어 평지를 만들었으며, 이곳에 새 장승을 세웠다. 현재의 장승은 1994년 당시 노인회장이었던 이택중 씨가 경기도 일원 어딘가에서 장승을 구입

해 현재의 장승고개에 새로 세운 것이다. 당은 돌로 쌓은 화단(높이 0.7m, 세로 2m, 가로 10m 정도) 형태의 둔덕에 좌우로 향나무를 심고 잔디를 깎 다음 그 위에 2기의 목장승을 세운 형태이다. 장승을 보면서 좌측에 천하대장군 우측에 지하여장군이 서 있다.

ㄷ) 제의 준비: 제관의 선출은 마을 노인회에서 맡는다. 제를 2~3일 앞둔 정월 초에 마을 회관에서 '가정에 이상이 없는 분', '몸이 깨끗한 어른'을 가려 제관을 정한다. 제관으로 선정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양하지 않으며 그 날부터 몸을 삼가고 가급적 출타도 하지 않는다. 제물 구입은 마을 청송회에서 한다. 제물은 보통 그 해 선거로 선출된 청송회 회장 집에서 장만하며 연천장을 보지 않고 마을 안에 있는 가게에서 구입한다. 제기는 특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

주로 유사집에서 사용하는 그릇을 쓰고 혹 부족하면 이웃에 협조를 얻는다. 음식 장만은 보통 장승제에 올리는 제물만 장만하지 않고 음복 음식을 넉넉하게 장만하는데 이는 장승제가 끝나는 대로 마을회관에서 경로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제물은 넓은 교자상에 차리는데 일반 기제사와 비슷하나, 붉은 팔·쌀·복어·실 등이 첨가되는 특징이 있다.

ㄹ) 제의 진행: 제장에 미리 도착한 풍물패들은 부정굿을 치며 흥을 돋운다. 이 때쯤이면 제물 차림이 끝난다. 제관이 먼저 분향하고 재배한 후 술을 한 잔 올린다. 이어서 축관이 축문을 읽고 나면 다시 술을 한 잔 올리고 재배한다. 제관이 다시 술을 한 잔 올리고 다 함께 재배한다. 축문은 태우지 않고 보관한다. 합동 재배 후에는 풍물패들이 풍악을 울리며 한바탕 노는 뒷풀이로 이어진다. 제관이 제물을 조금씩 떼어 '고시네'를 하고 나면 장승제에 참가한 사람들은 '복주'라 하여 가볍게 한 잔씩 술을 나누어 마신다. 가볍게 한 잔씩 하는 것은 바로 이어지는 경로잔치 때문이다. 경로잔치는 이곳에서 40여m 떨어진 마을 복지관에서 열린다.

ㄹ) 제의 마무리: 결산은 청송회 임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의 비용은 주로 이곳 출신들의 기업가나 재산가들의 후원금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 마을 장승제는 마을 노인회, 부녀회, 청송회 등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자치조직들이 모두 참여하여 추진하는 마을 대동잔치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장승제가 끝나면 청산면에서 면장까지 참석하는 큰 경로잔치가 이어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참여한다. 마을의 개신교도들도 절은 하지 않지만 장승제에 참여하며 제의 과정과 제의가 끝난 후 벌어지는 경로잔치에는 동참한다.<sup>22)</sup>

## (2) 설화

궁평리에서 전해오는 설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23)</sup>

22) 연천군지편찬위원회 편, 『연천군지』 상, 연천군청, 2001, 759-710쪽. 답사 과정에서도 해당 내용이 제보된 바 있으나, 구연 내용이 매우 간략하고, 출처 및 경로가 불분명하여, 관련 내용이 보다 온전하고 객관적 근거를 갖춘 문헌 기록을 인용하였다.

23) 이하의 내용은 연천군지편찬위원회 편, 「연천의 설화」, 『연천군지』 상, 연천군청, 2001. 참조. 답사 과정에서도 해당 내용이 제보된 바 있으나, 구연 내용이 매우 간략하고, 출처 및 경로가 불분명하여, 관련 내용이 보다 온전하고 객관적 근거를 갖춘 문헌 기록을 인용하였다.

1) 되네미고개 전설: 되네미고개는 청산면 궁평리에서 동두천을 향하여 넘어가는 고개로, 주민들은 ‘청산고개’라고도 부른다. 촌로들의 말에 의하면, 임진왜란 당시 왜장 가토오 기요마사가 조선에 쳐들어 올 때, 그의 누이가 “조선에 가서는 ‘송(松)’자를 조심하여 작전에 임하라.”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그는 항시 이 말을 기억하고 ‘송’자가 들어있는 마을이나 산 같은 데에서는 진을 치지 않았다고 한다. 병사들을 이끌고 청산고개까지 온 가토오 기요마사가 “이 아랫마을 이름이 무엇이나?”고 묻자, “청송면(靑松面)이다.”라고 대답하니, 소나무를 연상한 가토오는 즉시 철군하여 되돌아갔다고 한다. 그래서 ‘되넘어간 고개’라는 뜻으로 불리게 되었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말소리가 바뀌어 오늘날처럼 ‘되네미고개’로 되었다. 지금의 청산면은 과거의 청송면과 산내면이 병합되어 개칭된 이름이기 때문에 임진왜란 당시에는 청송면이었다. 또한, 가토오는 명의 이여송 장군의 이름에 들어 있는 ‘송’자를 몹시 꺼려했으므로, 임진왜란 때에는 ‘송’자가 들어있는 이름의 마을은 왜병들의 피해가 없는 피난처의 역할을 하였다고도 전한다. 『정감록』의 피난처는, 임진왜란 때는 ‘송하지’, 병자호란 때는 ‘가하지’, 현재에는 ‘도하지’라는 예언이 있어서 미신같이 일반인에게 신앙된 이야기도 있다.

2) 소경고개: 소경고개는 청산면 궁평리의 매골과 대전리의 연마골 사이에 있는 작은 고개를 가리킨다. 고려 말 조선 초에 조선 건국의 숨은 공신인 무학대사가 어떤 사대부가의 묘 자리를 잡아 주려고 지금의 연천읍 고문리를 지나게 되었다. 그런데 멀리 정남향에 있는 이 곳의 자세를 보니, 5대 정승과 5대 천석꾼이 나올 명국이라서, 한탄강을 건너 이곳에 이르러 지남철을 놓고 좌향을 찾아보았다. 끝내 명혈을 찾아내지 못한 무학대사는 스스로의 무능력을 탄식하여 이르기를, “소경이 따로 있나, 나야말로 참으로 소경이로다!”라고 자기를 눈 뜬 장님으로 자책하며 이 고개를 넘어갔다고 하여, ‘소경고개’라고 불렀다고 한다.

### (3) 지명 유래

1) 궁말(宮村): 8.15 해방전까지 낙선군의 제사를 받들던 재궁이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낙선군 묘 아래에 있는 마을. 현재 마을에서 따로 제사를 지내지는 않는다고 한다. 한편, 공산 치하 때 낙선군의 사당을 헐어 양촌말에 면사무소를 세웠으나 6.25로 소실되었다 한다.

2) 양촌(陽村): 하루종일 해가 잘 들어 지어진 이름으로 황새봉 아래 사거리 남쪽의 마을. 6.25 전에는 윤씨·김씨·이씨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주택 밀집지역으로 변해 있다.

3) 평촌(坪村): 양촌 남쪽 벌판에 있는 마을. 양옛 양주군 청송면의 평촌리 지역이 되며, 6.25 전에는 파평 윤씨들이 살았던 마을이다.

4) 의요동(蟻腰洞): 백의리 개미산 옆의 큰 마을이라 하여 생긴 이름으로 평촌 남쪽에 있던 마을. 백의리와 경계가 된다. 6.25 전에는 전주 최씨가 12대를 20여호, 함종 어씨가 12대를 30여호 살았던 마을이었으나, 지금은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다.

- 5) 돌곶내: 양촌 북쪽에 있는 마을. 백의리에서 내려오는 용수개울의 건너에 있다는 의미의 '돌건너'가 '돌곶내'로 바뀐 것이다. 6·25 전에는 전주 이 씨가 살던 마을이었다.
- 6) 건너말: 배나무골 마을의 건너에 위치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의요동 안에 있던 마을.
- 7) 아랫말: 의요동에서 가장 아래에 있던 마을.
- 8) 중간말: 양촌과 아우라지 중간의 뒷골 입구에 있는 마을.
- 9) 호조골: 되네미고개 북쪽 골짜기의 작은 마을.
- 10) 아우라지 나루터: 아우라지 부근에 있었던 나루터. 제보자의 정보가 정확하지는 않으나 마내배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신답리 지명 유래 마내배터 참조)
- 11) 빨래터: 궁신교 부근의 빨래터. 궁평리 주민들이 빨래나 김장 등을 하던 곳.



그림 27 빨래터

- 12) 약수터(약수물): 빨래터 바로 옆에 있는 우물. 지하수가 올라오던 곳으로 상수도관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물을 끌어다가 식수로 활용했다. 현재는 농업용수로 쓰인다. 제보에 따르면 선봉바위(장탄리 지명유래 선봉바위 참조)의 선녀가 이곳 약수터의 물을 마셨다는 전설이 있다고 한다.
- 13) 살목: 빨래터 부근의 강줄기. 물이 얇고 목이 좁아 물고기를 잡기 쉬운 곳으로 암소한 마리 값하고도 바꾸지 않는다는 천렵터(천렵: 냇물에서 고기를 잡으며 즐기는 놀이)였다.
- 14) 봉화재(183m): 한자골 북쪽에 있는 봉우리. 옛날에 봉화를 올렸던 곳으로 전해 내려오나, 현재 아무런 유구도 남아 있지 않다. 다른 제보에 따르면 이곳에 성황당이 있어서 치성을 드리기도 했다고 한다.

15) 소경고개: 궁평리 매골과 대전리 연미골 사이에 있는 고개. 조선 초기 무학대사가 명당자리를 찾으려다 못 찾고 자신을 자책하며 넘었다는 고개(궁평리 마을 전설 소경고개 참조) 예전에는 이 고갯마루에 큰 돌 서낭당이 있었다.

16) 황새봉: 궁평초등학교 동쪽에 있는 봉우리. 전설에 의하면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곳에 있던 선대 묘를 옮기기 위해 땅을 파니 꼭 안에서 큰 황새가 날아갔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는 설과, 이 산의 형태가 황새처럼 생겼다 하여 황새봉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두 가지 설이 전해 내려온다. 6·25 전에는 궁말 주민들이 이 산 정상에서 산제를 올렸다 한다.

17) 아우라지 배개용암: 한탄강과 영평천이 합류되는 곳에 있는 강 이름.(신답리 지명유래 아우라지 배개용암 참조)

18) 부군터: 돌곶내 마을에 있는 터. 6·25 전까지도 세 그루의 참나무가 있어 마을에서 부군나무로 받들며 매년 제사를 올렸던 곳이었으나, 6·25로 없어져 지금은 아무런 흔적도 남아 있지 않다. 이곳에도 제사를 행했으나 한동안 안했는데, 그 때 마을에서 아이들이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잦았다고 한다. 다시 거행했으나 현재는 다시 안함.

19) 장승거리: 돌곶내와 중간말 사이에 있는 조그만 언덕 길. 장탄리에 솟아 있는 풀무산이 중간말을 내려다 보며 억누르는 형상이 되어 이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자주 일어나자 그 액막이로 아우라지나루로 가는 길옆에 장승을 세웠다 하여 붙여진 고개 이름이다. 이곳에서 있던 장승은 6·25의 와중에 파괴되어 없어졌던 것을 1994년 2월 22일 궁평리 주민들의 발의에 의해 2기의 목장승이 다시 세워졌다. 이곳에서는 지금도 음력 정월 13일 어름에 장승제가 행해진다. 제보에 따르면 장승의 관점에서 장탄리의 선봉바위(장탄리 지명유래 선봉바위 참조)가 왼쪽 편에 있다 하여 선봉바위를 좌상바위라고도 불렀다 한다.

20) 되네미고개: 궁평리와 대전리 사이에 있는 고개로, 현재 322번 지방도가 지나간다. 전설에 의하면 임진왜란 때 제2진으로 상륙한 왜장 가토오 기요마사가 서울을 거쳐 함경도로 북진하던 중 이 고개에 이르러 휴식을 취하면서 부하들에게 이 고개의 이름을 묻자 청송 땅이라 대답하니 본국에서 자기 누이가 “조선에 가거든 소나무 송(松)자를 주의하라!”는 말이 생각나서 군사를 거두어 이 고개를 ‘되 넘어갔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궁평리 마을 설화 되네미고개 참조). 대전리 마을에서는 ‘막은데미고개’라고도 부른다.

21) 낙선군 이숙 묘: 청산면 궁평리 428-3에 소재하고 있다. 향토유적 제1호이며, 궁평리 지명의 어원이 된 묘이다. 낙선군 이숙(1641~1695)은 인조의 막내로 인조와 귀인 조씨 사이에서 제2자로 출생하였다. 휘는 숙, 자는 자숙으로 1648년(인조26) 낙선군에 봉하여졌고, 시호는 정헌이다. 1651년(효종 2) 김자점(金自點)의 역모와 관련하여 생모 귀인 조씨가 사사(賜死)된 후, 관직이 삭탈된 채 강화도로 귀양을 갔다가 1656년 석방, 1659년 관직이 회복되었다. 1673년(현종 14) 행중추부판사(行中樞府判事)가 되었다. 현명하고 행실이 좋아 숙종 때는 더욱 우대받았다.

묘는 앞으로 마을을 바라보고 좌(북)로 궁평초등학교, 뒤로 나지막한 구릉이 있는 표고

20m가량의 구릉 중턱에 동향하여 있다. 동원군부인 김씨와 합장묘로서 원형의 봉분은 용미와 활개를 갖추고 있다.



그림 28 낙선군 묘

22) 호조골: 되네미고개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작은 마을이 있다.

23) 장시미골: 평촌 서쪽에 있는 골짜기. 현재 군부대가 있다.<sup>24)</sup>

24) 한자골: 궁말 서쪽에 있는 크다는 뜻의 ‘한’과 ‘산(山)’, ‘성(成)’, ‘고개(峴)’의 뜻인 ‘재’의 옛말 ‘자’에 골짜기가 합하여 이루어진 이름으로, 예전에 장탄리 장수개 마을로 넘어 다니던 ‘큰 고개가 있는 골짜기’ 또는 ‘큰 산골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25) 찬우물고개: 궁평초등학교에서 찬우물로 넘어 다니던 고개. 정상에 서낭당이 있었다.

26) 고막은고개: 궁말에서 돌곶내로 넘어 다니던 고개. 낙선군 묘의 좌청룡이 되는 산부리가 잘록하게 생겨 지기(地氣)가 허하다 하여 인위적으로 이 곳을 흙으로 쌓아 높이 막았다 하여 붙여진 고개 이름이다.

27) 찬우물: 양촌 서쪽에 있는 골짜기. 찬 샘이 있어 지어진 골짜기 이름이다. 대전리 주민의 제보에 따르면 달리 왕자우물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궁평리는 낙선군 이숙의 묘가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다른 지역 주민이 생각해 낸 지명으로 보인다.

28) 비독소: 한탄강댐 서쪽에 있는 소.

29) 도리소: 아우라지에 있는 소. 한탄강과 영평천이 합류하며 물이 크게 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30) 뒷골: 아우라지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중간말의 뒤에 있다 하여 불리는 이름이다.

24) 이하의 내용은 『연천 향토사료집』(연천문화원 편, 2003)에서 발췌하였다.

- 31) 가운데들: 돌곶내 동쪽에 있는 들.
- 32) 장파골: 가운데들 동쪽에 있는 골짜기. 고려시대 때에 장이 섰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골짜기 이름이라 한다.
- 32) 용수개울: 백의리 박석고개 삼거리에서 내려오는 개울.
- 33) 붓들: 양촌 동쪽에 있는 들판. 의요동에서 내려오는 개울에 보를 막아 그 물로 관개하는 논이 있는 벌판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34) 새재고개: 궁평리 의요동과 백의리 나븐돌골의 사이에 있다 하여 '새(間)' 와 재(峴)'가 합하여 '새재'가 되었다가 다시 같은 뜻의 '고개'가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고개 이름이다.
- 35) 피아골: 새재고개 남쪽에 있는 골짜기. '피()'가 많이 자생하던 골짜기'라는 뜻의 '피밭골'이 변한 이름이다. (왕징면 동중리 "피아골" 참고)
- 36) 배나무골: 의요동의 세 골짜기에서 가운데 골짜기. 옛날에 배나무가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하며, 6.25 전에는 이 골짜기 입구에 의요동에서 가장 큰 마을이 있었던 곳이다.
- 37) 무쇠말등: 의요동 남쪽, 종현산에 딸린 산등. 일제 강점기 때에 이 산의 험을 끊기 위해 무쇠말뚝을 박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 38) 매골: 건너말 남쪽에 있는 골짜기. '산(山)'의 뜻인 '뫼'가 음이 변하여 '매'로 불리고 있는 곳으로, 단순히 '산골짜기'라는 의미를 지닌 이름이다.
- 39) 깃대봉(157m): 소경고개 서쪽에 있는 봉우리. 일제 강점기 때 세부측량을 하기 위해 이 봉우리 정상에 표준기를 꽂았다 하여 지어진 봉우리 이름이다.
- 40) 산안골: 깃대봉 북쪽에 딸린 골짜기. '소란골'로도 불리고 있으나, 단순히 '산(山) + 안(內) + 골(谷)'이 합쳐져 이루어진 산골짜기 이름이다.

#### (4) 6.25 경험담

연천 지역은 38선을 경계로 이남과 이북이 갈라진 곳이 많고, 이후 6.25 전쟁의 격전지 중 하나였다.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항상 보던 아랫마을과 윗마을 사람들이 어느 날 졸지에 38선에 막혀 왕래할 수 없다가 전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 셈이다. 궁평1리의 제보자 최호근 할아버지(86)와 궁평2리의 제보자 이규찬 할아버지(86)는 이러한 이념의 분단과 민족 갈등을 생생히 체험한 분들이다.

##### 1) 할아버지의 6.25 전쟁 이야기

당시 대전리를 기준으로 이남과 이북이 갈렸는데, 하필, 제보자가 살고 있던 곳은 대전리

바로 위여서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된다. 당시 10대 후반이었던 제보자는 38선을 넘나들며 장사를 많이 했다고 한다. 경원선을 따라 원산으로부터 경원선을 따라 내려온 오징어나 복어 등 건어물을 가져다가 몰래 38선 이남에 위치한 대전리 순옥골로 내려가서 전구나 고무신, 고무, 설탕 등 생필품·공산품과 바꿔왔다. 말이 이북과 이남을 넘나들던 것이 제보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 동네를 왔다갔다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남과 북으로 갈렸을 뿐 한 동네 주민들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정보원이 되어 뒷배를 봐주며 물물교환을 하고 교환이 끝나면 술을 마시며 놀다가 도로 이북으로 왔다고 한다. 전쟁이 뭔지도 몰랐다. 그날도 물물교환을 하고 헤어졌는데 별안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새벽에 광광하고 보니까 전쟁이 난 것이었다. 당시 제보자의 나이 20살이었다. 전쟁 초기에는 북한이 남한으로 쳐들어 갔기 때문에 전쟁을 피부로 느끼지 못했고, 서울 수복 이후에는 국군과 인민군의 진격과 후퇴가 너무나 빨라 미처 피할 틈이 없어 고향에서 지냈다. 그러다가 1.4 후퇴 이후 인민군에게 잡혀 강제로 징집되었다가 간신히 탈출하고 조카와 함께 광나루를 건너 간신히 용인까지 피난을 했다가 전쟁 후에 고향에 돌아왔다고 한다.

## 2) 할아버지의 6.25 전쟁 이야기

이규찬 할아버지(86)의 사정은 더 기구해서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제보자는 7남매 중 넷째이다. 알아주는 장사였던 부친은 마을에서 몇 안 되는 뗏목 장사를 하였고(궁평리 마을 생활 참조)였고 큰 형은 일제강점기 당시 군청에서 근무했다. 큰 어려움 없이 살던 제보자의 집안에 화가 닥친 것은 일제 강점기 말부터였다.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강제 징집령이 내려왔고 여기에 해당되었던 둘째 형은 군대에 끌려가는 것을 거부하다가 술을 먹고 아우라지 배개용암에서 자살로 생애를 마감한다. 당시 제보자의 나이 15세였다고 한다.(대략 44년 쯤이라고 한다.)

둘째 형이 죽은 후 큰 형은 회의감을 느끼고 군청에서 퇴사했는데(제보자의 기억으로는 퇴사한 것인지 퇴사당한 것인지 확실치 않다고 한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강제 징용의 대상이 된다. 징용을 피해 서울로 간 큰 형은 용산 기지창에 취직했다가 해방 즈음에 고향에 돌아왔지만, 당시 궁평리는 공산 치하였고, 큰 형은 일제 강점기에 군청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정치범이 되어 10년 형을 선고받는다. 그때가 대략 47년이었다고 제보자는 기억한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형량이 감소된다는 말을 들은 부친은 가산을 팔아 변호사를 고용한다. 모두 5차례에 걸쳐 재판이 이루어진 결과 큰형은 10년→3년→5년의 형기를 받고 함경북도 회령의 형무소에 구금된다. 전쟁은 그로부터 3년 후에 발발했고, 회령 형무소로 간 큰 형은 지금까지도 소식을 알 수 없다.

셋째 형의 사정도 딱하다. 큰 형이 용산으로 피신한 사이 장제 징용장은 셋째 형을 향했다. 셋째 형도 징용을 피하기 위해 학교에 들어갔다가 바로 결혼한다. 그때 즈음 해방을 맞이한다. 기쁨도 잠시, 이번에는 인민군의 강제 징집장이 날아온다. 당시에는 군대에 가거나 군 관련 공장에 취직하거나 둘 중 하나였는데, 전쟁이 싫었던 셋째 형은 군수공장 근로자로 지원한다. 이후 전쟁이 발발했고 셋째 형은 공장에서 근무하던 도중 미군의 공습에 미처 피하지도 못하고 공장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공산 치하 셋째 형이 피했던 강제 징집 명령은 18.9세의 나이가 된 제보자가 받게 되었다. 어쩔 수없이 인민군이 되자마자 전쟁이 시작되었다. 제보자는 속초 지역으로 이동하여 경비소대의 소대장으로 근무한다. 그 즈음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여 북한군이 후퇴를 하게 된다. 제보자는 부대의 명령에 따라 집결하기 위해 이천으로 향한다. 그런데 당시에는 정

말 국가나 이념에 대한 신념하에 전쟁에 참여한 사람보다는 살기 위해 어쩔 수없이 전장에 나선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인민군이 오면 공산당 만세, 국군이 오면 대한민국 만세 하던 시절이었다. 제보자의 부대 역시 그렇게 인민군이 된 사람들이 많았던 듯하다. 이천으로 향하는 도중 어느 날 저녁에 제보자는 상관의 전화를 받는데, 상관 왈 “난 모르니까 집결지로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결국 상관 역시 나이롱 인민군이었던 셈이다. 그날 저녁 소대원들을 설득해서 모두 데리고 연천 궁평리로 돌아온다.

제보자가 고향으로 돌아온 시기는 대략 50년 10월 무렵이었다. 약 5-6개월을 인민군으로 보낸 셈이다. 추수를 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이번에는 대한민국으로 수복된 영토에서 치안대를 맡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을 잡으러 왔다. 보니까 모두 아는 한 동네 사람들로 치안대원 중에는 자신의 친한 동창도 있었다. 그래도 보는 눈이 있어 제보자를 한참 두드려 패고 전곡읍의 한 구치소에 구금시켰다고 한다. 며칠 뒤 부친이 구치소로 찾아와서 치안대장 이하 대원들을 호통치며 내 아들 건드리면 가만 안 놔둔다고 엄포를 놓고 갔다. 한 동네 사람들이 인민군도 하고 치안대도 했지만, 그래도 제일 목소리 쉰 것은 역시 마을 어른이었던 것이다.

50년 12월 경 중공군의 개입으로 국군이 후퇴하던 무렵, 제보자는 동네 주민이었던 치안대장에게 자신이 인민군을 잘 아니 치안대원이 되겠다고 자청한다. 받아들여져서 제보자 이하 함께 연천으로 왔던 소대원 40여 명이 모두 치안대원이 되었다. 촌극 같지만 당시에는 가능했던 얘기다. 그렇게 인민군에서 치안대원이 된 지 일주일 후에 국군에 정식으로 후퇴명령이 내려왔다. 초성리로 가서 6사단과 합류한 제보자는 이번에는 6사단 휘하 군속 근무를 하게 된다.<sup>25)</sup> 그리고 나서 며칠 후 본격적으로 1.4 후퇴가 시작된다. 덕정리로 후퇴했다가(12월 31일) 이틀 후 창동으로 간 제보자는 그곳에서 이틀 머무른 후 다시 경기도 광주로 이동한다. 그리고 결국 충북 진천까지 내려가서 방어진지를 구축한다. 51년 2월 초, 국군과 연합군이 평택에서 중공군을 대파하고 북으로 진격하자 제보자의 부대에도 진격명령이 내려왔다. 그런데 그 즈음 제보자는 그간의 고초로 깊이 병에 들어 있던 상태였다. 결국 동두천으로 이송된 제보자는 군속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강제로 전역당한 뒤, 간신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 제보자가 인민군에서 치안대로 다시 국군이 되었다가 병들어 강제 전역하기까지의 파란만장한 경험은 단 1년 사이에 벌어진 것이다.

### 3.3.7 청산면 장탄리(長灘里)

<제보자>

이승우(76): 장탄2리 노인회장. 토박이. 10살 때 피난 후 타지에서 살다 20여 년 전에 귀향

김홍식(61): 장탄2리 마을이장. 토박이

25) 군속: 미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미국 군대에 고용되거나 동 군대에 근무하거나 또는 동반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대한민국이나 미국에서 공급할 수 없는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미국에 의한 고용만을 위하여 미국 군대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 미국 군대에 고용되거나 근무하거나 동 군대를 동반하는 제3국 국민을 말한다.



## (1) 유래 및 생활

### 1) 유래

장탄리의 장탄(長灘)은 긴여울이라는 뜻이다. 긴여울은 성재소 북쪽의 한탄강을 말하는 것으로 장탄리의 지명 유래가 된 곳이다. 본래 양주군 청송면의 장연리 지역인데, 조선 광무 10년(1906) 포천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기존의 탄동리 지역을 병합하여 장탄리라 하여 처안면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 8.15 광복 이후 3.8선 북쪽 지역이 되어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었고, 이후 1983년 연천군으로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 2) 마을의 생활

① 한탄강과 장탄리: 고문리와 신흥리를 벗어난 한탄강은 신답리를 오른쪽에, 장탄리를 왼쪽에 두고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장탄리를 왼쪽에 끼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여 전곡 쪽으로 흘러간다. 그런 까닭에 장탄리는 동북서 삼면이 한탄강과 맞닿아 있다. 그러므로 장탄리 주민들의 삶은 한탄강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 한탄강의 물은 식수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농업용수 빨래, 김장, 멍을 감거나 천렵의 공간이었다. 주민의 제보에 따르면 이곳에는 특히 참게가 매우 많았고, 눈치들은 수천마리씩 떼를 지어 몰려다녔다고 한다. 그곳에서 부모님, 형제들과 물고기를 잡고 멍을 감던 시절이 60년이 훨씬 넘는 지금도 떠오른다고 한다. 당시에는 마을에서 제사도 성대하게 지냈다. 마을 제사는 도리소에서 지냈는데, 돼지를 잡아 바치고 축문을 읽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맥이 끊겼다고 한다. 한편, 장탄리는 동쪽으로 선봉바위과 우무소, 북쪽으로 장구봉과 장구맥이, 서쪽으로 성재소에 이르기까지 한탄강의 비경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비경을 갖춘 까닭일까. 전통적으로 농업 마을이 주를 이루었던 장탄리는 최근 장구맥이 부근에 오토캠핑장

이 들어서고 근방에 둘레길이 조성되는 등 관광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 (2) 설화

1) 선봉바위 전설: 선봉바위는 현 장탄리 동쪽 한탄강변에 소재한 바위로 능안 동쪽 궁신교의 위쪽 신답리와 마주보는 절벽에 위치해 있다. 이 바위는 풀무산, 좌살바위, 자살바위, 처녀바위 등으로 불리며 장탄리는 물론 신답리, 궁평리, 대전리, 전곡리 등 인근 마을에 널리 알려진 지역의 명소이다. 선봉바위에는 여러 전설이 전해지는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옛날에 이 바위 봉우리에 한 스님이 살고 있었는데, 바위굴 속에서 생식을 하며 도를 닦고 있었다. 이 스님은 사람의 근접을 싫어하며 혼자 살고 있었다. 어느 해 봄 날씨가 무척 가물어 비가 오지 않아 새싹이 나오자마자 말라 죽어서 스님이 생식할 풀과 나뭇잎이 없어서 살아가기가 곤란하게 되었다.

하루는 스님이 식량을 좀 얻으려고 마을에서 제일 큰 부잣집을 찾아갔다. 이 집은 욕심 많은 구두쇠 시아버지와 젊은 며느리가 살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스님의 구걸을 거절하고 쌀 대신 쇠똥을 한 삽 퍼 주었다. 이 광경을 본 마음씨 고운 며느리는 안타까워서 광에 들어가 쌀을 한 바가지 퍼서 스님에게 몰래 주었다. 스님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바위굴로 돌아왔다.

며칠이 지난 후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모이더니 천둥 번개를 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마을 전체가 물바다가 되어 버렸다. 이 며느리는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선봉바위 쪽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이때 스님이 내려와 그 며느리를 구하면서 말하기를,

“어떤 소리가 나더라도 뒤를 돌아보지 마시오!”

라고 하였다. 바위 위로 올라갈 무렵,

“사람 살려요!”

하는 목소리가 들려 왔다. 며느리는 스님이 이야기한 당부를 깜빡 잊고 그만 뒤를 돌아보았고, 그 순간 스님과 며느리는 바위 문턱에서 화석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지금도 선봉바위의 작은 돌문 밑에는 그 모습이 남아 있다고 전한다. 이 전설은 선봉바위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설화로 전국에 널리 퍼져 있는 장자못 설화의 일종이다.<sup>26)</sup>

② 선봉바위를 달리 풀무산이라고도 한다. 전설에 의하면 전에 어떤 풍수가 능안 뒷산에 올라서서 주위 산세를 보니 전방에 솟은 이 산은 풀무와 같고, 남쪽의 솟골은 솟가마, 동북쪽 신답리의 쇠촌이(金村)는 쇠빛깔, 북쪽 연천읍 고문리 느즌모루는 대장간에서 불린 쇠

26) 비슷하지만 다소 다른 이야기가 『경기북부구전자료집-연천군』(조흥욱 외 편, 박이정, 2001, 235쪽)에 실려 있다. “자살바위는 옛날에 인제 그 중이 있었는데, 중이 그 부잣집이 하나 있었는데요, 부잣집이 하나 있었는데. 인제 중이 와서 동냥을 달라. 그러니까 시주를 하라. 그러니까 시어른들이 못하게 하거든. 그래서 그 중이 안에다가 쌀을 몰래 퍼갖고 나와서 매누리가 시주를 했다. 말은 (조사자 : 며느리가 착하네.) 그랬는데 그 중이 인제 거기를 뒤를 돌려다 보지 말라 그랬데. 뒤를 돌려다 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를 돌려다 봤데. 그래가지고 흥수가 나가지고 집이 다 떠내려가고, 그래서 거기서 말은 떨어져 죽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살바위라고. (조사자 : 누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니까 매누리. (청중 : 매누리가 그 배우에?) 물동이 이구선 이렇게 있잖아요. 자세히 보면은 물동이 이구 그... (조사자 : 모양이 여자가 물동이를 이구 서있는 것...). 응 여자. 그런데 이제 중이 뒤를 돌려다 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를 돌려다 봤기 땀에 인제 흥수가 나가지고 거기 떨어져서 죽었다 그런 말이 있더라구요. 잘 몰라요 대충 들은 말이지.”

를 올려 놓고 망치로 두드릴 때 반침으로 쓰는 쇧덩이인 모루 형상을 하고 있어 풍수학상으로 쇧을 녹일 수 있는 도가니혈만 찾으면 천하의 명당이 될 자리라 하였다. 그래서 도가니혈을 찾기 위해 능안 골짜기를 뒤졌으나, 그 위치를 찾지 못해 한탄했다고 한다. 능안에 관한 전설에 따르면 풍수가는 임금이 명당자리에 능을 쓰기 위해 파견된 명지관이었다고도 한다.<sup>27)</sup>

③ 선봉바위는 또한 자살바위로도 불린다.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이름인데 전설에 따르면 고종 때 일본군이 조선 의병을 피해 강을 건너다 죽었다거나, 해방 후 이곳에서 자살한 사람이 많았다거나, 또는 한국전쟁 중 탄약과 식량이 떨어진 국군들이 이곳에서 자살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전한다.<sup>28)</sup> 그러나 모두 증명된 바 없다. 다만 선봉 바위는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기괴한 바위 모양과 무늬, 우뚝 솟은 크기 등으로 인해 스산한 느낌을 들게 하여 이러한 전설이 생겨난 것으로 추정된다.

④ 궁평리 주민의 제보이다. 선봉바위의 한자어는 仙峯이다. 전설에 따르면 이곳에 신선이 내려와 춤을 추고 놀았다고 한다. 궁평리 주민의 제보에 따르면 선봉 바위에 선녀가 내려와 춤을 추다가 목이 말라 궁평리 약수터의 물을 마셨다고 한다. 장탄리 답사 과정에서 신선이 춤을 추고 놀았다는 이야기를 제보받았다. 이로 보아 인근 지역에서 널리 유전되던 설화로 보인다.

⑤ 선봉 바위의 신선은 사람도 영특하게 만들었다. 옛날 한문을 전혀 모르던 무식쟁이가 살았는데, 어느 날 선봉 바위에 사는 선인이 꿈에 나타나서 한문을 알려줬다고 한다. 그 다음날 눈을 뜬 무식쟁이는 모르는 한자가 없을 정도로 유식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2) 장구산 전설: 장구산은 수리봉 동쪽에 있는 바위산으로 가운데의 모양이 잘록하고 양쪽이 완만하게 솟아 있어 마치 장구와 닮은 모양을 하고 있다. 강의 맞은 편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고문리이다. 전설에 따르면 연천읍 고문리 느즌모루 마을에서는 이 장구산을 안산(案山)으로 하는 까닭에 무당이 끊이지 않고 난다고 한다.

### (3) 지명 유래

1) 선봉바위(仙峰, 仙峯): 현 장탄리 동쪽 한탄강변에 소재한 바위로 능안 동쪽 궁신교의 위쪽 신답리와 마주보는 절벽에 위치해 있다. 이 바위는 대장간의 풀무와 비슷하다고 하여 풀무산(冶山)(장탄리 마을의 전설 선봉바위 참조), 벽면에 동자승이 앉아 있는 자연스러운 무늬가 있다고 하여 좌살바위, 또는 처녀 무늬가 있다고 하여 처녀바위라고도 불린다. 최근에는 자살한 사람들이 많다 하여 자살바위로도 불린다(장탄리 마을의 전설 선봉바위 참조). 전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곳이 비경으로 유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탄 강의 강물이 맑고 깨끗하며, 침식 작용에 의하여 깎인 강 양쪽의 절벽이 아름다워 사시사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민물고기가 많아 낚시꾼도 많이 찾는 곳이다. 한편, 6.25 이전에는 절벽에 소나무가 가득했고, 철새 두루미들이 무리를 지어 살았다고 한다. 가히 신

27) 이상 연천군지편찬위원회 편, 『연천의 설화』, 『연천군지』 上, 연천군청, 2001.

28) 이용경, 『달보드레한 다님 연천』, 연천군청 환경보호과, 2014, 52쪽에서 재인용.

선이 놀만한 곳이라 하겠다.



그림 30 선봉바위의 지도상 위치



그림 31 선봉바위의 전경. 아름다우면서도 기이한 느낌을 자아낸다.

- 2) 도리소: 풀무산 북쪽. 한탄강에 있는 소. 강물이 굽어 돌아 흐르는데 있는 소라 하여 불린 이름이다. 과거에 이곳에서 마을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 3) 선봉나드리: 도리소 서쪽에 있던 나루. 전곡읍 신답리로 통하며, 현재 강변에는 유원지가 조성되어 있다.
- 4) 우무소: 선봉바위의 아래. 한탄강이 북쪽 방향으로 흐르는 도중에 위치한 소. 물이 매우 깊다고 한다.

5) 긴여울(長灘): 성재소 북쪽, 한탄강에 있는 큰 여울. 장탄리 지명의 유래가 되는 곳이다.

6) 능안: 작은범골 남쪽에 있는 마을. 예전에 이곳 도가니혈의 명당에 임금의 능자리를 잡으려고 명지관을 보내 보게 하였으나 자리를 찾지 못하자 능자리가 아니라 해서 '능안'이라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또 오위장 이경빈의 묘가 있다 하여 '능안'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 한국전쟁 전까지 경주 이씨(慶州李氏)가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다.

7) 장수개(長水浦, 長淵洞): 한탄강 수력발전소 부근에 있는 큰 마을. 긴여울 위가 되어 항상 맑은 물이 호수처럼 모여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이 마을은 조선 명종 13년 경 서봉천이라는 사람이 양주에서 이 곳으로 이주하여 처음 개척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의 후손인 이천 서씨들이 집성을 이루고 있다.

8) 고탄교: 장탄리와 전곡읍 전곡리의 고탄동 사이에 있는 한탄강다리. 일명 '높은여울다리' 또는 '에반스교'라고도 불려진다. 현재 이 다리 아래 큰 다리가 최근에 새로 가설되었다.

9) 한탄강 수력발전소: 한탄강 동쪽, 장수개 마을에 있는 발전소로, 1983년 6월 1일 착공하여 1984년 10월 31일 준공되었다. 97년 수해 당시 댐 오른편이 붕괴되어 일대의 마을이 수해 피해를 입었고, 이후 보수하였으나 99년의 홍수 때 이번에는 댐 왼편이 붕괴되어 재차 인근 마을이 큰 피해를 입었다. 결국 철거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10) 윗거저울(거사동 居士洞, 권탄동 拳灘洞): 너래들비낭 북쪽에 있는 마을. 예전에 어떤 거사가 살았다 하여 거저울이라 불렸다는 유래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가(邊)'와 '자리'라 합쳐진 복합어 '가장자리'가 변천된 것이다. 이 마을 앞을 크게 곡류하는 한탄강이 주먹모양을 하고 있다 하여 권탄동(拳灘洞)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마을은 지금부터 약 300년 전에 통덕랑 박필익이 정착한 후부터 반남 박씨의 집성촌이 되었다. 강변이 모래사장이라 강쪽으로의 접근이 쉬워 과거에는 꽤 흥했던 마을이라 한다. 그러나 6.25 전쟁 중에 폐허가 되었다가 그 이후 몇 가구가 살았는데, 지금은 그나마도 모두 타지로 떠나고 아무도 살지 않는다.



그림 32 은대4리 쪽에서 바라본 윗거저울의 전경. 지금은 주민이 살지 않는다.

11) 아랫거저울: 이능골 북쪽, 한탄강 옆에 있는 마을.

12) 느릅나무골: 아랫거저울 동쪽에 있는 골짜기.

13) 너래들비냥: 아랫거저울과 윗거저울 사이에 있는 넓은 암반의 벼랑

14) 장구맥이: 윗거저울의 사이를 넘어 다니던 목. 최근에 캠핑장(땅에미소 오토캠핑장)이 조성되었다.



그림 33 땅에미소 오토캠핑장에서 바라본 장구맥이.

15) 장구산(장구봉): 수리봉 동쪽에 있는 바위산. 그 모양이 가운데가 잘록하여 장고와 닮은 모양을 하고 있다. 고문리 무당 전설과 연관이 있으며(장탄리 마을의 설화 장구산 참고) 그 아래를 흐르는 한탄강변을 장구맥이라고 한다.



그림 34 고문리에서 바라본 장구봉

16) 성재소: 장탄리 가장 남쪽, 한탄강에 있는 소. 대전리 산성의 아래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성재소 위쪽을 장탄(長灘)이라고 부른다.

17) 새골: 대전리 산성 북쪽에 있는 좁은 골짜기.

- 18) 성재(대전리산성): 장탄리와 대전리 사이에 있는 산성. 성과 산을 뜻하는 옛말인 재가 합하여 이루어진 땅이름으로, 성산(城山)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 19) 작은성재: 새골 동쪽에 있는 좁은 골짜기. 대전리 산성의 북쪽에 딸려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 20) 큰성재: 작은성재 옆에 있는 골짜기.
- 21) 자랑골: 큰성재 옆에 있는 골짜기. 좁거나 작은 것을 뜻하는 말인 ‘잘’이 ‘자라’로 음이 옮겨가면서 ‘골’과 합쳐지는 과정에 ‘자라’가 ‘자랑’으로 변하여 굳어진 이름이며 작은 골짜기란 뜻을 가지고 있다.<sup>29)</sup>
- 22) 훌쩍골: 자랑골과 외룡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
- 23) 외룡골: 훌쩍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 24) 삽재골: 외룡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사이의 뜻을 가진 ‘삿’이 ‘삽’으로 발음이 옮겨간 것으로, 장탄리에서 대전리로 넘어 가는 좁은 고개가 있는 골짜기라는 뜻을 지닌 곳이다.
- 25) 함정골: 정주동산 남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산짐승을 잡기위해 함정을 파 놓은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26) 정주동산: 함정골 북쪽에 있는 공원묘지. 평안북도 정주군민회와 평안도민회에 의하여 조성된 실향민 묘원.
- 27) 정주군민회 망향탑: 장탄리 산 913번지에 있는 7.7m 높이의 망향탑. 평안북도 정주군민회와 평안도민회, 연천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982년 건립되었으며, 고향을 그리며 남북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느끼게 하는 곳이다.
- 28) 외판묘골: 함정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묘가 있었다 한다.
- 29) 안말: 한탄강 수력발전소 남쪽,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
- 30) 된봉: 능안 남쪽에 있는 봉우리. 정상부의 지형이 되고 험하다 하여 지어진 이름.
- 31) 양성골: 큰잣터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양산골’로도 불리며, 6.25 전에는 강릉 김씨들이 마을을 이루었으나, 지금은 한 집만 살고 있다.
- 32) 도당골: 양성골 안에 있는 골짜기. 옛날에 도당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

29) 이하의 내용은 『연천 향토사료집』(연천문화원 편, 2003)에서 발췌하였다.

- 33) 텃골: 장수개 동쪽에 있는 큰 골짜기. 터에 대한 유래는 자세하지 않다.
- 34) 매봉재: 텃골 동쪽에 있는 봉우리.
- 35) 궁논: 양성골 북쪽에 있는 논. 예전에 궁곶에서 관리하던 논이라 한다.
- 36) 새말: 궁논 옆에 있는 새로 형성된 마을.
- 37) 큰미골: 궁논 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38) 큰жат터: 장수개 가운데 있는 마을의 옛 이름. 산의 옛말인 'жат'과 '터'가 합하여 '큰 산골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 39) 불당골: 큰жат터 서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절이 있었다 하나, 지금은 그 터가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 40) 도란말(回洞): 한탄강 수력발전소 북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산부리 끝의 모퉁이처럼 되어 있어 장수개 마을에서 이 곳을 지나려면 굽어 돌아가야 한다 하여 지어진 마을 이름이다. 현재는 발전소가 세워진 후 예전의 도로가 없어진 상태이다.
- 41) 새터: 도란말 북쪽에 새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 지금은 군부대가 있다.
- 42) 칠성배미: 고탄교 동쪽, 37번 국도 남쪽에 있는 고래실 논. 일곱 군데에서 샘이 솟아 나온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43) 행주골: 숲고개 남쪽에 있는 골짜기. 현재 목장이 자리하고 있으나, 유래는 자세하지 않다.
- 44) 박아지골: 칠성배미 북쪽에 있는 골짜기. 수복 후 박아지를 심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
- 45) 봉화봉: 숲고개 북쪽에 있는 봉우리. 예전에 봉화를 올렸던 곳이나 현재는 그 터가 멸실되었다.
- 46) 이농골: 아랫거저울 동쪽에 있는 골짜기.
- 47) 분토골: 윗거저울 남쪽에 있는 조그만 골짜기. 지형이 항아리 모양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48) 사동: 거저울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뱀이 많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며, 뱀발골로도 불린다.

- 49) 마즈쟁이: 윗거저울 앞에 있는 한탄강 여울.
- 50) 굴여울: 이링기리 앞에 있는 한탄강 여울. 일제 강점기 때 한탄강 건너 신답리에 금광 굴이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51) 이링기리: 거저울 북쪽, 한탄강 옆에 있는 큰 밭. 그 넓이가 7일 갈이가 된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52) 수리봉: 한탄강 남쪽에 있는 높은 봉우리. 하늘을 날아다니는 수리와는 연고나 이 없고 단순히 높은 봉우리의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 53) 큰범골: 수리봉 남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 이 마을에 살던 부자가 보리를 지고 이곳을 지나던 중 아들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
- 54) 오위장 이경빈 묘: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 2리에 있는 조선 중기의 무신 이경빈(李慶彬, 1610 ~ 1663)의 묘. 이경빈은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남한산성까지 왕의 어가를 호위한 공으로 선전관이 되었다. 이후 청에 볼모로 끌려가는 두 왕자를 배행(陪行)하는 익찬(翊贊)이 되어 심양(瀋陽)에 갔다가 환국하여 군수와 오위장에 올랐다. 묘는 부인과의 합장분이다.
- 55) 거저울고개: 숲골벌과 아랫거저울 사이에 있는 고개. 현재는 레미콘 공장.
- 56) 숲고개: 거저울 고개 남쪽에 있는 고개.
- 57) 숲골벌: 능안 남쪽에 있는 장탄리에서 가장 큰 들. 숲골 마을 앞에 펼쳐져 있다.

#### (4) 6.25 경험담

- 1) 이승우 할아버지의 6.25 전쟁 이야기  
 제보자는 조상 대대로 이곳에서 터전을 일구었던 토박이로 10세 되던 해 6.25를 겪었다. 그때 동생은 병으로 죽고 누이들은 피난 도중 폭격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고향에 돌아오면 누이동생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 서울에서 계속 살다가 최근에야 고향으로 내려왔다고 한다.

#### 3.3.8 청산면 대전리(大田里)

<제보자>

- 이정근(86): 마을 토박이. 궁평1리 이규찬(86)의 동창  
 서승천(78): 마을 주민

황명철(60): 대전2리 마을이장

오종호(60): 대전1리 마을이장



## (1) 유래 및 생활

### 1) 유래

본래 양주군 청송면 지역으로 한탄강 옆에 큰 밭이 있으므로 '한밭' 또는 '대전리'라 하였는데, 1895년(고종 32) 지방관제 개정에 의해 포천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청산면에 병합되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많은 지역이 38선 북쪽의 공산 치하에 놓였으나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따라 행정권이 수복되었으며 1983년 연천군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2개의 행정리, 8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조인물고》의 한원공 이목 조(대전리 지명유래 이목 묘 참조)에 의하면 이곳은 과거에 대탄촌(大灘村)으로도 불렸다. 대탄촌이라는 지명은 대전리와 맞닿아 있는 한탄강을 한여울, 즉 대탄(大灘)으로 불린 것에서 유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sup>30)</sup>

### 2) 마을의 생활

① 마을의 지형과 주민들의 삶: 대전리는 한탄강과 인접해 있는 면적은 적지만 동두천에서 흘러오는 신천과 한탄강이 만나는 아우라지를 품은 곳으로 마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탄강과 신천의 접경 지역에 큰 논답이 있어서 연천 내에서는 산물이 풍부한 편이었다. 또한 북쪽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궁평리, 백의리,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초성리, 전곡리,

30) 연천문화원 편, 『연천 향토사료집』, 연천군청, 2003.

장탄리와 인접해 있어 교통의 요지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다른 마을 주민의 제보에 따르면 대전리는 해방 후 반으로 나뉘어서 각각 이남과 이북에 위치하게 되었는데, 같은 마을인 까닭에 6.25 전까지 밀무역이 성했다고 한다. 반대로 그랬기 때문에 6.25 이전과 이후에 격전지가 되기도 했다.

대전리는 서북쪽 초성리와 한탄강의 인접 부근에는 대전리는 마을 지명의 유래가 된 큰 전답이 있고, 남동쪽으로는 종현산(남쪽)과 개미산(동쪽) 등 크고 작은 산세가 뿔어 있어 있다. 서북쪽의 전답지는 한탄강의 물을 끌어다 쓸 수 있어 농사도 잘되고 비교적 풍요로운 편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물난리가 날 때마다 수시로 홍수 피해가 나는 곳이기도 했다. 실제로 제보자(이정근)의 고조부 대 을축년 대홍수가 일어나서<sup>31)</sup> 한발 지역의 논이 대부분 물에 잠겼으며 그때 한발 지역에서 13,4대를 거주하던 전주 이씨들이 전곡 쪽으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② 대전리 산성과 산신제: 대전리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대전리 산성(대전리 산12-2)이 있다. 청산면 장탄리와의 경계 지점에 있는 해발 137.5m 성재산의 산록에 위치한 대전리 산성은 서쪽으로는 한탄강에 면해 있고, 남쪽은 신천이 동에서 서로 흐르 한탄강에 합류하고 있으며, 북쪽은 전곡-포천간의 37번 국도가 지나가고, 남동쪽은 222번 지방도가 지나고 있다. 한마디로 교통의 요지이자 전략적 요충지인 셈이다.

대전리 산성은 일찍부터 신라가 당나라 군대를 물리친 매초성(매소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sup>32)</sup> 매초성 전투는 나·당전쟁의 대전환점이 된 전투였으며, 당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 욕망을 좌절시킨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sup>33)</sup> 그런데 매초성의 정확한 위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역사적 정황상 경기 북부 지역인 것은 명확하기에, 양주, 파주, 연천 등이 거론되었다. 이처럼 대전리 산성이 매초성인가의 문제는 오랫동안 학계의 쟁점이었는데, 2013년에 『연천 대전리산성 학술회의, 대전리 산성 매초성인가』에서 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현재는 거의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이 대전리 산성에는 현재까지 마을의 산신제가 거행되고 있다. 대전리의 산신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연천군지』에 기록된 종현산 산신제로 종현산 정상에서 제사를 지내며 시기는 대략 8월 2일 또는 3일이다. 또 하나는 이곳 대전리 산성, 성재의 정상에서 드리는 산신제이다. 대전리산성의 산신제 역시 8월 초부터 5일 사이에 지내며 예전에는 소

31) 을축년홍수(乙丑年洪水): 1925년 즉, 을축년에 있었던 대홍수. 이 해에 큰 홍수가 네 번이나 일어나서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강물이 범람하고 농토가 침수되며 수백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기록적인 피해를 낳았다고 한다.

32) 675년(문무왕 15) 나당전쟁(羅唐戰爭) 중에 신라가 당나라 군대를 맞아 매초성(賈肖城)에서 싸워 승리를 거둔 큰 전투. 신라를 도와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리자 당은 백제의 옛 땅에 5개의 도독부를 설치하고 고구려의 옛 땅에는 9개의 도독부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배 야욕을 드러내게 된다. 이에 신라는 당군을 축출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게 되며, 임진강 유역의 전투에서 여러 차례의 공방전이 벌어졌다. 675년 당의 장수 유인궤는 임진강을 도하해 신라의 칠중성을 공격하여 많은 전과를 거두고 20만 군대로 매초성 일대에 주둔하게 되었다. 이에 신라는 매초성을 공격하여 당군의 주력 부대와 세 번의 공방전 끝에 매초성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전투에서 신라군은 당군이 버리고 간 전마 3만 380필과 각종 무기를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주력 부대가 궤멸당한 당군은 이후 675년 말까지 18회에 걸쳐서 신라를 공격했지만 연전연패하였다. 드디어 당은 676년 2월 안동도호부의 치소를 평양에서 요동으로 옮기고 말았다. 따라서 매초성 전투는 당나라세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하고 통일신라가 명실상부하게 한반도 중남부를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연천군지편찬위원회 편, 『연천군지』 상, 연천군청, 2001.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3) 한자어 肖는 ‘초’로도 발음되고 ‘소’로도 발음된다. 때문에 매초성으로도 불리고 매소성으로도 불린다. 여기에서는 대전리 산성 학술회의의 결과에 따라 매초성으로 작성한다.

를 사서 제사를 드렸으나 현재는 돼지로 바꿨다고 한다. 해방 후 맥이 끊겼다가 수복된 후 다시 재개하였다. 제사는 유교식으로 거행된다. 종현산 산신제와 달리 성재의 산신제는 따로 군지에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대전리 사람들이 중시하는 것은 대전리 산신제였다고 한다. 다만, 이제는 산신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연로해지고 젊은 사람들의 참여율은 적어 인원이 점점 줄어든다고 한다.

## (2) 설화

### 1) 말무덤

청산면 대전1리에는 대대로 이대장 묘로 불렸던, 이목(李穆)의 묘가 있고, 그 아래에 말의 무덤이 있다. 이 말 무덤과 관련된 전설이다.

옛날에 나당전쟁 때인가 병자호란 때인가 이씨 성을 가진 대장이 적들의 동향을 살피려고 잠입했다가 붙잡혀서 참형(목이 잘리는 형벌)을 받았다고 한다. 그때 장군이 타던 말이 장군의 목을 물고 이곳 대전리까지 와서 장군의 본가에 목을 내려 놓고는 비탈에서 굴러 떨어져 스스로 죽었다고 한다. 그 충정을 기리기 위해 장군의 묘 앞에 따로 말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전설에서 말하는 이대장은 이괄의 난 당시 이괄에게 저항하다 죽임을 당한 조선 중기의 문신인 이목(1599-1624)인데,<sup>34)</sup> 기록상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 말무덤 전설은 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 (3) 마을의 지명 유래

1) 한밭(대전 大田) : 한탄강 옆에 위치한 넓은 밭. 대전리의 유래가 된다. 넓이가 약 1만 1000평으로 7일 한나절이나 갈아야 된다고 한다. 대전리에서 한탄강과 접경해 있는 곳으로 이곳의 한탄강을 흔히 한여울(大灘)이라고 한다. 강변이 낮아서 농수 확보가 쉬워 예전부터 살기 좋은 동네였으나 몇 차례 홍수가 나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2) 윗한밭(上大田) : 막은데미고개 아래에 있는 마을. 아래한밭의 상대되는 지명이며 '잿밭'로도 불리는 곳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전주 최씨(全州崔氏)가 15호 가랑 살았다 한다.

34) 《국조인물고》에 따르면 이목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생몰 연대는 1599(선조32)~1624(인조2)이다. 자는 명원(明遠). 본관은 한산(韓山).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이 난을 일으키자 경기도관찰사 겸 부원수인 외숙부 이서(李曙)의 휘하에 들어갔다. 이괄이 한양(漢陽)을 점령했을 때 동향을 살피려고 소덕문(昭德門)을 통하여 한양에 들어오다가 체포되었다. 이괄로부터 관군의 형세에 관해 심문을 받았으나 끝까지 굴하지 않음으로써 죽음을 당했다. 호조판서에 추증되고 한원군(韓遠君)에 추봉(追封)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양주(楊州) 대탄촌(大灘村) 축좌(丑坐) 언덕에 장사지냈다고 한다. 즉 과거 이곳을 대탄촌 축좌언덕이라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부인은 연안 김씨(延安金氏) 현감(縣監) 김희온(金希溫)의 딸이다. 아름다운 덕(德)과 지극한 행동이 있어 공이 몰(歿)한 뒤로 30여 년 동안 고깃국을 입에 대지 않다가 계축년(癸丑年, 1673년 현종 14년) 정월 10일에 졸(卒)하니 수(壽)가 70세이다. 공과 상하로 부장(附葬)되어 있었다. 묘는 후손들에 의해 다른 곳으로 이장되었다. 혼유석·상석 등의 석물 외에, 1701년(숙종 27) 성균관 대사성 박태순이 짓고 동지중추부사 이익신이 쓴 묘갈 등도 같이 옮겨졌다. 묘가 있었던 하단부의 밭에는 이대장의 '말무덤'이라 하는 봉분이 남향하여 있는데 그것은 이장하지 않았다.

3) 아장동(亞將洞, 중대전 中大田) : 수누골 입구에 있던 마을. 예전에 아장 벼슬을 지낸 사람이 살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장수 황씨(長水黃氏) 30여 호가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4) 한원군 이목(李穆)의 묘: 청산면 대전1리 성재 부근에 있는 한산 이씨 이 대장 부부의 묘. 제보에 따르면 이 대장은 나당전쟁 또는 병자호란 때의 전사한 장수라 하나 실제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이목의 묘이다.(대전리 마을의 설화 참조) 묘와 비석만 놓인 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비석 역시 대부분 훼손되어 사적을 제대로 알 수 없었는데, 6.25 때 이곳까지 진격한 중공군이 비석의 한자를 읽고 자신들의 조상(청나라)과 대결한 장수라 하여 비석을 폭파시켰다. 그 후 1968년 무렵에 우여곡절 끝에 한산 이씨의 묘인 것을 확인한 후손이 이장했으며, 이장 당시 남편의 유체는 백골이 되었으나 부인은 비단으로 칭칭 감겨 있는 미이라 형태로 보존되어 있었다고 한다. 당시 말무덤은 이장하지 않아 그대로 있다.

5) 말무덤: 한원공 이목 묘 앞에 있는 봉분. 이목의 말을 묻은 무덤이라고 한다.(대전리 마을의 설화 참조.)

6) 대전리 산성: 청산면 대전리 산12-2에 소재하고 있다.(대전리 마을 역사와 생활 대전리 산성 참조) 증언에 따르면 오랜 옛날에 대전리 산성과 2km 떨어져 있는 초성리 토성에서 신라군과 당나라군이 전투를 벌였다고 한다.(대전리 마을의 생활 참조)



그림 36 국도에서 바라 본 대전리 산성



그림 37 대전리 산성에서 바라본 한탄강

6) 어숫물: 성재 옆에 있는 우물. 명주실 한필을 풀어야 닿을 정도로 깊은 곳이라고 하며, 명주실을 풀면 한탄강의 구녕바위까지 내려왔다고 한다. 현재는 메워졌다.

7) 구녕바위: 성재 아래 강변 쪽에 옆에 있는 굴. 현재는 모두 메워졌다.

6) 뱃터개(배터, 뱃개, 뱃나드리) : 한밭에서 전곡으로 건너다니던 한탄강 나루터. 3번 국도 쪽으로 다리가 생기면서 나루는 없어졌다.



그림 38 뱃터개. 멀리 뒤에 보이는 것이 고탄교이다. 이곳  
어름부터가 바로 한여울의 시작이 된다.

7) 산신제터: 성재 정상에 있는 대전리에서 마을에 제사를 지내는 터.(대전리 마을의 역사와 삶 대전리 산신제 참조)



그림 39 산신제터.

8) 구무소 : 뱃나드리 북쪽, 한탄강에 있는 소. 명주실 한 꾸러미가 다 들어가고도 모자랄 정도로 깊다고 한다. 항시 물이 크게 휘감아 돌아 소에 빠지면 살아남지 못했다는 전설이 있다. 강물이 크게 도는 것으로 보아 '구무'는 '구멍'이라는 뜻으로, 여기에 '소'가 합쳐져 이루어진 이름으로 보인다.

9) 종현산(鍾懸山) : 포천군 신북면 덕둔리와 경계에 있는 산. 높이 588.6m. 예전에 산 정상에 큰 종을 매달아 놓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그림 40 종현산의 전경

10) 풀무골 : 아장동과 윗한밭 사이에 있는 좁은 골짜기.<sup>35)</sup>

11) 당차골 : 무쇠말등 남쪽에 있는 좁은 골짜기.

12) 고애고개(過峴) : 고애벌과 초성리 법수동 사이에 있는 고개.

13) 고애벌 : 신내 동쪽, 미락골 앞에 있는 벌판. 고애고개 부근에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35) 이하의 내용은 『연천 향토사료집』(연천문화원 편, 2003)에서 발췌하였다.

- 14) 동이저골 : 당차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15) 뒷박골 : 조가지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16) 뒷박골 : 큰황개터골 아래에 있는 작은 골짜기. '작은뒷박골', '큰뒷박골'로 나뉘어진다.
- 17) 막은데미고개, 되네미고개 : 윗한밭에서 궁평리 평촌으로 넘어가는 고개.(궁평리편 참조)
- 18) 머개너머 : 아장동 남쪽에 있는 고개. 초성리 법수동으로 통한다.
- 19) 무쇠말등 : 궁평리 백의리와 경계에 있는 높은 산.
- 20) 밤나무골 : 산안골 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예전에 밤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21) 방아골 : 검단이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22) 도당재 : 수누골에서 아랫대전리의 검단이골로 통하는 고개. 예전에 이 고장의 수호신을 위하던 도당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23) 버들골 : 아래한밭 남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버드나무가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24) 비선골 : 검단이골 안에 있는 작은 골짜기. 예전에 양주목사 선정비 한 기가 있었다 하나 자세한 내용은 물론 비석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 25) 산안골(山內谷) : 연미골의 가장 깊숙한 산 안에 있는 골짜기. 포천군 신북면 삼정리와 통하며 삼형제바위가 있다.
- 26) 삼신골 : 검단이골 막바지에 있는 골짜기.
- 27) 샘못골 : 일아리때 남쪽에 있는 골짜기. 바위틈에서 솟구치는 샘이 있어 지어진 이름이다.
- 28) 샘물터 : 외룡골 남쪽에 있는 우물.
- 29) 서낭당고개 : 화전골과 고애벌 사이에 있는 고개. 한국전쟁 전까지도 돌서낭당이 있었다고 한다.

- 30) 성재고개(城峴) : 우묵골에서 장탄리로 넘어가는 고개. 대전리산성의 옆으로 넘어 다니던 고개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 31) 소경고개 : 대전리 연미골에서 궁평리의 요동으로 넘어 다니던 고개.(궁평리 마을의 설화 소경고개 참조)
- 32) 원골 : 조가지골 옆에 있는 골짜기.
- 33) 곧은길 : 고애벌에서 초성리 법수동으로 통하는 사이에 있는 곧은 길.
- 34) 수려울 : 버들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 35) 승지골 : 큰황개터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36) 신주변댕이 : 아장동 동쪽에 있는 큰 산.
- 37) 싸리두묵골 : 수누골 막바지에 있는 큰 골짜기. '둥근'\*'둘러싸임' 또는 '산'을 뜻하는 고어의 '뭉'이 '두무'로 옮겨간 것으로 '싸리나무가 많은 산골짜기'란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 37) 아랫모퉁이 : 아랫대전리 마을에서 한밭으로 가는 사이에 있는 길모퉁이. 현재 322번 지방도가 지나가며 대전리 마을에서는 가장 아래에 위치한다. 한국전쟁 전까지 주변에 부여 서씨 15호가 살았다고 한다.
- 36) 연미골(燕尾谷) : 윗한밭 동쪽에 있는 깊고 큰 골짜기. 지형이 제비의 꼬리와 닮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하나, 현재는 '연못골'로 불린다.
- 37) 외룡골 : 수누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 38) 검단이골 : 외룡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39) 이비장골 : 작은황개터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옛날에 이비장이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한다.
- 40) 일아리때 : 아장동 남쪽에 있는 산.
- 41) 작은미락골 : 고애벌 동쪽에 있는 골짜기.
- 42) 작은황개터골 : 샘못골 옆에 있는 골짜기. 큰황개터골 옆에 있다 하여 불리워진 이름이다.

43) 잔방골 : 검단이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작다는 뜻의 '잔'에 산의 고어 '밭'이 변한 음 '방'과 골이 합쳐져 이루어진 복합 지명으로 '작은 산골짜기'라는 뜻의 지명이다.

44) 잣말둔덕 : 윗한밭 동쪽에 있는 넓은 둔덕. 박은데미고개 옆에 있는 잣말(윗한밭)의 뒤편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지금은 군부대가 있다.

45) 절골 : 무쇠말등 남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예전에 절이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6.25 피난 당시 마을 주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숨어 있었다고 하며, 제보자 역시 이곳으로 피신했다고 한다.

46) 조가지골 : 절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47) 수누골 : 윗한밭에서 종현산까지 이어지는, 대전리에서 가장 큰 산골짜기.

48) 큰미락골 : 고애벌 동쪽의 큰 골짜기. 현재 연천군 쓰레기매립장이 있다.

49) 큰직절(一直寺) : 종 현산 북쪽에 딸린 골짜기. '직절'이라는 절이 있었다 하여 유래된 이름이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50) 큰항개터골 : 작은항개터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항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51) 건지산 : 아장동 동쪽에 있는 동그랗고 조그만 봉우리. 해마다 이 곳에서 아장동 주민들이 산제를 올렸다 한다.

52) 우묵골 : 성재 동쪽에 있는 우묵한 모양의 골짜기.

53) 화장골(火葬谷) : 연미골 안에 있는 작은 골짜기. 예전에 화장을 했던 곳이라고 한다.

54) 화전골(火田谷) : 수려울 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예전에 화전밭이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55) 회곶부리소 : 한밭 남쪽, 신내에 있는 소.

#### (4) 6.25 경험담

##### 1) 할아버지의 6.25 전쟁 이야기

제보자는 궁평리의 이규천(86) 할아버지와 동창으로 15살 무렵에 해방을 맞이했다. 당시 대전1리는 이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공산치하를 겪었다고 한다. 날마다 사람들을 불러서 회의하고 부역을 시키며 진을 빼는 통에 부친께서는 이북에서 못살겠다고 하며 46년도에 인근 마을인 초성리로 넘어가버렸다. 인근이지만 그곳은 이남 지역이라 남한에 속했기 때

문이다. 남은 식구들은 어쩔 수없이 고된 삶을 견디며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새벽 6.25가 발발했다. 이북에서부터 탱크가 들어오는데, 보이는 사람마다 싸 죽이는 통에 물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들까지 비명횡사했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 진격하던 인민군들이 국군의 복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20살의 제보자는 부친이 들어와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산으로 뛰어 올라가서 이들을 굶었다. 당시 소요산 가능 방향에 절골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모두들 젊은이들 대부분이 그곳으로 피신을 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인민군이 남쪽으로 깊이 진격하느라 연천 군내의 인민군이 줄어드는 틈을 타서 집으로 돌아왔다. 10월 초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한 국군과 유엔군이 북으로 진격했다. 며칠 후 연천으로 입성한 국군들이 마을의 젊은이들을 다 모았는데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제보자였다. 뭘 하려나 보고 있는데, 난데없이 포탄을 하나씩 들라고 해서 들었더니 그 길로 포탄을 짊어지고 국군의 진격에 따라가게 되었다. 일종의 부역이었던 셈이다. 한참을 걸어 철원의 월정리에 다다르자 군인이 귀환증을 써준 후 돌려보냈다. 마을로 돌아온 제보자는 치안대의 일원이 되어 궁평리 일대의 치안을 담당한다. 당시 포천시 창수면에서 인민군이 포위된 채 대처하고 있던 상황이라 자주 국지전을 벌였다고 한다. 얼마 후 17연대의 포부대가 인민군이 머물던 지역을 잣더미로 만들어 버렸고, 당시 그곳에 있던 인민군은 몰살당했다. 사후 처리로 인민군들의 시체를 모두 모아 다 태워버렸는데, 그곳이 바로 고소성리의 화장터의 유래라고 한다. 그렇게 치안대에서 생활한 지 두어 달 후 50년 겨울에 중공군의 개입이 시작된다. 후퇴 명령이 떨어져서 부대와 함께 움직이느라 가족과 헤어져 미 24단 5연대와 합류하게 된다. 그곳의 한 장교가 “너 공산당이나?”라고 묻길래 “아니”라고 했더니 그날부로 미군부대에 배속되었다. 그렇게 군속 근무를 하게 된 제보자는 의정부 민락동을 지나 일산 쪽으로 갔다가 장호원까지 후퇴한다. 이후 이천-양평-가평-홍천을 지나 6사단에 합류하여 화천전투에 참전했다고 한다. 그렇게 전장에 있는 동안 휴전이 되었다고 한다.

## 2) 할아버지의 6.25 전쟁 이야기

이정근 할아버지의 경험이 전투와 관련된다면 서승천 할아버지의 6.25 경험은 피난으로 시작해서 피난으로 끝난다. 궁평초등학교를 다니던 제보자는 6.25 전쟁 전에 양주로 넘어가서 지낸다. 그러다가 전쟁이 발발하자 충청북도 보은까지 피난을 떠난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국군이 북으로 진격할 때 연천으로 돌아온 제보자는 다시 중공군이 남하하자 한강 이남까지 피난길에 오른다. 전선의 움직임에 따라 잠시도 쉴 새 없이 피난을 다녔던 셈이다. 그 과정에서 특히 제보자가 고생한 것은 국군이나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는 일이었다. 제보자의 부친은 가족이 당시 이북 지역인 대전리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혹여 인민군의 끄나풀로 오인 받을까봐 철저히 사람들을 피하면서 피난살이를 했다고 한다.

### 3.3.9 전곡읍 은대리(隱垞里)

<제보자>

서병서(65): 은대4리 마을 이장. 7대조부터 은대리에 거주. 동두천 외가에서 살다가 40여년 전부터 거주.

윤권순(85): 거주 기간 40여년.

홍희순(80): 거주 기간 30여년.



## (1) 유래 및 생활

### 1) 유래

본래 양주군 영근면의 지역으로, 고려가 멸망한 뒤 불사이군의 절개로 음터에 은거한 일노정 김양남의 사적에 의하여 은대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명천리를 병합하여 은대리라 하여 연천군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 8·15 광복과 동시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행정 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4개의 행정리, 26개 반, 7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sup>36)</sup>

### 2) 마을의 생활

한탄강과 은대리: 신답리와 장탄리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북쪽으로 올라온 한탄강은 왼쪽으로 장탄리를 끼고 반시계 방향으로 길을 꺾어 남쪽으로 흘러드는데 그 오른 쪽이 바로 은대리이다. 은대리는 동쪽의 한탄강과 서쪽의 차탄천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은대리의 남쪽에서 차탄천과 한탄강이 합수한다. 그 합수지점에 연천의 유명한 전설인 삼형제 바위가 있다. 삼형제 바위의 맞은 편 마을이 바로 황지리이다. 실제로는 한탄강보다는 차탄천과 더 많은 면적이 붙어 있으나 차탄천 역시 한탄강의 지류라는 점에서 한탄강과 뿔뿔이 뿔 수 없는 마을이라 할 수 있다.

이곳의 한탄강변 역시 물이 맑고 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특히 이곳은 다른 지

36) 연천문화원 편, 『연천 향토사료집』, 연천군청, 2003. 답사 과정에서도 해당 내용이 제보된 바 있으나, 구연 내용이 매우 간략하고, 출처 및 경로가 불분명하여, 관련 내용이 보다 온전하고 객관적 근거를 갖춘 문헌 기록을 인용하였다.

역과 달리 땅이 낮아져서 강변이 형성되어 있는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한탄강을 찾는 것도 그만큼 쉬워서 먹을 감거나 물고기를 잡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증언에 따르면 TNT 폭탄을 터뜨려서 물고기를 잡았으며 그때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 (2) 설화

은대리에서 전해오는 설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37)</sup>

1) 바래: 바래는 지금의 전곡읍 은대 3리에 딸린 ‘웃바래’와 ‘아랫바래’라는 자연 마을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우애담이 전설로 이어져 오고 있다.

옛날에 윗마을에는 형님이 살고 아랫마을에는 동생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너무도 우애가 좋았다. 하루는 형님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동생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어두워서 방향을 헤아리지 못할 지경이었다. 그래서 형님이

“아우야, 내가 바래다 주마. 같이 가자!”

하고 형제가 아우네 집까지 왔다가, 형이 혼자 집으로 가려니까 역시 어두워서 혼자 가기가 어려울 듯하므로 이번에는 아우가 형님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이리기를 몇 번 하다 보니 날이 흰히 밝아지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형제의 우애에 감동하여 마을 이름을 ‘바래’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2) 가사평(袞裳坪): 지금의 전곡읍 은대리와 전곡리 및 연천읍 통현리에 걸쳐 있는 연천군 제일의 평야이며 곡창 지대인 들판을 이른다. 1757년(영조33)에 편찬된 『여지도서』에 의하면, 봄·여름으로는 땅이 질고 미끄러워서 잘 걸어다닐 수가 없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전설을 남기고 있다.

‘예전에 어떤 중이 이 별판을 지나가다 진흙 속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여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어 걸음을 옮길 수 없게 되자 입고 있던 가사를 벗어 버리고 갔다 하여 ‘가사평’으로 명명되었다.’

한편, 《신증동국여지승람》 연천현 제영조에 실린 서거정의 시에는 ‘봄 진흙 미끄러워 말도 가기 어렵구나, 양주서 오는 길 높았다 낮았다 하네.’ -라고 이 곳의 인상을 시로 남기기도 하였다.

옛날 어떤 스님이 이 별판을 지나가다가 진흙밭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하여 온 몸이 진흙투성이가 돼서 가사를 벗어 버리고 갔다고 하여 ‘가사평’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고 한다.

3) 삼형제 바위 전설: 삼형제 바위 전설: 이 삼형제바위에는 애뜻한 모성애와 형제애에 얽힌 전설이 있다.

① 오랜 옛날에 한 어머니가 아들 삼형제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궁핍한 살림이었으나, 삼형제가 어머니의 말씀을 잘 따르고 열심히 일하여 집안이 화목하게 살았다. 남편을 잃은 팔자 기구한 여인이라고 스스로 죄인 행세를 하는 어머

37) 이하의 내용은 연천군지편찬위원회 편, 「연천의 설화」, 『연천군지』 上, 연천군청, 2001. 참조. 답사 과정에서도 해당 내용이 제보된 바 있으나, 구연 내용이 매우 간략하고, 출처 및 경로가 불분명하여, 관련 내용이 보다 온전하고 객관적 근거를 갖춘 문헌 기록을 인용하였다.

니 역시 아들 삼형제를 하늘처럼 믿고 살았다. 얼마 안 되는 농사였지만, 아버지가 하시던 농사일을 삼 형제가 이어받아 어린 나이였음에도 열심히 일을 하여 추수기에는 먹고 살 만큼의 수확을 거두어들이 수 있었다.

큰 아들이 17살, 둘째가 15살, 막내가 13살이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강가 밭아서 김을 매던 삼형제는 더위를 식히러 한탄강으로 들어갔다. 셋을 수심이 얇은 곳에서 물장난을 하면서 즐겁게 목욕을 하고 있었다. 이 강은 흐르는 물이라 모래가 파여 나가서 생긴 웅덩이가 여기 저기 있었다. 그것을 모르고 제일 깊은 웅덩이 근처에서 놀던 막내 아우가 밭을 헛디뎈 급한 물살을 따라 떠내려가기 시작하였다. 그것을 본 큰형이 동생을 구하기 위하여 빠르게 흐르는 물속으로 아우의 뒤를 따라 헤엄을 쳤다. 앞뒤를 생각할 겨를도 없는 순간적인 행동이었다. 하지만 물은 깊고 물살은 세어서 도저히 동생을 따라잡아 구할 수가 없었다. 큰형도 막내와 함께 떠내려가기 시작하였다. 큰형과 막내가 떠내려가고 있는 관경을 본 둘째도 그 뒤를 쫓아 급류 속으로 뛰어들었으나, 형과 아우를 구하여 낼 수는 없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없이 흐르는 강물 위에 삼형제가 허우적거리며 떠내려갔으나 어느 누구도 구하여 줄 사람은 없었다.

멀리서 이 모습을 본 동네 아주머니가 급히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려 주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삼형제의 어머니는 허둥지둥 강가로 달려왔으나, 그 때는 이미 아들들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였다. 어머니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을 하였다. 그 후로 어머니는 매일 강가에 나와 아들들의 생전 모습을 그리며 세 아들들의 이름을 차례로 불러 보았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의 눈 앞에 신기한 모습이 나타났다. 어제까지도 보이지 아니하던 큰 바위 세 개가 강 한복판에 우뚝 솟아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죽은 아들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말할 수 없이 기뻐다.

이 소문을 전하여 들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세 개의 바위 중 제일 큰 바위에 제단을 만들고 해마다 한 차례씩, 동네 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보호하여 달라고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그때부터 이 세 개의 바위를 '삼형제 바위'라 불렀고, 지금도 삼형제바위가 있는 강에 가면 제일 큰 바위 꼭대기가 넓적하게 되어 있어서 제사를 지냈던 흔적을 엿볼 수가 있다.

② 삼형제 바위와 관련된 다른 전설이 황지리에서 전해진다. 주민의 제보에 따르면 어머니가 이곳에서 자식을 점지해 달라고 치성을 드린 후 삼형제를 얻었다고 하여 삼형제 바위라고 했다하며, 실제로 자식 점지해달라고 기도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한다.

4) 선바위: 지금의 전곡읍 전곡리 경원선 철도 전곡역에서 서북쪽으로 2km 가량 떨어진데 2리 뒷산 중턱에 '선바위'라고 불리는 괴암이 있다. 바위의 둘레는 약 50m 가량 되고 높이는 15m로,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유유히 흐르는 차탄천이 보인다. 이 바위에는 슬픈 이야기가 남아 있다.

송화가루 날리는 어느 4월 봄날, 옥색 저고리와 다홍치마로 곱게 단장한 선녀가 이 바위 꼭대기에 앉아 바느질 그릇을 옆에 놓고 섬섬옥수로 바느질을 하다가, 때때로 손을 멈추고 사면에 펼쳐진 기암 절벽의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고 있었다. 마침 이 마을에 사는 힘이 세고 인물도 뛰어난 이사람이라는 젊은이가 지나가다가, 바위 위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 선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반하여 발길을 멈추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세고 날랜 장

사라 할지라도 10여m나 되는 높은 바위의 꼭대기를 올라갈 수 없었다. 뛰어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떨어지기를 계속하면서 올라가려고 갖은 애를 썼으나 끝내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묘안을 내었다.

그는 바위를 찍어 버리기로 하였다. 비록 죽는 한이 있어도 단 한번이라도 선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까이서 보고 싶은 마음에서 도끼로 바위를 찍기 시작하였다. 바위가 거의 반으로 깎였을 때, 위에서 그 모양을 보고 있던 선녀는 자신의 몸이 위태롭게 되어 가는 것을 느꼈는지 몸매를 돌아볼 사이도 없이 급히 바느질 그릇도 내버린 채 하늘로 올라갈 채비를 하였다. 혼신의 힘을 다하여 더욱 빨리 도끼로 바위를 찍고 있던 이사랑 장사가 바위위를 올라다 보니 이미 선녀는 바위를 떠나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었다.

이사랑은 온몸의 맥이 풀리면서 마음이 상하여 손에 쥐고 있던 도끼도 내던지고 미친 사람 같이 날뛰며 하늘을 바라보면서 발버둥을 쳤다. 그러나 아무리 한숨 짓고 몸부림친들 소용 없는 일이었다. 그는 마침내 정신을 잃고 사방을 헤매다가 바위 앞에 흐르는 차탄천 푸른 물에 몸을 던져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다.

오랜 세월이 흐른 날에도 우뚝 서 있는 이 바위는 이사랑 장사가 도끼로 찍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밑부분이 거의 반쪽이나 깎여 넘어질 듯 서 있다고 하여 후세 사람들이 ‘선바위’라고 이름하여 이제까지 전해오고 있다.

5) 차탄천(수레여울):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을 흐르는 하천이다. 수레여울은 연천읍 차탄리의 공굴다리 북쪽 장진천에 있는 여울을 이르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고려 말엽 조선이 건국하게 되자, 고려의 진사 이양소가 조선 건국을 반대하고, 고려에 대한 충정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의 연천읍 현가리 도당골에 머물며 숨어 살고 있었다. 하루는 후일의 태종이 된 이방원이 이양소를 만나고자 왔다가 이 여울에서 교자가 빠졌기 때문에 ‘수레여울’ 또는 ‘수레울’이라고도 하였다. 그러다가 행정 구역명을 한자로 고쳐 적으면 서 ‘차탄’이라고 일컬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6) 학소정 전설: 학소정은 음터 북쪽, 현무암 절벽 위에 있던 정자로 일노정 김양남이 고려의 신하로써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은거한 후 지은 조그만 초정이다. 전설에 따르면 이 정자를 지은 뒤부터 주변에 학이 날아들어 동지를 틀고 일노공과 벗하며 놀았다 하며, 그래서 이름이 학소정이다. 그가 죽은 뒤 학들도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한다.

### (3) 지명 유래

1) 어수물: 태종이 은대리를 지나다가 물을 마셨다고 하여 붙은 이름. 3번 국도변에 있는 은대4리에서 가장 큰 마을. 조선 개국 초 태종 이방원이 고려 신하로써 절조를 지키며 연천읍 현가리 도당골에 은거하고 있던 금은 이양소를 만나기 위해 연천으로 친행하던 중, 이곳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마셨다 하여 이 우물을 ‘어수물’로 명명했다 한다. 마을의 지명은 이로부터 유래한다.

2) 샛통재: 어수물 동쪽, 한탄강변에 있는 마을. 전곡과 연천읍 통재의 사이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6·25 전에는 이천서씨의 집성촌이었다 하나,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외지로 떠났다고 한다.

3) 움터(음터): 한탄강과 차탄천이 만나는 합수지역을 부르던 이름. 현 은대3리의 유래가 된다.

4) 선바위: 현 은대2리에 위치한 바위. 차탄천변에 있다. 선녀를 사랑한 남자의 슬픈 사연을 간직한 곳이다.(은대리 마을의 전설 선바위 참조.)

5) 삼형제 바위(三兄弟岩, 땡땡바위, 용바위): 한탄강과 차탄천의 합수 지점. 은대리와 남계리의 경계에 있는 바위. 크지는 않지만 기이하게 생긴 바위 세 개가 나란히 늘어서 있다. 세 개의 바위 중 한탄강에 붙어 있는 바위 위에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하며 지금도 그 터가 남아 있다.(은대리 마을의 전설 삼형제 바위 참조)



그림 42 남계리 쪽에서 바라본 삼형제 바위 그 가운데에 마을 주민이 물고기를 잡고 있다.

6) 가사평(가시평): 전곡읍 은대리와 전곡리, 연천읍 통현리에 걸쳐 있는 연천군 제일의 평야이며 곡창지대. 점토질 성분으로 된 이 곳의 토질이 이른 봄 해빙기나 여름철 우리 때가 되면 인마의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질고 미끄러워 예전에 한탄강을 건너서 통현리까지의 20리 별판 길을 통과하자면 기운이 다 빠지고 탈진상태가 되었다는 사연을 간직한 곳이다.(은대리 마을의 전설 가사평 참조)

6·25가 끝나고 수복지구가 되면서 사람들이 차츰 입주하고부터는 진 땅 때문인지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사는 곳’이란 별칭도 붙게 되었으나, 농지정리가 되고 도로가 포장되면서부터 잡초가 무성하던 황무지가 연천 제일의 곡창지대로 변하여 가을이면 누런 황금별판이 장관을 이루는 곳이 되었다.

7) 서나들이: 현 은대초등학교 부근에 있던 차탄천변을 부르던 이름. 빨래도 하고 생활 용

수도 가져다 썼던 곳이라고 한다. 이곳에 왕림리로 건너가던 돌다리가 놓여 있었으며 현재는 교량이 돌다리를 대체하고 있다.

8) 차탄천(수레여울):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을 흘러 은대리 남쪽에서 한탄강과 만나는 하천이다.<sup>38)</sup> 원래는 행정상의 명칭은 장진천이나 태종·이양소와 관련된 전설로부터 유래되어 차탄천이라고 부른다. (은대리 마을의 설화 참조)

은대리 주민의 제보에 따르면 차탄천은 한탄강 못지않은 은대리 사람들의 생활터전이라고 한다.

9) 두루봉: 은대4리에서 한탄강쪽으로 내려가는 데 위치한 산.

10) 횃가마골: 은대리 왼쪽에 위치한 마을. 일제 강점기 때 돌을 구워서 회를 만들었던 곳이다.

11) 배터: 은대4리의 한탄강변에 위치한 배터. 이곳의 맞은 편이 웃거저울이며 배로 건너다녔다고 한다.

12) 학소정: 음터 북쪽. 현무암 절벽 위에 있던 정자로 일노정이 고려의 신하로써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은거한 후 지은 조그만 초정이다. 마을 주민의 제보에 따르면 달리 학수쟁이라고도 불리며, 활터로 기억하고 있다.

13) 새말: 은대4리에서 한탄강 쪽으로 가는 지역. 새로 마을이 새로 생겼다고 한다.

14) 뫼안: 여수물 남쪽에 있는 마을. 확 트인 가사평에 자리잡은 은대리의 여러 마을 중에서 우묵한 골짜기 안에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마을에서는 달리 모안이라고도 부르는데, 뫼안의 발음이 와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15) 음터: 은대리 성지 북쪽, 우묵한 지형 안에 있는 마을. 조선 개국초 태종과는 동학동방이며 오랜 교유를 했던 고려진사 일노정 김양남이 고려가 망하자 망국의 한을 달래며 불사이군의 절개로 은거했다 하여 '은터'라 했던 곳이 지금의 '음터'로 음이 변하였다 한다. 지금도 주위에는 김양남의 사적이 서려 있는 학소정, 국사봉 등의 지명이 남아있으며, 6·25 전에는 안동 권씨가 80여호 세거했던 마을이라 한다.(일노정 김양정에 대해서는 2.3.4 연천의 인물 참조)

16) 은대리 지석묘군: 은대리 신양농원 내에 위치한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군이다. 제보에 따르면 처음에는 고인돌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다루었으나 나중에 지석묘인 것을 알고 군청에서 관리를 했다고 한다. 이곳의 고인돌은 모두 2기인데, 그 중 1기는 모서리 부분이 절

---

38)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연천 남쪽 5리에 있는데, 물의 근원은 강원도 철원부 서쪽 고을파(古乙坡)이고 남으로 흘러 양주(楊州) 유탄(楡灘)으로 유입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지도서』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광여도』, 『여지도』에는 연천 남쪽으로 흘러가는 하천으로 표기되었으며, 『팔도군현지도』, 『조선팔도지도』에서는 한탄강과 합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천문화원 편, 『연천 향토사료집』, 연천군청, 2003.

단된 상태이고, 2기는 뚜껍돌이 양분되어 부서져 있다.

17) 은대리 토성: 전곡리 선사 유적지의 서쪽 은대리 지역에 위치한 토성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름 없는 옛 성터로 알려졌으며, 특히 강변에 위치하고 있어 마을 주민들의 쉼터 또는 아이들의 놀이터로 활용되었었다. 가끔 토기 류가 나오기도 했는데, 은대리를 비롯한 전곡일대는 과거로부터 유명한 옹기터가 많아서 그 중 하나로만 여겨졌다고 한다. 그러다가 90년대 중반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고구려 성터라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한다.<sup>39)</sup>

18) 물거미 서식지: 은대리 북쪽 늪지에 위치한 물거미 서식지. 물거미는 전 세계에서 1종 밖에 없는데 주로 동아시아에 서식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희귀종이다. 1999년 천연기념물 412호로 지정되었다.(자세한 내용은 2.3.2 연천의 지리와 생태 참조.)

18) 고로지: 은대리 남쪽, 전곡리와 경계가 되는 긴 개울로, 지형이 깊고 우묵하여 예전에 문둥이가 많이 살았다 한다. 현재 위생처리장이 있다.<sup>40)</sup>

19) 새점고개: 선바위 남쪽에 있는 고개. 장진천 건너에 있던 군남면 황지리의 새점으로 가는 고개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20) 새점나루: 선바위 서쪽, 장진천에 있던 나루. 예전에는 물이 많아 배로 통행을 했으나, 지금은 수량이 적어 돌징검다리가 놓여져 있다.

21) 개와막: 선바위 부근에 있는 마을. 일제 강점기 때 기와를 구웠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며, 현재 은대2리의 중심마을 이다.

22) 명천동: 선바위 북쪽에 있던 마을. 옛 양주군 영근면의 명천리 마을이 있던 곳이다.

23) 네즈뫼: 명천동 북쪽에 있었던 마을. 옛날에 네가구가 모여 살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24) 용모소: 서나드리 남쪽, 장진천에 있는 소(沼). 장진천 중앙에 위치한 이 소는 물속에 용이 살고 있다는 용굴이 있고, 그 굴 위에는 큰 용의 모양을 닮은 바위 2개가 있어 운치를 더해주는 곳이다. 현재 이 부근에는 풍천관광농원이 위치한다.

---

39) 은대리성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582-52번지 일대의 한탄강변에 위치한다. 유적을 감싸고 남서향하는 한탄강은 곧 임진강에 합류하고, 서울과 원산을 잇는 교통로로 활용되어 왔던 추가령 구조곡도 주변을 지나고 있다. 따라서 수로와 육로 어느 쪽으로든 교통이 아주 편리하여 주변지역으로 이동 할 수 있어 전략적 요충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 유적은 1995년에 발간된 『연천군사료집』에 의해 처음 알려지게 되었고, 그 이후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발굴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추출된 유물이나 역사적 정황으로 보아 고구려의 성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천은대리성은 연천호로고루, 연천당포성과 함께 임진강과 한탄강이 지류와 만나 형성하는 삼각형의 대지위에 조성된 독특한 강안평지성(江岸平地城)으로 임진강이 국경하천역할을 했던 삼국시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귀중한 문화유적이다.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참조.

40) 이하의 내용은 『연천 향토사료집』(연천문화원 편, 2003)에서 발췌하였다.

25) 서나드리: 은대리에서 군남면 왕림리의 지루개와 서산으로 건너 다니던 나루터. 현재 콘크리트다리가 나 있다.(나드리는 나루의 방언임)

26) 물푸레쟁이: 네즈뫼 북쪽에 있던 물푸레나무 정자. 6·25 전까지 큰 물푸레나무 고목이 각담 위에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7) 별말: 은대리 서쪽, 별판 끝에 새로 생긴 마을. 현재 은대1리 지역이 된다.

28) 샛통재: 어수물 동쪽, 한탄강변에 있는 마을. 전곡과 연천읍 통재의 사이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6·25 전에는 이천서씨의 집성촌이었다 한다.

29) 바래(발애): 뒀안 남쪽에 있는 마을로 유래는 정확하지 않으며 형제간의 우애담이 전해진다.(은대리 마을의 설화 바래 참조)

30) 주주물: 현 전곡고등학교 북쪽에 있던 유명한 우물. 지금은 매몰되어 없어 졌다.

31) 흙구덩이: 주주물 동쪽에 있던 큰 구덩이. 일제 강점기 때 전곡리 높은여울에 있던 점터에서 이 곳의 흙을 채취하여 용기를 구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32) 안말(안전곡): 전곡읍사무소 북쪽에 있는 마을. 우묵하게 생긴 지형의 안에 있는 마을이 되어 지어진 이름이다.

33) 구호주택: 현 전곡읍사무소 북쪽에 있는 마을. 6·25 직후 피난민을 구호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주택이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34) 모퉁이: 현 전곡시가지 북쪽, 주유소 앞에 있는 사거리의 옛 지명.

35) 비석거리: 구호주택 서쪽에 있던 예전의 통행로. 이 곳에 일제 강점기 때 까지도 무쇠 비석 1기가 있었다 하나, 6·25 이후로 행방을 알 수 없다 한다.

36) 구전곡: 예전에 전곡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으로, 지금의 농지개량조합 청사의 부근이 된다.

37) 한양골고개: 현 전곡시내에서 음터로 통하는 고개.

38) 공동묘지: 한양골고개 남쪽에 있는 일제 때 만들어진 공동묘지.

#### (4) 6.25 경험담

\* 현지조사에서 마을의 6.25 경험담은 채록할 수 없었다.

### 3.3.10 전곡읍 전곡리(全谷里)

<제보자>

김기식(78): 전곡6리 노인회장. 40년 간 거주.

석연필(75): 전곡6리 마을이장. 60년 이상 거주(14,5세 무렵에 정착했다고 한다.)

천진상(75): 전곡리 토박이.

임철중(74): 마을 토박이. 전 연천 문화관광청 직원.



#### (1) 유래 및 생활

##### 1) 유래

본래 양주군 영근면의 지역으로, 땅이 적갈색 점토질 성분이 되어 봄철 해빙기나 여름 우기 때가 되면 사람의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몹시 질다 하여 '진골'이라 불리웠는데, 조선 광무 10년(1906) "칙령 제 49호"인 지방구역정리에 의하여 하나의 법정리로 승격되면서 '진골'을 지금의 '전곡리'로 한자이름화 하였으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연천군에 편입되면서 기존의 사랑리와 고탄리를 병합하여 지금의 범위를 갖추었으나, 1945년 8·15 광복 직후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6·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6개의 행정리와 108개 반, 6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고, 연천군 내 최고의 인구밀집 지역이며 교통의 중심지이다.<sup>41)</sup>

##### 2) 마을의 생활

① 한탄강과 전곡리: 전곡리는 은대리 남쪽, 한탄강의 오른쪽에 위치한 지역이다. 오른쪽으로 은대리와 전곡리, 왼쪽으로 장탄리를 끼고 남으로 흐르던 한탄강은 전곡리의 아래쪽에서 다시 물길을 틀어 시계방향으로 돌린 후 곧은 여울로 남계리를 지나 임진강과 합수된

41) 연천문화원 편, 『연천 향토사료집』, 연천군청, 2003.

다. 따라서 전곡리는 한탄강이 도는 방향의 안쪽에 위치해 있다. 맞은 편, 즉 한탄강의 남쪽에는 고능리가 위치한다.

② 전곡리 사람들의 삶: 대부분의 한탄강 주변의 마을과 마찬가지로 이곳의 토질 역시 현무암 지대라 물이 쉽게 빠져 나가고 저장하지 못해 농토가 척박했다.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없이는 못산다”는 말이 있다고 할 정도이다. 장화를 신어도 흙을 밟으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질척한 진흙이 많았다고 한다. 대신에 이러한 진흙은 기와나 옹기를 굽는 최적의 토양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기와나 옹기를 굽던 곳들이 많았다고 한다. 한편, 수로로는 임진강에서부터 출발한 새우젓 배들이 한탄강을 따라서, 육로로는 강원·평강 지역의 산물들이 경원선에 실려 이곳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예부터 상업이 활발했다고 한다. 실제로 새우젓을 실은 배가 임진강에서부터 올라와 이곳에서 옹기나 명태 등과 교환했다고 한다. 또한 지금의 한탄강 다리가 있는 부근에 있었던 배터거리에서 몰래 수영을 해서 남쪽 고능리로 내려가 장사를 하기도 했다. 물론 남북으로 오가던 행위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적발되면 엄벌을 받았다. 실제로 제보자(천진상)의 부친께서 자주 장사를 하다가 자주 구치소에 구금되기도 했으며, 또 다른 제보자(임철중)의 부친은 남쪽을 오가며 장사를 하다가 붙잡혀서 전기고문을 당한 후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③ 전곡 지역 한탄강의 모래사장: 한탄강의 다른 지역도 그렇듯 전곡리의 한탄강변 역시 예로부터 모래사장이 많았다. 현 한탄강 역쪽에 위치한 사랑동(사래이), 그 아래쪽의 사무랭이 등이 모두 모래와 연관된 이름들이다. 위로부터 점터(옹기터)가 있던 높은 여울, 그 아래 한여울, 그 아래 고사개도 모두 모래사장이 있었다. 물도 매우 맑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이 주상절리여서 경치가 빼어나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도 자주 한탄강에서 멍을 감거나 물고기를 잡았다고 한다. 주로 뱀장어와 쏘가리 자라, 등을 많이 잡았다. 지금은 대부분 유실되었다.

④ 전곡리 유적과 전곡리 주민의 생활: 전곡리 유적은 세계적으로도 귀중한 구석기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된 지역으로 세계적으로도 고고학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는 한편으로는 전곡리 사람들의 자부심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불편함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집을 짓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수리만 하려고 해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만큼 제약이 심했다.

⑤ 전곡리 유적: 1978년 전곡리의 한탄강변에서 처음으로 구석기 유물이 확인된 이래 엄청난 양의 유물이 발견되었으며 많은 지점들이 발굴되었다. 한탄강과 임진강변에 분포하는 이 유적들은 한국 구석기 문화의 대표적인 석기공작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아슐리안형의 주먹도끼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세계 구석기 문화 가설을 허물어 뜨리는 중요한 증거가 된,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석기공작들이다.

이 유적의 최초 발견자는 그렉 보웬(Greg Bowen)이다. 당시 미공군 하사관으로 우리나라에 와 동두천 미군 2사단 헬리콥터장에서 근무하던 그렉 보웬(Greg Bowen)은 미국 인디애나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하다 입대한 사람이었다. 그는 1978년 1월 20일 부인과 함께 한탄강 유원지를 거닐다가 주먹도끼 한 점을 발견하고 찬찬히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드디어 주먹도끼 3점, 가로날도끼 2점, 굽개 1점을 발견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전곡리 유적은 1979년 3월부터 서울대학교박물관 주관으로 발굴이 시작되었다. 서울대 김원룡 교수팀은 보웬이 채집했던 제1지구와 제2지구에서 다량의 석기를, 영남대 정영화 교수팀은 제3지구에서 박편과 망치돌, 석재 부스러기 등을 채집했다. 이 유물들은 모두 전기구석기시대에 속하는 아슐리안기 유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아프리카와 유럽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것으로 여겨지던 주먹도끼가 전곡리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은 동아시아 구석기문화가 서구지역 못지않게 발달돼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이다.

전곡리 유물의 중요성이 확인되면서 이듬해 2월에는 고고학계·지질학계 등 관계분야가 조사단을 구성했고, 서울대학교 박물관 주관에 국립박물관, 문화재연구소, 각 대학 박물관 등이 대거 동참, 1979년부터 1983년까지 모두 여섯 차례, 그뒤에 다시 1992년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발굴했다. 구석기 유적 발굴로는 해방 이후 가장 큰 조사작업이었고, 우리나라 구석기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5천여 점의 유물을 발견하는 성과를 올렸다.

뿐만 아니라 이들 다량의 유물들은 유럽이나 아프리카 등 아슐리안 형태의 석기와 비슷한 구석기 유물이어서 이전까지 “동북아시아는 유럽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견된 전형적인 주먹도끼가 없다”는 학설을 뒤집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1981년 10월 전곡리 구석기 유물은 멕시코에서 열린 국제 선사·원사 고고학회에서 공식으로 인정을 받음으로써 외국의 고고학 교과서에 올랐으며, 동북아 구석기 문화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곡리 한탄강변에 이르는 선사유적지는 현재 편의상 5구열로 나뉘어져 있다. 제1·2·4지구는 해발 약 50m 정도의 한탄강변 절벽을 낀 작은 언덕 부근이고, 제3지구는 좀더 평평한 내륙에 자리 잡고 있으며, 1979년 10월 2일 전체 23만 3,282평이 사적 제268호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전곡리 유적이 발견되면서 남한지역의 구석기 유물은 약속이나 한 듯 여기저기서 깨어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20여 곳에 가까운 유적이 확인되었는데, 현무암 분출로 크게 넓어진 한탄강과 임진강 유역에 특히 구석기 유적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988년에 확인된 파주시 주월리와 가월리 유적 등 한탄강과 임진강 주변에만 무려 15군데 이상의 전기구석기 유적지가 확인된 것이다.<sup>42)</sup>

## (2) 설화

### 1)

한탄강역 동쪽, 강변 충적대지 위에 있던 백제초기 대형 돌무지무덤을 부르는 이름. 전설에 따르면 마귀할미가 치마폭에 돌을 날라다가 이곳을 쌓았다고 한다. 마귀할미는 마고할미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 강점기 때 이 부근을 개간하면서 인멸되어 지금은 아무런 흔적도 남아 있지 않다.

### 2) 송시열에게 비상을 처방한 허미수

유명한 뭐, 뭐야. 저 남인의 괴수, 남인의 괴수. (조사자 : 남인의 괴수요?) 남인 괴, 말하자면 시방 당수 모양으로 남인의 괴수, 허미수 산수가 거기 있지. (조사자 : 허미수요?)

42) 한국문화유산답사회 편, 답사여행의 길잡이9권, 돌베개 참조. 답사 과정에서도 해당 내용이 제보된 바 있으나, 구연이 매우 간략하고 출처 및 경로가 불분명하여, 관련 내용이 보다 온전하고 객관적 근거를 갖춘 문헌 기록을 인용하였다.

어. 허미수. (조사자 : 그 사람에 관련되서 들으셨던 얘기 있으세요? 그 분이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할아버지?) 아 옛날에 남인에 정승 지내고 말하자면, 국무총리 같은거 지내시고, 아 옛그제 나오는데 그 분이 허목썬데, 허목썬데 시방 사학인들도 허목을 동양의 첫째 치는 놈이야. 글이 많으시구. 여 아직 그 정사를 듣자면은 인제 남인 나가 좌우하다시피 했는데, 송시열씨가 남인 설라무네 인제 남인을 말하자면 죄 목살시켜논 거야, 목살시켜놨는데. 그냥 서로 적이지. 그냥 모두 원수야 아주 아주 원순데, 어 송시열이 오래살려구 자수를 했어요 자수. (조사자 : 자수?) 자수. 오줌을 내 오줌을 내가 먹었다 이거야. (조사자 : 아 그런게 그런 거예요?) 응. 내 오줌을 내가 자시는 게. 오줌을 내가 마시니까 이게 오줌 거태가 창자에 가서 잔뜩 끼었거든. 오래살려고 하던 것이 이제 그게 병이 됐어.

거 이제 그이도 퇴재상 정승, 두 퇴재상, 허미수도 퇴재상. 이제 그런데. 송시열이가 이제 알음이 있어 암만 적이었어두, 적이었어두, 이 이거 의실이는 가르쳐 준다. 죽고 사는데는 가르쳐 준다. 그 아들더러 가보라 그랬어. 찾아가봐라. 그 인제 아들이 의실은 그길로 왔지. 지아버지 지의하고 그냥 적인데 오기 싫은데 딱 와서 문 밖에설라미 그 문밖에서 근복을 하고 “지가 아무개 아들 아무감니다.” 이러니까, “어 올줄 알았다.” 이려 어 올줄 알았다. “그 약이 없다. 약이 없는데, 약이 한 가지 있긴 있지만 니가 그걸 쓰겠냐?” (청취불능) 비상 스 (세) 도(돈)를 먹으랬어. 비상 스 도. 어 (조사자 : 죽는 약이 잦아요?) 그렇지. 죽사지, 뭐. 뭐 “그 아님 그 외는 없다.” 그랬어. 그, 그래가 그냥 돌아간거야. 그 송시열씨 아들이, 정승 아들이지 이제, 아들이. 그래 도로 돌아갔는데, 뭐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디?” 하니깐 참 안 댈 수는 없고, “아이 안 갈 꺾 갔시오.” “안갈꺾 갔다니 이놈아. 바로 말해라.” 이랬거든. 그러니깐도루 “비상 돈발을 잡수랍니다.” 그러니깐도루. 그 서 돈을 갖다가 발을 줄여서 돈발을 잡습요. “가져오너라. 가져오너라.” 그져 가져오라니 누구 명령이라 안가져 올 수 없어. 그 가져왔는데 그 자셨단 말이야. 자시니깐 좀 낫거든.

이거 또 한 번 가봐라. 창자가, 이 창자에 독태가 잔뜩 끼어있으니까. 이제 돈단을 먹었으니까 그냥 똥너 나가는 데로만 똥너 나갔단 말이야 창자가. 그렇게 돼서 골고루 다 똥러나 갔어야 할 텐데, 이제 똥러 나간데 좀 낫기는 한데 도루 아프다 이기야. 또 와바라니까 또 왔어. 와서 “좀 낫긴 한데 채 낫진 않습니다.” 그러니 서로 얼굴을 안보는 거야. 서로 안보구서 그냥 문밖에서, 그런데 “애비 식이는 놈이 뭐하러 왔냐?” 이기야. (조사자 : 벌써 다 알아.) 응. “이제 죽는다. 여 임마 서 돈을 맥였으면 그냥 확 똥러 나갔을 건데, 나가서 살았을 건데.” 희양 창자가 얇게 맥인데 얇게 맥이구, 그냥 붙어있는덴 붙어잇는 지래. 해필 약이 왜 그 약 있는 데로만 같거나 이말이야. 약 있는 데로만 가면 그냥 똥러서 죽을 것 아니냐. 죽는다. 그 그걸루 돌아갔다는 거야. 그 미수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자식이 애비 잡았구나. 서 돈을 그냥 썼으면 그냥 확 똥러 나가설람 살았을 건데.” 그 뭐 비상이라는 게 먹으면 죽는 약인데 반밖에 안먹었으니깐 안들어오고 그 질미로 돌아갔다이기야. (조사자 : 그러니깐.) 어 그냥. (조사자 : 기왕 얘기할 걸 다하지.) 그렇지. 돌아갔지. 애비가 사람 잡는다구만. 바로 주는데 가르쳐 주는 대루 약을 썼으면 살았을 걸. 죽었던 이런 말이 있어.<sup>43)</sup>

### (3) 지명 유래

43) 조흥욱 외, 『경기북부구전자료집2-연천군 편』, 박이정, 2001, 233쪽.

1) 온골: 현 전곡리 시내 지역을 부르던 이름.

2) 좌살바위: 현 장탄리에 위치한 바위로 달리 선봉 바위, 풀무산, 처녀바위라고도 한다.(장탄리 지명 유래 참조)

3) 전곡리 선사유적지: 현재의 한탄강역 오른쪽에 위치해 있으며 구석기 유적이 다량으로 발굴된 곳이다.(전곡리 마을의 생활 참조)

4) 전곡리 오토캠핑장: 한탄강역과 전곡리 선사유적지 사이(사랑이) 한탄강변을 따라 조성된 캠핑장. 과거에는 이곳에 모래사장이 조성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없다. 1977년 3월 31일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으며, 최근에 오토 캠핑장으로 조성되었다. 위락 및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관광·피서인파가 끊이지 않는 연천군의 명소.



그림 44 한탄강 오토캠핑장의 안내지도.

5) 사기골: 한탄강 건너 고능리 쪽에 위치한 옹기 굽던 곳. 사기점이라고도 한다.

6) 벽돌공장: 마을 회관에서 한탄강 쪽으로 내려가던 도중에 있던 공장. 예부터 옹기나 사기를 구웠던 공장이 있었으나 6.25 이후 벽돌공장이 들어섰다.

7) 배터거리: 현재 한탄강 철교가 있던 부근. 예전에는 그곳에 나루터가 있어서 배가 사람이나 나무짐 심지어 차도 싣고 남쪽의 고능리와 오갔다고 한다.

8) 사랑동: 현재의 한탄강역에서 선사 유적지 사이에 있던 마을을 이르던 이름. 토질이 모래로 되어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사랑이 사라이라고도 불린다. 6·25 전에는 영양 천씨가 30호 살았던 곳이다.

9) 밤나무골: 한탄강 철교 위쪽에 한탄강변에 위치한 지역으로 나루터가 있었던 곳이다.

10) 점터(옹기터): 한탄강 철교 위에 청산면 대전리와 마주보던 한탄강변의 높은 여울 옆에 있었던 마을. 8·15 광복 전까지도 옹기를 굽던 요업이 번창했던 마을이다. 당시에는 서해, 강화 등지에서 임진강을 통하여 한탄강까지 올라온 새우젓, 소금배들이 이 곳의 옹기·곡물 등과 물물교환을 통한 거래가 이루어져 장이 형성되었던 곳으로, 6·25 전에는 전곡 내에서 가장 큰 마을이었다 한다.



그림 45 지금은 밭으로 변한 과거의 점터. 뒤에 보이는 교각이 고탄교이다.

11) 높은여울: 점터 옆의 한탄강변, 현재의 고탄교 부근이다. 강물이 높다고 해서 붙은 이름. 지금은 고탄교 가설과 보를 막아 여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제보자(천진상)에 따르면 위에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12) 한여울: 고탄교를 경계로 높은 여울 아래쪽을 부르던 이름이다. 넓은 여울이라는 뜻이다. 제보자(천진상)에 따르면 아래에 있다고 해서 한여울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13) 고새기(고사기): 현재의 사랑교에서 한탄강을 따라 내려가다가 휘어지는 부근, 황촌말의 남쪽 강변에 있는 낭. 제보자(최병수)에 따르면 세종 실록에 세종 임금이 고삭탄(高朔灘)을 건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sup>44)</sup> 고사기(고새기/국사개)는 고삭(高朔)의 방언이거나 음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44) “양전과 세자는 배를 타고 고삭탄(高朔灘)을 건너고, 호종(扈從)하는 신료(臣僚)와 짐바리는 다리로 대탄(大灘)을 건넜다. 임금이 가사평(加士平)에서 사냥하고 연천(連川) 송절원(松折院)에 머물렀다.(세종 24년 임술(1442.정통 7) 을축일(3월4일)” 최병수, 『이야기 연천』, 연천군청, 2015, 111쪽에서 재인용.



그림 46 고새기의 모습

- 14) 고탄교: 전곡리와 장탄리를 잇는 교량. 과거에 고탄교에서 한여울 쪽으로 조금 더 내려간 곳에 배터가 있었다.
- 15) 성주괘(개): 전곡역 동남쪽, 한탄강 벼랑 위에 있는 마을.
- 16) 밤나무골: 성주개 남쪽에 있는 골짜기 이름. 예전에 밤나무가 많았던 곳이다.
- 17) 낚은터: 원모퉁이 서쪽에 있는 터. 현재 전곡리 선사유적지 앞쪽.
- 18) 성안: 낚은터 안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현재 전곡리 구석기유적관 북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원형의 토성이 있다 하여 '성안'이라 불렸으나, 현재 지표에는 토성으로 확실할만한 아무런 유물도 남아 있지 않다.
- 19) 합수지: 한여울 아래 포천에서 흘러드는 신천과 한탄강이 합수되는 곳.
- 20) 한여울: 한탄강역 동쪽에 있는 한탄강의 큰 여울.
- 21) 판덩골: 높은여울 남쪽, 경원선 굴다리 부근의 이름이다.
- 22) 서덜말: 현 전곡역 서북쪽에 있던 마을. 6·25 전까지만 하여도 현무암으로 된 많은 양의 큰 돌들이 주변에 널려 있었다 하여 돌이 많이 있는 곳을 뜻하는 말인 '서덜'에서 뜻을 따와 지어진 이름이다. 지금은 이곳이 전곡시내의 중심가가 되어 있다.
- 23) 전곡역: 높은여울 남쪽, 경원선에 있는 기차역.
- 24) 밤나무골: 성주개 남쪽에 있는 골짜기 이름. 예전에 밤나무가 많았던 곳이다.
- 25) 사무랭이: 낚은터 남쪽, 한탄강변에 있던 넓은 모래사장. 한탄강이 범람하면서 쌓인 모래와 자갈이 넓은 퇴적층을 형성하였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지금은 골재채취로 인한 하

상변경으로 형태가 변해 있어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사무랭이 태생의 제보자(천진상)의 증언에 따르면 과거에는 모래가 가득한 곳이었다고 한다.

26) 한여울 다리: 한탄강 국민관광지에서 청산면 초성리로 건너는 한탄강 다리. 현재 이곳에는 경원선 철교와 2개의 콘크리트교량이 있다.

27) 전곡리 백제적석총(전곡읍 전곡리 121): 한탄강 국민관광지 내에 소재하는 경원선의 간이역인 한탄강역에서 동쪽으로 약 100m 거리에 있는 대형 돌무지무덤이다. 사랑동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예전에 마귀할미가 치마폭에 돌을 날라와 하루만에 쌓았다 하여 이 무덤을 '마귀할미각담'이라 불렀으며, '서낭당자리'라고도 하여 부근에서는 신성시했다고 한다. (전곡리 마을의 설화 마귀할미각담 참조)<sup>45)</sup>

28) 말무덤자리: 전곡 남쪽에 있던 고분. 예전에 말을 묻었다 하나, 최근에 이 부근을 밟으로 개간하여 멸실된 상태이다.<sup>46)</sup>

29) 원모통이: 말무덤 남쪽에 있는 모통이.

30) 낚은터: 원모통이 서쪽에 있는 터.

31) 부처낭: 사랑동 북쪽에 펼쳐진 현무암 석벽. 전설에 의하면 예전에 이 곳에 절이 있어 부처를 이 석벽에 모셨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32) 큰솔밭산(진솔밭산): 부처낭 위에 있는 둔덕. 6·25 전까지도 이 곳에는 큰소나무가 우거진 넓은 군락이 있었다 한다.

33) 동섬: 사랑이 서쪽, 한탄강 가운데에 있던 섬. 지금은 하상이 변하여 없어져 버린 상태.

34) 새포촌: 동섬 북쪽, 한탄강에 있는 마을. 일제 초기에 새로 형성된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지금은 한탄강 국민관광지 내에 있어 많은 위락시설이 들어서 있다. 6·25 전에는 15호가 거주했다 한다.

35) 고로지: 전곡시가지 동쪽에 있는 길고 협곡처럼 생긴 개울. 은대리와 경계가 된다.(은대리 지명유래 고로지 참고)

---

45) 현재 육안으로 확인되는 적석부는 한탄강이 흐르는 남쪽면의 무덤보호시설이 동서로 약 10m 정도가 원형에서 교란된 형태로 남아 있고, 그 아래로는 수차례의 한탄강 범람으로 유실되어 드러난 절리면에 무덤의 기반부를 이루고 있을 두꺼운 사력 퇴적층이 있다. 이곳은 일제 강점 초기에 경원선의 부설과 6.25 이후 무분별한 개간, 도로의 매장주체부 관통으로 인하여 많은 양의 냇돌들이 외부로 옮겨져 이미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멸실된 상태이며 관련유물 역시 수습되지 않는다. 이 적석총 주위에 인접해 있는 대전리 산성, 초성리 토성, 은대리 토성 등의 삼국 초기의 백제계 유적들과의 역사고고학적인 연관성으로 비춰볼 때, 군내 삼곶리, 황산리의 적석총 양식과 동일한 2~3세기 경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달리 마귀할미각담이라고도 불린다. 연천문화원 편, 『연천 향토사료집』, 연천군청, 2003.

46) 이하의 내용은 『연천 향토사료집』(연천문화원 편, 2003)에서 발췌하였다.

#### (4) 6.25 경험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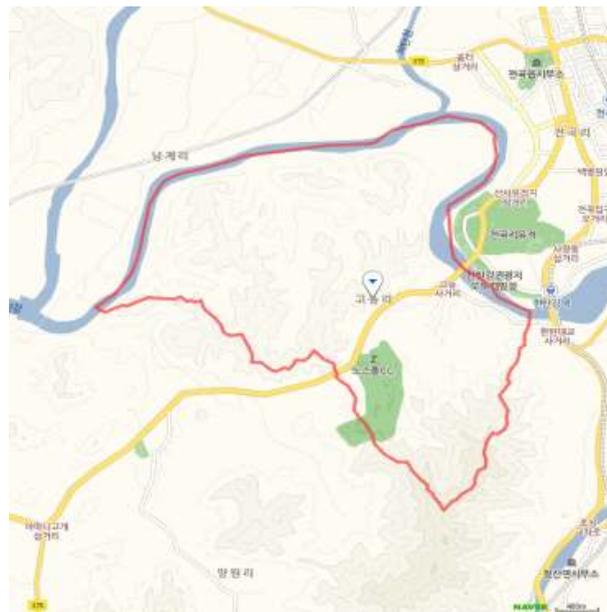
##### 1) 할아버지의 6.25 전쟁 이야기

제보자는 6대조부터 이곳에 살던 토박이이다. 11살에 6.25를 만났다고 한다. 그 1년 전부터 강을 사이에 두고 총격전이 자주 벌어졌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제보자는 사랑동에 살고 있다가 잠시 고문리 재인폭포 근처의 골짜기에서 숨어 있었다가 고향에 돌아왔다. 그러다가, 1. 4 후퇴 즈음에 국군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함께 의정부-천호동을 거쳐 충남 아산까지 피난을 간 후 2년간 거주하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다.

##### 2) 임철중 할아버지의 6.25 전쟁 이야기

제보자는 고려 말부터 조상 대대로 이곳에서 삶을 살아온 토박이이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연천 사람들은 인민군과 국군이 교대로 진격하고 후퇴하는 동안 내내 피신했다 돌아오기를 반복했다고 한다. 언젠가 한번은 인민군이 3번 국도로 진격하는데 삽 달린 불도저도 사람들을 깔아 뭉개면서 지나갔다고 한다. 전쟁통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는데, 심지어 그 이후에도 강에서 고기를 잡다보면 해골이 수시로 나왔다고 한다. 또한 당시에는 전곡리가 이북지역이었기 때문에 국군이 진격하면서 인민군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이북으로 피난을 떠났다고 한다.

#### 3.3.11 전곡읍 고능리(高陵里)



##### (1) 마을의 유래 및 생활

본래 양주군 영근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기존의릉동리(陵洞里)와 고산리(高山里)를 병합하여 고산과릉동의 이름에서 한자씩 따 고릉리라 하여 연천군에 편입되었고, 1945년 8.15 광복과 동시에 3.8선 북쪽 지역이 되어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6.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1개의 행정리, 3개 반, 1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 (2) 설화

1) 국사봉(國思峰): 지금의 전곡읍 고릉리 넘잠고개 북쪽에 있는 산봉우리. 이 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얽혀 전해지고 있다.

연천 지방 강릉 김씨의 중시조인 일로 김양남은 1382년(고려는 우왕8)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조선 태종이 된 이방원과 대과에 같이 급제하였다. 당시 문장과 학식으로 망명이 높았던 김양남은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매 불사이군의 충절을 지키고자 지금의 전곡읍 은대리에 은거하였다.

그리고 고려의 망국을 슬퍼한 나머지 매일 이 산에 올라 고려의 서울인 개성을 향하여 망월레를 올렸다. 뒤에 세상 사람들은 그의 충절을 추모하여 이 산봉을 ‘국사봉’이라고 불렀다.<sup>47)</sup>

## (3) 마을의 지명 유래

1) 병바위: 도감포 동쪽, 한탄강 옆에 있는 바위. 예전에 부영이들이 서식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2) 작은굴타리: 병바위 동쪽에 있는 골짜기. 양원리의 큰굴타리에 상대되는 이름이다.

3) 빨래나드리: 고릉리에서 군남면 남계리로 건너 다니던 나루터.

4) 물개골: 빨래나드리 남쪽에 있는 골짜기. 한탄강의 옆에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5) 능안: 빨래나드리 남쪽에 있는 골짜기. 조선초에 고려 신하로써 절개를 지킨 일노정 김양남의 묘가 있어 지어진 이름이다.

6) 일노정 김양남 묘: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에 있는 고려 말의 충신인 김양남(金楊南)의 묘. 김양남(金楊南, ?~?)은 고려의 충신으로 1382년(우왕 8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진사가 되었고 함께 등과한 이방원(李芳遠)과 교우가 깊었다. 고려가 망한 후 전곡읍 은대3리 반곡에 숨어지내며 평생을 고려 신하로 절의를 지키다 일생을 마쳤다. 고려 말 5충신을 모시는 의정부 송산사(松山祠)에 배향되어 있다. 1753년(영조 29)에 건립된 묘비는 전체에 비문이 적혀 있는데 앞면에는 "朝鮮微士逸老金先生謂揚南之墓(조선미사일로김선생위양남지묘)"라 쓰여있으며 비문은 경기도관찰사 김상익이 쓰고, 병조판서 김상성이 지은 것이다.

47) 연천군지편찬위원회, 『연천군지』상 - 연천의 설화, 연천군청, 2001.

김상익과 김상성은 모두 강릉 김씨의 후예들로 통현리 출신이며 이른 바 8판서(통현리 참조)에 속하는 인물들이기도 하다.

7) 삼신골: 서낭당고개 북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이 골짜기에 좋은 약수가 있었는데 이 물을 마시고 앓은뱅이가 일어났다는 전설을 담고 있는 곳이다.

8) 연못골: 삼신골 옆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큰 연못이 있었으나, 지금은 매몰되어 농경지가 되어 있다.

9) 서낭당고개: 고릉리에서 아랫양원리로 넘어 다니던 서낭당이 있던 고개 이름이다.

10) 개미산뽕뚜리: 서낭당고개 북쪽에 있는 개미가 많은 산 뽕뚜리.

11) 연천 고능리 백자요지(漣川高陵里白瓷窯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高陵里)에 있는 백자(白瓷) 가마터이다. 가마터 1은 경작지 정비 공사로 완전히 파괴되었고, 경작지면에 각종 자기조각이 흩어져있다. 채집된 유물은 백자사발, 백자제기접시의 조각과 자기로 만든 베개 등이 있다. 백자는 광택(光澤)이 양호하나 그릇의 형체를 만드는 방법이 조잡하며 굵은 모래로 굽받침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마터 2는 고능리(高陵里) 사기점에 있는데, 가마터 1과 마찬가지로 공사로 완전히 파괴되어 경작지면 전체에 자기조각이 흩어져있다. 채집된 유물은 주로 백자대접·접시·종지·잔 등이며, 굽이 높은 제기접시 형태의 자기로 만든 베개가 특징적으로 다수 발견되고 있다. 그릇의 형태를 만드는 방법이 조잡하며 번조(燔造) 상태도 불량하여 잡티가 많다.

12) 산제당골: 고릉리 사기점 동쪽에 있는 골짜기. 6.25 전까지도 4년에 한 번씩 산제를 올렸는데, 검은색 돼지를 제물로 하여 무속인이 주관했다 한다.

13) 능말(陵洞, 粉土洞): 사기점 부근에 있는 마을로, 최초에는 주(朱)씨가 개척을 했으나, 6.25 전에는 고성 이씨가 30호 모여 살았던 곳이다.

14) 박쥐골: 능안 동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사기점이 성업을 이룰 때에 이 곳에서 고령토를 채취하였는데, 폐광이 된 후 그 굴 속에 박쥐들이 많이 서식한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15) 성가마골: 국사봉 남쪽에 있는 큰 골짜기. 현재 도자기의 원료가 되는 고령토를 생산하는 도석광산이 있다.

16) 고장골: 국사봉 남쪽에 있는 골짜기.

17) 넘점고개: 고장골에서 황촌말에 있는 사기점으로 넘어 다니던 고개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18) 국사봉(國思峰, 面鏡山, 案山, 177m): 넘점고개 북쪽에 있는 높은 봉우리 이름.  
고려 멸망 후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절개로 전곡읍 음터에 은거한 일노정 김양남이 고려 멸망의 한을 달래기 위해 매일 이 산에 올라 개성을 향하여 망궐례(望闕禮)를 올린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6.25 전까지만 하여도 이 봉우리 정상에는 두 그루의 큰 소나무와 함께 그 옆에는 조그만 당집이 있었는데 내부에는 ㄴ말을 타고 군장을 갖춘 무관소상이 여러 위 있었으나 6.25로 인하여 모두 파괴되고 소실되어 지금은 아무런 흔적도 남아 있지 않다.

또한 주변에서 묘자리를 잡을 때 이 산을 안산으로 많이 잡는다 하여 안산으로도 불리워지고 있다.(면경산의 유래는 군남면 황지리의 빗접산 참고)

19) 황촌말: 국사봉 동쪽에 있는 마을. 예전 영근면의 고산리 지역이 되며, 6.25 전에는 황씨 8가구가 살았었다.

20) 사기점: 황촌말 안에 위치한 사기 가게. 과거에 전곡읍, 군남면 등 일근 주민들과 임진강에서 올라오던 새우젓 배들이 사기를 사가던 곳이다. 고능리 백자요지 중 한 곳이 여기에 있었다.(고능리 지명 유래 백자요지 참조)

21) 고새기낭절벽: 황촌말 남쪽, 한탄강변에 있는 높고 큰 절벽.

22) 갓모산: 논낭골 서쪽에 있는 산. 모양이 삿갓모양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3) 잔방골: 갓모산 남쪽에 있는 골짜기. 이 곳은 '작다'는 뜻의 옛말인 '잔'과 '산'의 고어 '밭'이 음이 변한 '방'에 골이 합쳐져 이루어진 땅이름으로, '작은 산골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24) 서방고개: 고릉리와 양원리로 통하는 고개. 현재 37번 국도가 지나간다.

25) 구리나무골: 서방고개 동쪽에 있는 큰 골짜기.

26) 논낭골: 갓모산 동쪽에 있는 골짜기.

27) 죽골: 논낭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28) 작은죽골: 죽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29) 평바위: 한탄교 서쪽, 강변에 있는 넓고 평평한 바위.

#### (4) 6.25 경험담

\* 현지조사에서 마을의 6.25 경험담은 채록할 수 없었다.

### 3.3.12 군남면 황지리(黃地里)

<제보자>

서영수(76): 황지리 노인회장. 마을 토박이.

신현화(55): 황지리 마을이장. 마을 토박이.

류희수(88): 황지리 주민(여성). 50년 간 거주.



## (1) 유래 및 생활

### 1) 유래

황지리는 남쪽을 볼 때 오른쪽은 임진강, 왼쪽은 한탄강이 흘러드는 차탄천을 끼고 있는 마을이다. 본래 마전군 화진면의 지역으로, 흠빛이 누르므로 ‘황지리’ 또는 ‘황지대리’라 했다. 마을 사람들은 따로 황지리를 구석돌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석문리를 병합하여 군남면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 8.15 광복 이후 3.8선 북쪽 지역이 되어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1개의 행정리, 5개 반,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 2) 마을의 생활

① 지형적 특징과 척박한 삶: 한탄강 주변의 마을이 대부분 그렇듯이 황지리 역시 현무암 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1m만 파고 들어가도 현무암이 나오는 곳이 바로 황지리이다. 황지리의 땅이 누런 것도 물을 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얼굴이 누렇게 뜨듯이. 거기에 강변은 깎아지른 벼랑이기 때문에 물을 공수하기도 어려웠다. 때문에 과거에는 차탄천, 임진강, 한탄강과 같이 주변에 물이 많았어도 정작 농사를 짓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매우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한다.

② 수해 이야기: 연천군은 크게 세 차례의 수해를 겪었다. 첫 번째는 1965년 태풍 사라호가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한탄강 물이 역류했는데, 당시 제보자(서영수)는 국수봉 근처 여울담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하류 쪽에서 물이 마치 서서오는 것처럼 몰려왔다고 한다. 급히 피신했는데, 나중에 보니 자신이 낚시하던 자리가 모두 물에 잠겼다고 한다.

③ 한탄강 이야기: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과거에는 한탄강에 다양한 어종이 많이 살고 있어서 낚시를 자주 했다고 한다. 주로 모래무지(치), 피라미, 차마자, 뱀장어 같은 것들이 많았고, 자라나 게 들도 매우 많았다고 한다. 또한 과거에는 임진강에서 들어온 새우젓 배가 이곳을 지나 연천읍(또는 전곡)까지 가기도 했었다고 한다. 배들이 왕래했기 때문에 한탄강변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았고, 힘깨나 쓴다는 사람들은 배를 끄는 일을 하거나 왈자패가 되기도 했었다. 제보자의 기억에 따르면 마을 어르신 중 한 명이 실제 깡패 노릇을 했었다고 한다.

### ④ 지리적 특징과 분단의 역사

황지리의 남쪽에 위치한 한탄강은 해방 이후 38선의 경계가 되었다. 즉 강의 북쪽은 북한, 남쪽은 남한이 된 셈이다. 황지리는 강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공산 치하에 놓였다. 한탄강의 맞은편에 국수봉이라는 산이 있는데, 해방 후 국군이 주둔하였다. 황지리 사람들이 한탄강에 먹을 감거나 빨래 또는 소 여물을 주러 한탄강변에 이르면 국군들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제보자에 따르면 소 여물을 주러 강가에 갔더니 국군들이 “소 끌고 넘어와라.” 하고 외쳤다고 한다. 그 정도로 지척에 놓여 있던 것이다. 실제로 황지리 남쪽의 한탄강은 강물이 평평하고 직선이라 옛날에 뱃터가 있었으며 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 수시로 사람들이 강을 건너가거나 와서 장사를 했다고 한다.



## (2) 설화

\* 문헌자료나 현지조사에서 마을의 설화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 (3) 마을의 지명 유래

1) 장진천(漳津川):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울리리의 새우고개에서 발원하여 전곡읍 은대3리 삼형제바위에서 한탄강에 합류하는 총연장 40km의 준용하천이다.

고려시대 연천군의 명칭이었던 '장주(漳洲)'와 연관되어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까지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으며, 연천읍 차탄리의 일부 구간인 '수레여울'로 인하여 '차탄천(車灘川)으로도 불렸다. 오늘날에는 장진천이라는 지명보다 차탄천이라는 지명이 더욱 많이 쓰인다.

신서면 도신리의 방아다리에 이르러 천덕산에서 발원하는 답곡천(答谷川)이 합류하고, 연천읍 동막리에서는 신서면 내산리의 고대산에서 발원하는 아미천(蛾眉川)이 합류하여 한탄강에 이르기까지 현무암 수직절애의 기경(奇景)을 연출한다. 이 하천에 있는 대표적인 경승지로는 꽃봉소(연천읍 옥산리), 용마위(=용모소, 전곡읍 은대리), 선바위(전곡읍 은대리), 삼형제바위(전곡읍 은대리)가 있다. (이하 자세한 설명은 은대리 지명 유래 차탄천 참조.)

2) 삼형제 바위: 한탄강과 차탄천의 합수 지점에 있는 바위로, 행정구역상으로는 은대리에 위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은대리·황지리·남계리 주민들의 생활이 어우러진 곳이다. 이곳에는 물에 빠져 죽은 삼형제를 그리워했다는 슬픈 전설이 전해진다.(은대리 삼형제 바위 참조) 한편 황지리에서는 삼형제 바위에 대한 다른 전설이 전해진다. 주민의 제보에 따르면 어머니가 이곳에서 자식을 점지해 달라고 치성을 드린 후 삼형제를 얻었다고 하여 삼형제 바위라고 했다는 설도 있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자식 점지해달라고 기도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3) 빨래터: 한탄강과 차탄천이 합수되는 지점에 위치한 평평한 바위로 삼형제 바위 바로 아래 쪽에 있으며, 행정구역상으로는 남계리 포춘음터에 해당한다.(남계리 빨래터 편 참조)

4) 용못: 빨래터의 아래에 위치한 못. 매우 깊어서 전설에 따르면 명주실을 한 꾸러미 넣어도 끝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 물고기가 많이 서식하고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자주 고기를 잡았으나 지금은 모두 메워지고 흔적만 남아 있다.



그림 49 지금은 메워진 용못 터

- 5) 음터: 과거 은대리를 일컫던 이름. 은대리와 황지리는 차탄천을 사이에 두고 있다. 그래서 황지리 사람들과 은대리 사람들이 자주 왕래했었다고 한다. 달리 은터로 부르기도 했다.
- 6) 용바위: 은대리 쪽 차탄천변에 위치한 바위. 용의 머리와 같이 생겼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은대리 지명 유래 참조)
- 7) 요골: 현 화진초등학교 북쪽에 있는 골짜기.
- 8) 석문동: 황지리 동남쪽, 322번 지방도 옆에 있는 마을, 장진천변에 펼쳐져 있는 현무암 절벽의 형상이 돌로 된 문과 같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며, 마을 사람들은 구석동 또는 구설 돌로부르기도 한다. 현 마을회관이 있는 지역이다.
- 9) 양수장: 과거 일제 강점기 때 설치했다는 양수장. 황지리 남쪽의 장진천변에 있다. 즉 전곡읍에서 황지리 방향으로 장진교를 건너다보면 오른 편에 병풍처럼 놓인 주상절리(장진 낭)가 있는데, 양수장은 장진천을 따라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간 지점에 위치해 있다. 일제 강점기 때 이곳에서 강물을 끌어 올려 농업용수를 마련했다고 하나 현재는 터만 남아 있다. 황지리의 서쪽에도 농업용수를 끌어올리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을 관낭이라고 한다.



그림 50 콘크리트 조각들이 과거 이곳이 양수장이었음을 말해준다.



그림 51 양수장터에서 바라본 차탄천.

- 10) 포전: 황지리 아래 현 환경사업소 앞을 흐르는 냇가.
- 11) 여울담: 빨래터 아래에 위치한 담. (남계리 여울담 참조)
- 12) 국수봉: 한탄강을 사이에 두고 남계리의 맞은 편 고능리에 위치한 산.(고능리 국사봉 참조)
- 13) 오류동(靑柳洞: 오릿골): 마산 동쪽, 현 황지리 냇시터가 있는 곳. 오리나무(오류나무)가 많았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다. 남계리 주민의 제보에 따르면, 국군이 그곳 주민들 30여 명을 사살한 적이 있다고 한다.
- 14) 관낭: 황지리 서쪽, 임진강에 있는 현무암 석벽. 황지리와 남계리에 넓게 펼쳐져 있는 화진벌이 경지정리되면서 이 곳에 농업용수를 퍼 올리는 양수장을 설치하여 지어진 이름이다.<sup>48)</sup>
- 15) 말여울: 관낭 북쪽에 있는 임진강 여울. 이 곳의 지형이 풍수지리설로는 목마른 말이

48) 이하의 내용은 『연천 향토사료집』(연천문화원 편, 2003)에서 발췌하였다.

물을 마시는 갈마음수형국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는 유래를 가지고 있으나, 원래 말여울의 앞음절 ‘말’은 고어로 ‘큰’을 뜻하는 말로 씌었으므로, 이 여울은 ‘큰 여울’로 풀이 되어야 옳은 것이라 할 수 있다.

16) 기탄(歧灘): 가마소 옆에 있는 여울. 임진강의 물이 이 곳에 이르러 강 가운데 퇴적되어 있는 모래섬으로 인하여 두 갈래로 갈라진다 하여 붙여진 여울 이름이다.

17) 가마소: 말여울 북쪽에 있는 소(沼)

18) 뱃터거리모퉁이: 마탄동에서 임진강나루로 가기 전에 있는 모퉁이. 예전에는 이곳에 있던 나루를 이용하여 마전으로 왕래하였다 한다.

19) 도깨비여울: 가마소 북쪽에 있는 임진강 여울.

20) 무쇠봉(134m): 가마소 북쪽, 임진강 옆에 있는 산 봉우리. 우리나라에는 ‘무쇠’, ‘무시’, ‘무수’가 들어가 있는 땅이름이 전국에 무척 많이 나타나 있는데, 모두가 강이나 내를 끼고 있어 물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물’은 옛날에 ‘믄’, ‘뭍’, ‘뭇’, 등으로 발음되어 왔으며, 그 한 예인 ‘뭇’은 음의 변화를 거치며 ‘무쇠’로 굳어지게 된다. 따라서 무쇠봉은 ‘임진강 옆에 있는 봉우리’라는 의미를 가진 땅이름으로 볼 수 있다.

21) 마구리약물: 무쇠봉 북쪽, 산비탈에 있는 약수.

22) 등골: 무쇠봉 동쪽에 있는 골짜기. 원래 산을 뜻하는 고어의 ‘뚝’과 ‘골’이 합하여 단순히 ‘산골짜기’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던 것이, 변해서 ‘등골’로 발음되어 쓰이면서 다시 한자로 음차하여 엉뚱하게도 ‘藤谷’이 된 곳이다.

23) 망두골: 등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24) 서낭고개: 등골에서 왕림리 안골로 넘어 다니는 고개. 마루턱에 성황당이 있었다.

25) 쇠골고개: 등골에서 새점으로 넘어 다니던 고개.

26) 이러니골: 등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27) 도당골: 이러니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옛날에 도당이 있었다 하며, 작은 도당골과 도당골로 나뉜다.

28) 양지말: 마탄동 북쪽에 있던 마을. 음지말에 상대되는 이름이다.

29) 금계골(金鷄谷 = 음지말): 양지말 동쪽에 있던 마을. 이 골짜기 안에 있는 산의 형태가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금계포란형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현재 그 명혈에는 강릉 김씨의 묘가 있으며, 6.25 전에는 개성 왕씨들이 살았던 마을이다.

30) 개미골: 금계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31) 마탄동: 양지말 남쪽에 있던 마을. 임진강에 있는 큰 여울인 말여울로 인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6.25 전에는 청송 심씨가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32) 오리골고개: 마탄동에서 오리골로 넘어 다니던 고개로 '벼락재고개'라고도 한다.

33) 마산: 마탄동 남쪽에 있는 갈마음수형의 산.

34) 수사막골고개(=송낙골): 오리골에서 금계골로 넘어 다니던 고개.

35) 가리상골: 오리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36) 장진낭(漳津崖): 구석동 동쪽, 차탄천변에 펼쳐진 높은 현무암 절벽. 차탄천은 달리 장진천으로 불리기도 했다.

37) 좌부승지 백유함 묘: 조선시대 좌부승지를 지낸 백유함(1546~1618)의 묘.

38) 동글봉: 구석동 북쪽에 있는 동그란 모양의 봉우리.

39) 빗접산: 요골 북쪽, 긴등에 딸린 산. 풍수지리설로는 이 곳의 산 모양이 미녀가 머리를 풀고 앉아 머리를 빗는 형국인 옥녀산발형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또한 한탄강 건너 전곡읍 고능리 국사봉은 미녀가 마주 대하고 앉아 치장할 때 보는 거울과 같다 하여 면경산으로도 불리나, 미녀가 풀어 놓은 비녀봉에 해당하는 명혈을 찾지 못한다 한다.

40) 긴등: 빗접산 동북쪽에 있는 긴 산등.

41) 달안이(達遠里): 빗접산 동쪽에 있는 골짜기 마을로, 윗달안리와 아랫달안리로 나뉜다. 땅이름에서의 달은 처음에 들, 산, 돌, 흙 등을 포괄하는 단순한 땅의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곳 달안리와 관계가 되는 '들'의 원래 음은 '들'로 불렸으며, 이 '들'이 차츰 '달'로 음이 옮겨가 안쪽의 뜻을 가진 '안'과 합쳐져 '달안(野內)'으로 되었다가, 이후 '다라니' 또는 '달안이'로 불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달안이'는 은대리 가사평과 화진벌을 기준으로 하여 '넓은 들에서 안쪽에 위치한 산골짜기 마을'이라는 지정학적인 뜻을 가지고 있을 뿐, 한자의 達遠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다.

42) 오소리등: 달원리 남쪽에 있는 산 등으로, 오소리 형상이라 한다.

- 43) 회가마골: 오소리등 남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회를 구웠던 곳이라 한다.
- 44) 새점: 오소리등 동쪽에 있던 마을. 일제 강점기 때 옹기를 굽던 요업이 번창했던 곳이다.
- 45) 기와골고개: 마탄동에서 화진별로 나오는 고개.
- 46) 능골: 새점 북쪽에 있는 골짜기. 개안 김씨의 큰 묘가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47) 쇠골: 능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전언에 의하면 일제 강점기 때 철광을 개발하였으나 운반여건이 좋지 않아 폐광이 되었다 한다.

#### (4) 마을의 6.25 경험담

##### 1) 할아버지의 6.25 전쟁 이야기

제보자는 황지리에서 출생하여 6.25 때 피난 간 것을 제외하면 계속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증조부 때 철원에서 이곳으로 이주하였으니 3대째 토박이인 셈이다. 유복자로 태어났으며 10살 때 해방을 맞이하였다. 황지리는 38선 이북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 약 5년 간 인공 치하에서 살았다. 당시 어머니는 보따리 장사를 하였는데, 원산에서 들어오는 북어 같은 것들을 짚어지고 한탄강을 건너 38선 이남 지역으로 가서 장사(물물교환-고무신, 운동화)를 하셨다고 한다.

인공 치하 시절 이곳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김일성의 언동에 찬양하는 대회가 열렸다. 제보자의 삼촌이 이런 상황에 대해 불평하셨다가 누군가의 밀고로 이리저리 쫓겨 다니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6.25 전쟁이 나자 제보자의 가족은 햇골, 지금의 연천향교 부근에 살고 있던 이종사촌의 집으로 피신한다. 그러나 그곳 역시 격전지 중 하나여서 포격 소리가 너무 심해 집 안에서 이불만 뒤집어쓰고 있어야 했다. 포격이 끝나면 국군이 인민군을 색출하기 위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행패를 부렸다고 한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걸어서 안성까지 피난한 제보자는 다시 천호동으로 와서 초등학교 6곳을 전전하다가 17세만에 천호동의 한 초등학교를 졸업한다. 덕수중학교에 입학하여 천호동에서 통학하던 도중에 황지리로 돌아온 제보자는 5시에 전곡으로 나가서 청량리까지 기차를 타고 가서 다시 동대문까지 버스를 타고 덕수중학교까지 가는 고된 통학 길을 하다가 집안 사정으로 결국 졸업하지 못했고, 그후에는 황지리에서 농사를 하며 살았다.

### 3.3.13 군남면 남계리(楠溪里)

<제보자>

심양섭(81): 남계리 전 조합장. 청송 심씨. 조상 대대로 토박이(350년).

현석근(57): 남계리 이장. 마을 토박이

문창근(76): 남계리 노인회장. 평안도 출신. 약 64년 간 거주.

현석주(71): 남계리 마을회관 총무. 54년부터 거주.



#### (1) 유래 및 생활

##### 1) 유래

본래 마전군 화진면 지역으로 조선 중엽 '남계(楠溪)'라는 호를 가진 영동 이씨의 묘가 있다 하여 남계리라 하였는데, 1895년(고종 32)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도감포리와 음대포리로 분할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분할되었던 2개 리를 병합하여 다시 남계리라 하였다. 1945년 해방 이후 38선 북쪽 지역이 되어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 1월 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sup>49)</sup>

##### 2) 마을의 생활

① 남계리와 한탄강: 전곡읍을 지나 차탄천과 합수된 한탄강은 서쪽으로 계속 달려 도감포에서 임진강과 만나게 된다. 남계리는 차탄천에서부터 도감포까지의 한탄강을 품고 있다. 남계리의 남쪽을 지나는 한탄강은 강폭이 크고 물이 곧아서 임진강에서 들어오는 배가 이

49) 연천문화원 편, 『연천 향토사료집』, 연천군청, 2003.

곳을 지나 연천까지 올라갔다. 물이 아주 깊지 않아서 때때로 배를 끌고 올라가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② 화진별 이야기: 남계리와 황지리에 걸쳐 있는 화진별은 서쪽의 임진강, 동쪽의 차탄천 남쪽은 한탄강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삼면이 주상절리로 되어 있다. 즉 양쪽은 절벽이며 가운데가 평평한 곳인 셈이다. 화진별은 매우 넓은 평야지만 현무암 지대이기 때문에 물을 가뭇둘 수 있는 곳이 없고, 양쪽으로 큰 강이 흘러가지만 모두 절벽 아래라 딱히 물을 대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모양만 평야였지 실제로는 황무지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화진(禾津), 즉 쌀이 나는 지역이란 뜻을 갖게 되었다. 하도 쌀밥을 먹고 싶다는 이곳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평야의 이름이 된 것이다. 실제로 연천의 한탄강 지역 평야는 대부분이 이러했다. 그러다가 일제 강점기 때 현 황지리의 북쪽 차탄천 변에 양수장이 건설되고 반대쪽에서 임진강 물을 끌어다 쓰게 되면서 비로소 논농사가 가능해졌고, 오늘날은 말 그대로 화진. 비옥한 쌀이 생산되는 곳이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도 전한다. 제보자(심양섭)에 따르면 화진평야를 개간한 것은 고병남씨였다고 한다. 고병남씨는 함경남도 북청 사람으로 양조장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 그 돈을 투자하기 위해 돌아다니던 중 이곳에 와서 전기를 끌어다가 개간했다고 한다. 그때가 일제 강점기였다. 이후 그 아들인 고영환씨가 일본 동경 유학 후 농림부에 근무했었는데, 부친 고병남씨가 사망 후 연천에 왔으나 그때가 마침 해방 후 인공치하여서 악덕지주로 몰려 재산을 몰수 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심하게 구타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③ 남계리 유적: 남계리에도 전곡리 구석기 유적과 동일하게 구석기 유적들이 발견되었다. 연천 전곡리의 구석기시대 유적지로부터 서북방향으로 2.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전곡리 구석기시대 유적과 동일하게 한탄강 강안 대지상에 놓여있다. 위적의 위치는 한탄강 하류에 속하며 해발은 50m이다. 이 유적에서 서남방향으로 2.5km되는 지점에 한탄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합수구가 있다.

이 유적의 발굴은 제1차 발굴이 1989년 8월 26일~9월 30일, 제2차 발굴은 1992년 11월 26일~12월 27일에 실시되었다. 제1차 발굴 때에는 벽돌공장부지 조성지역을 조사했으며, 제2차 발굴 때에는 제1차 발굴지역으로부터 동남방향으로 약33m 지점의 논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제1차 발굴지역은 벽돌공장부지 조성시 남은 일부를 발굴했으나 유적 자체의 파괴가 매우 심해 소기의 성과도 거둘 수 없었다. 그러나 제2차 발굴지역은 유적의 보존상태가 양호해 퇴적 층위의 성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다.

후기 구석기시대 늦은 시기(서기전 20만년), 후기 구석기시대의 이른 시기(서기전 3만 5000년), 중기 구석기시대의 이른 시기(서기전 8만~7000년) 등의 유물이 발굴되었다.

## (2) 설화

### 1) 착각한 이야기

제보자(문창근)의 목격담이다. 마을 어르신 하나가 잠에 남계리 단풍동에서 지계를 지고 가는데, 지계 줄을 묶는 것을 깜박 했다고 한다. 그래서 걸음을 옮기면 줄이 땅에 끌려서 기이한 소리가 났다. 멈추면 소리도 멈추고 걸음을 옮기면 소리가 나는 일이 반복되면서 어르신은 그만 도깨비가 자신을 흘리는 줄 알고 기겁을 해서 부리나케 도망쳤다. 한참 도망치다가 인가에 들러 목을 축이고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그 들은 상대가 바로 제보자이다.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당시에 정말 무섭게 들렸던 이유는 현재

단풍동에서 황지리로 향하던 평평하고 탁 트인 얇은 고개가 당시에는 인가도 없고 온통 황무지여서 정말 귀신이 나올 정도로 으스스했던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 2) 용못과 관련된 전설

용못은 한탄강과 차탄천의 합수머리에서 약 200m 쯤 내려와 있는 곳에 위치한 못으로 현재는 메워졌으나 과거에는 명주실 한꾸러미를 풀어도 끝에 닿지 않았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깊었다고 한다. 이 용못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설이 전해진다.<sup>50)</sup>

① 묘 속의 판 세상: 요기 합수지(한탄강과 차탄천)를 조금 내려가서 용못이라고 있어요. (조사자 : 용못은 왜 용못이에요?) 그래 그걸 잘 모르겠고, 거기 참 재미있는 전설이 있어요. 그 용못에 고 위에 바로, 아 그러니깐는 옛날에 윤정승이라는 사람의 묘가 거기에 있어요. 묘가. 윤정승이라는 양반의 묘가 거기에 있는데 그전 옛날에는 물수업을 하는 사람을 그전에는 해교라고 했습니다. 해요. 지금은 잠수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해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교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인제 거기를 들여다 보니까는 거기에 불이 환하게 쬐여 있는데 그래 턱이 방죽처럼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턱이. 그 인제 그걸 들여다 보고 있으니까는 인제 조그마한 동자라고 그러지요. 촛불을 켜고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 인제 들여다 보고 있느니까는 촛불을 끄고 없어진거야 인제. 그 얘기고.

② 이무기 못: 또 거기서 한가지 얘기는 그 현실로 아주 옛날이 아니고 그 분들이 현실로 봤답니다. 그 분들이 소를 가져다가 별판에 메어 놔는데 이무기가 나와가지고서 그 소를 채어가지고 갔습니다. 고삐하고 코투래만 남은 거야 인제. 이무기가 끌고 들어가서. 그래서 인제 그 못을 지금 용못, 용못하는 사실은 이무기 못예요. 그리고 그 못인데 거기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조사자 : 왜 고기가 없어요?) 없죠. 잡히지 않고. (조사자 : 물은 맑아요?) 물은 맑죠.

근데 그것이 왜정 그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열 다섯, 열 여섯 그때가 아마 소하 14년 쯤 되었을까, 그때 각처에서 몰려 들어 왔어요. 몰려 들어왔는데 예전에는 물을 푸는 것을 발동기를 썼는데 그걸 뭐 시작만 하면은 장마가 지는거야, 그걸 시작만 하면. 그래 어떤 해에 가뭄이 저서 물을 푸는게 그 물 나가라고 도랑을 이렇게 치는데 그게 인제 얘기 속에는 그게 용이 될거다 그러는데 그게 구렁이인데. (조사자 : 구렁이요?) 응. 구렁이가 그렇게 크답니다. 귀가 달리고. 그래가지고서 인제 그 구렁이를 잡아가지고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물을 푸다 말고 그 구렁이를 잡아 먹었다던데 그때 그 얘기가 한창 떠돌 때에는 그 구렁이를 먹은 사람이 한 십 몇 명이었는데 싹 다 죽었답니다. 그걸 먹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그 외에는 별반 말씀드릴 게 없네요.

## (3) 지명 유래

1) 도감포: 임진강과 한탄강이 합수되는 지역. 예로부터 모래사장이 발달하고 주변에 기암절벽이 병풍처럼 늘어서 있다. 경치가 아름다워 외지 사람들은 물론 마을 사람들도 자주

50) 이하의 내용은 조흥욱 외, 『경기북부구전자료집2-연천군 편』, 박이정, 2001, 245-250쪽, 참조. 답사과정에서도 해당 내용이 제보된 바 있으나, 구연 내용이 매우 간략하고, 출처 및 경로가 불분명하여, 관련 내용이 보다 온전하고 객관적 근거를 갖춘 문헌 기록을 인용하였다.

놀던 곳이라 한다. 지금은 교량이 놓여져 있어 경관이 다소 변했다. 다리가 생기기 전에는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교각이 놓인 이후 취소되었다. 제보자(심양섭)에 따르면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도감포(渡江浦)라 불렀다고 한다. 말 그대로 강을 건넌다는 뜻이다.<sup>51)</sup>



그림 53 도감포

2) 여울담: 빨래터 아래에 위치한 담. 지금도 깊지만 과거에는 명주실을 한 꾸러미 내려도 닿지 않았을 정도로 깊었다고 한다. 황지리 주민의 제보에 따르면 과거에는 임진강 유역에서 한탄강으로 건너온 새우젓 배들이 이곳을 거쳐 전곡읍까지 올라갔다고 한다.

10) 벌말: 어산 동남 쪽에 있는 마을. 지금은 많이 농경지화 되었으나 과거에는 남계리에서 가장 큰 마을에 속했다고 한다. 6.25 전에는 안동 권씨들이 집성을 이루고 살던 곳이다.

3) 남계리 물푸레나무: 남계리 물푸레나무: 벌말 남쪽에 있는 물푸레나무 고목. 어렸을 때부터 이 나무를 보고 자랐던 촌노들의 제보에 의하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그 모습, 그 크기라 한다. 전체 높이 15m, 둘레 2.9m, 수령은 약 300년으로 추정되며, 현재 연천군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정자가 있어 마을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며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51) 도감포(都監浦, 陶哥湄, 陶家湄, 甕岩灘)는 남계리 남쪽, 임진강과 한탄강이 합류하는 곳에 있던 포구 마을이다. 옛 지리지나 여러 기행문에는, 이곳 합수머리에서 임진강을 따라 전곡읍 마포리 지역에 넓게 펼쳐진 꽃담벌과 미산면 동이리 썩은소 앞의 강폭이 좁아지는 지점까지의 지형이 항아리의 형태와 닮았다 하여 '독안이(壺內)' 또는 '호구협(壺口峽)'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워졌다고 한다. 그러므로 항아리와 닮았다고 하는 지형 안에 있는 도감포의 원래 의미는 '항아리 형태의 지형 안에 있는 포구'란 뜻으로, '독안개(壺內浦)' 또는 '독안이'로 불리던 것이 '도감', '독암'으로 음이 변하여 한자로 지명을 옮겨 쓰는 과정에서 '도감포' 외에 여러 한자 명칭으로 표현되었다. 이 곳은 일제강점기 때까지도 임진강을 따라 올라온 새우젓, 소금 배들이 정박하며 연천 지역에서 생산되었던 곡물, 찹감, 도자기 등을 물물교환하던 큰 장이 형성되기도 했다. 주변의 빼어난 경관과 상거래를 하던 도감포 상선들로 인하여 조선시대 마전군 때에는 지산8경으로도 꼽혔던 명소였다. 한국전쟁 전에는 제주 고씨가 집성촌을 이루며 살았다. 연천문화원 편, 『연천 향토사료집』, 연천군청, 2003.



그림 54 마을의 보호수 물푸레나무

- 4) 오류동(오릿골): 현 황지리 낚시터가 있는 곳. 오리나무(오류나무)가 많았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다.(황지리 지명 유래 참조)
- 5) 음대리: 남계리 사람들은 현재의 은대리를 음대리로 부르는데, 증언에 따르면 원래 음대리였으나 이후 은대리로 바뀌었다고 한다.(은대리 지명 유래 참조.)
- 6) 사기점: 남계리는 강을 사이에 두고 고능리와 마주보고 있다. 마을 사람들의 제보에 따르면 고능리 한탄강가에 웅기점이 있었다고 한다. 달리 사기점. 사기맛골이라고 불린다.(고능리 사기점 참조)
- 7) 신복동: 단풍동 바로 위에 있던 마을. 6.25 이후 수복되면서 새로 형성되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마을이 생긴 시점이 일제 강점기 이후라고도 한다.



그림 55 지금은 농지로 변한 신복동 터

- 8) 어산: 남계리 물푸레 나무에서 오른 편, 큰옹댕이 옆에 있는 높이 70M의 야산. 어씨(漁氏)네가 산소를 썼다고 하여 어산이라고 한다. 달리 모양이 물고기처럼 생겼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증언에 따르면 어씨네는 양주 남면에 살고 있으나 산소만 이곳에

있다고 하며 산소를 쓴 시기는 대략 250년 쯤 전이라고 한다.

9) 범골: 단풍동과 도감포 사이에 위치한 얇은 골짜기. 동막골이라고도 한다.

10) 단풍동: 도감포에서 한탄강의 물줄기를 따라 올라오다 보면 강변에 있던 마을. 단풍이 많다고 해서 붙은 이름. 단풍동 아래 한탄강변은 원래 백사장이었으나 지금은 단풍동도 논으로 변했고, 백사장 역시 자갈밭으로 변했다.



그림 56 밭으로 변한 단풍동

11) 빨래터: 동매기등 아래, 한탄강과 차탄천이 합수되는 지점 바로 밑에 있다. 예전에 남계리와 황지리 사람들이 빨래를 했던 곳이라 한다. 남계리 쪽에서 보았을 때 한탄강과 차탄천의 합수지점 바로 아래, 삼형제 바위와 차탄천을 마주하고 위치해 있다. 이곳에서 서쪽으로 한탄강을 따라 조금 더 내려가면 빨래나드리라는 나루터가 있다. 황지리 주민의 제보에 따르면 이곳에는 지하수가 올라와 겨울에 다른 곳은 다 얼어도 얼지 않을 만큼 따뜻했다고 한다. 그래서 과거 생활용수를 구하기 어렵던 7,80년 대 까지 이곳은 남계리·황지리 사람들의 빨래터이자 수영장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곳의 맞은 편은 고능리이다. 다시 황지리 주민의 제보에 따르면 고능리의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서 국사봉이 있는데, 6.25 이전 남계리·황지리 주민들이 빨래터에 오면 국사봉을 지키던 국군들이 “소 끌고 넘어와라” 하고 소리쳤었다고 한다.



그림 57 빨래터의 모습 강 건너편이 고능리이다.

12) 빨래나드리: 등매기등 아래, 빨래터에서 한탄강을 따라 서쪽으로 내려간 강변에 위치한 나루터. 빨래터에서부터 이곳까지 이어진 한탄강변은 과거 황지리·남계리 주민들이 빨래를 하거나 생활용수를 길던 곳이며, 특히 이곳에서 배가 맞은 편인 고능리를 건너다녔다고 한다.

13) 배터거리: 빨래터에서부터 빨래나드리까지의 강변길.

14) 화진벌(禾津坪) - 서쪽의 임진강, 동쪽의 차탄천 남쪽은 한탄강 사이에 있는, 황지리와 남계리에 걸쳐 있는 평야. 남계리 주민의 제보에 따르면 하도 쌀밥이 먹고 싶다고 해서 벼 화자(禾)를 써서 화진벌이라고 불렀다. 넓은 평야이나 현무암 지대라 땅이 물을 저장하지 못해 척박했던 곳인데, 농업용수를 끌어다 쓰면서 비옥해졌다.

15) 궁굴산: 남계리 너머 동이리 쪽에 위치한 야산. 속이 비었다고 해서 궁굴산이라고 하며, 금을 캐다고 해서 금굴산이라고도 불린다. 실제로는 남계리와 임진강을 마주 보고 있는 동이리 지역의 산이다.

16) 국수봉: 한탄강을 사이에 두고 남계리의 맞은 편 고능리에 위치한 산. 원 이름은 국사봉이다.(고능리 국사봉 참조) 남계리 주민의 제보에 따르면 아주 옛날 큰 홍수가 났을 때, 물이 많이 차서 봉우리 바로 밑에까지 물이 찼는데, 그 봉우리의 크기가 국수 한 그릇 정도 될 정도였다고 하여 국수봉이라고 한다. 해방 후에 국군이 국수봉에 주둔해 있었는데 황지리 주민(서영수)의 제보에 따르면 한탄강변에 농사를 하거나 소 여물을 먹이러 가면 그 국수봉에서 군인들이 소 끌고 넘어와라하고 외치곤 했다고 한다.

17) 은터(隱垜): 현 은대리를 부르던 이름. 달리 음터라고도 부른다.(은대리 음터 참조)

18) 남계리 구석기유적지: 등매기등에 있는 구석기유적지.<sup>52)</sup>

19) 계림동: 도감포 북쪽, 임진강 옆에 있던 마을.

20) 밤여울: 계림동 서쪽, 임진강에 있는 큰 여울.

21) 중턱굴: 계림동 북쪽, 임진강 석벽 중간에 있는 자연굴로, 그 깊이를 알 수 없다 한다.

22) 화진벌(禾津坪): 남계리와 황지리에 펼쳐져 있는 넓은 들판.(황지리 화진벌 참조)

23) 단풍동: 도감포 북쪽에 있는 마을. 6.25 전까지도 단풍나무 고목 3그루가 있었다 한다.

24) 신복동: 단풍동 북쪽에 있는 마을. 6.25 이후 수복되면서 새로 형성되었다 하여 지어

---

52) 이하의 내용은 『연천 향토사료집』(연천문화원 편, 2003)에서 발췌하였다.

진 이름이다.

25) 진밭고리: 신복동 북쪽, 남계리 중앙에 있는 밭. 땅이 몹시 질어 곡식이 자라지 못해 피를 많이 심었던 곳이었으나, 화진벌이 경지정리가 되면서 지금은 옥답으로 변해 있다.

26) 큰옹댕이: 남계리와 황지리 경계가 되는 332번 지방도 아래에 있는 우묵한 옹덩이.

27) 주란마루: 어산 남쪽에 있는 긴 둔덕.

28) 정가니골짜기: 태안개울 옆에 있는 작은 골짜기.

29) 태안개울: 별말에서 한탄강으로 흐르는 개울.

30) 동매기등: 정가니골짜기 남쪽에 있는 등성이. 지금은 이 곳에 벽돌공장이 들어서 있다.

31) 포촌음터(浦村隱垆. 音垆浦里): 동매기등 동쪽, 한탄강 언덕 위에 있던 마을. 달리 포전이라고도 한다. 전곡읍 은대리의 음터와 인접한 포구마을로 조선 고종조의 광무 <<마전읍지>>에는 음터의 발음대로 '음대포리'로 기록되어 있다. 6.25 전에 큰 마을을 이루었으나 수복 후 경지정리가 되어 농경지가 되었다. 연천 환경사업소가 이곳에 위치해 있으며, 포촌음터의 끝자락, 즉 한탄강과 차탄천이 만나는 지점에 삼형제 바위(은대리 삼형제 바위 참조)와 빨래터가 있다.

#### (4) 마을의 6.25 경험담

##### 1) 할아버지의 6.25 전쟁 이야기

제보자는 350여년 간 이곳에 터전을 잡고 살아온 청송 심씨의 후예로 토박이다. 한탄강의 북쪽에 위치한 남계리는 과거 해방 당시 이북 지역이어서 공산 치하를 겪었다.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는 내내 마을 사람들은 공산군과 국군 모두에게 시달렸다. 특히 이북지역이었던 탓에 국군이 진격한 후 공산군 색출이라는 명목하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 실제로 제보자에 따르면 오류동(오릿골. 지금의 황지리 저수지 부근-황지리 편 참조)에서 국군이 그곳 아녀자들 30여 명 사살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 중에 한 사람인가 살아남아서 이북으로 피신했다고 한다.

한편, 제보자가 6.25를 맞이한 것은 그의 나이 18세 무렵이다. 당시 이곳에는 국군과 인민군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던 격전지였다. 제보자는 전쟁 후 얼마 있다가 UN 경찰의 일종인 구공사에서 근무를 했다. 구공사는 일종의 군속 근무로 정식 군인은 아니나 군인 역할을 하는 직업이었다. 당시 구공사는 자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황해도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제대를 했는데 당시에 근무했다는 경력을 신청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근무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사람을 찾지 못해서 유공자 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주로 후방에서 근무를 하다가 휴전 후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남계리에서는 설마리 전투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제보자(심양섭, 문창근, 현석주)에 따르면 50년 12월 31일에 한국군이 후퇴를 결정하고 속을 든든히 채운 후 철수하다

가 감악산에서 중공군이 총을 쏘 대니까 동이리에 있는 궁굴산<sup>53)</sup>으로 도주하였으나 포위되었고 그 이후에 계속 후퇴하다가 몰살당했다. 이 전투는 영국군 글로스터 부대가 중공군에게 패전한 설마리 전투인데<sup>54)</sup>, 당시의 기록과 제보자의 증언을 고려할 때, 궁굴산 지역은 글로스터 연대가 최초 후퇴했거나 후퇴했던 곳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53) 궁굴산(金窟山, 金堀山, 尾頭山, 쇠파리산, 烽火山, 195.7m): 동이리와 우정리 경계에 있는 산. 쇠파리 많이 매장되어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일제 강점기 때에는 금광과 철광이 개발되었으며, 그 때 채굴로 인하여 산 내부가 텅 비어 있어 '궁굴산'으로도 불리고 있다. 조선 초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마전군 편에는 이 산이 "미두산(尾頭山)"으로도 기록되어 있으나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전설에 의하면 대홍수로 인하여 온천지가 물바다였는데 이 산 정상만이 소의 등에 얹은 쇠파리만큼 남았다 하여 '쇠파리산'이라는 별칭과 함께, 고려시대에는 봉화를 올렸던 곳이라 하여 '봉화산'이라고도 불린다.

54) 설마리 전투: (雪馬里戰鬪, 글로스터 고지 전투)는 1951년 4월 23일에 감행된 중공군의 제1차 춘계 공세를 3일간 방어한 전투이다. 국군과 함께 임진강 방어선을 구축하여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하던 영국의 글로스터 대대는 중공군의 총공세에 계속 후퇴하면서도 격렬히 저항하였으나 결국 파주의 설마리 계곡에서 포위되어 67명이 탈출에 성공하였고 59명이 전사하고 나머지 526명은 포로가 되었다. 비록 패배하였으나 동두천으로 진격하려던 중공군을 3일간 막아냄으로써 중공군의 기세는 무뎠고, 유엔군은 후퇴하여 서울 북부에서 방어를 준비할 수 있었다.